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
전 도 서
Ecclesiastes

전 종 욱 지 음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

“전도서”

Ecclesiastes

전 종 욱 지음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일러두기

이 책의 저자는 신내침례교회 담임목사로 내용의 일부는
진리침례교회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
전도서
Ecclesiastes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19. 8. 17

지 은 이 | 전종욱

펴 낸 이 | 김영균

디자인·편집 | 금강인쇄 / 김화영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 ISBN 978-89-89741-97-8

■ 정가 14,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 본서에 인용된 성경구절은 킹 제임스 흠정역 5판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머리말	10
1. 전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 1:1	13
2. 인생의 헛됨 1:2~11	26
3. 지적탐구의 헛됨 1:12~18	34
4. 희락의 인생 2:1~11	43
5. 나를 위한 인생 2:4~9	51
6. 지혜로운 자의 헛됨 2:12~26	58
7. 시기와 때 3:1~8	66
8. 해산의 고통 3:9~15	75
9. 사람과 짐승의 죽음이 같다. 3:16~22	84
10. 위로자가 없는 사회 4:1~3	92
11. 홀로 산다는 것 4:7~12	100
12. 세대 간의 갈등 4:13~16	112
13. 말에는 신중하라. 5:1~7	121
14. 정의는 살아있다. 5:8	135
15. 바람을 얻으려는 수고 5:9~17	143
16. 사람을 헛되게 하는 것들 6:1~12	152
17. 사람을 더 낮게 하는 것들 7:1~6	163
18. 부끄러운 자화상 7:7~10	175

19. 지혜로운 처신 7:11~22	183
20. 지혜를 시험한 결과 7:23~29	194
21. 지혜로운 사람 8:1~5	207
22. 때와 판단 8:6	216
23. 인생의 한계 8:7,8	228
24.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 8:9~11	237
25. 잘 되는 사람 8:12~14	244
26. 사람이 알아낼 수 없는 일들 8:16,17	253
27. 도토리 키 재기 9:1~3	259
28. 살아있다는 것 9:4~10	264
29. 계획대로 되지 않다 9:11,12	276
30. 속물 인간들 9:13~18	284
31. 어리석음의 해악 10:1~7	296
32. 어리석은 자 10:8~15	309
33. 삶의 지혜 10:16~20	320
34. 알지 못하는 것들로 둘러싸인 인생 11:1~6	331
35. 어두운 미래 11:7~10	340
36. 젊은 시절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12:1~7	349
37.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8~14	361

머 리 말

전도서는 읽을 때마다 전도서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한 번 다루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면 수십 년을 살아 온 경험으로 가볍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읽기만 했을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의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노루가 훌쩍 뛰듯이 먹을 것이 많은 곳만을 골라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훌쩍 뛰어서 도착한 곳은 눈에 익었거나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지막한 동산도 아니고 마치 태산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설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렇게 썼을까? 전후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 위대한 왕의 침략으로부터 작은 도시를 건져낸 가난한 지혜자가 멸시를 받았는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 전도서가 매우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전도서와의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글을 썼는가? 그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책 저책 찾아보아도 답이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잠자리에 누웠어도 잠에서 깨어서도 전도서의 본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전도서의 이해되지 않는 본문을 물었습니다. 그만큼 전도서가 어려웠습니다. 전도서를 공부하면 할수록 전도서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쓰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전도서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전도서는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느

끼게 해주지만 더욱 바라기는 할 수 있다면 한 번 전도서를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면 더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과 같은 올바른 길잡이가 없다면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으나 자신이 가고자하는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목적하는 방향은 오직 한 방향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많은 길들이 우리를 목적하는 곳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뿐입니다. 세상에 많은 인생의 안내 지침서가 있지만 그 책들이 다 우리에게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책만이 유용합니다. 전도서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나침반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서가 있는 한,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전도서를 쓸 수 있도록 솔로몬을 예비하시고 이런 귀한 책을 우리에게 주신 주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15년 가을의 문턱에서

전 종 욱

1. 전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 1:1

보고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장에서의 최선은 지휘관이 전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지휘관이 현장상황을 모두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상황을 모른 채 작전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지휘관으로 하여금 모든 현장상황을 알게 해주는 것이 척후병의 보고서입니다. 지휘관은 척후병의 보고서에 따라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적에 대한 잘못된 보고는 지휘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결과는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부자로, 왕으로, 지혜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농부로, 어부로, 선비로, 천년만년 장수한 인생으로, 쾌락을 누린 인생으로 모두 한 번씩 살아보고 그런 인생이 어떠한가를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에 관한 아주 좋은 보고서가 있다면 그 보고서를 통해 그런 인생을 알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매우 정확하고 훌륭한 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훌륭한 보고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팀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 온 10명의 보고서와 2명의 보고서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은 적이 얼마나 강한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적의 화력과 적의 군대 규모와 적의 요새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능

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민 13:31~33). 적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은 알고 아군은 전혀 모르는 잘못된 보고서입니다. 적이 강하다 해도 아군이 적보다 훨씬 강하다면 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2명은 다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민 14:7~9). 2명은 적도 알고 아군도 잘 알았습니다. 아군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므로 올라가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매우 훌륭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훌륭한 보고서 대신 잘못된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잘못된 보고서를 채택한 결과는 그들에게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

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스무 살이 넘어 계수 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민 14:26~30)

보고서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보고서가 있지만 정확한 보고서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세상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보고서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하거나 낙관적 미래를 보고합니다. 매우 과장된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한 보고서를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한다면 우리 인생은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선포자 솔로몬의 아주 정확하고 훌륭한 인생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우리 인생을 과장하거나 미화하거나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보고서를 읽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1절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어쩌면 하루에도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왜? 왜? 그러나 인생에 대한 문제는 의문만 있고 답은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조물주가 있는가? 질문은 있고 답이 없었습니다. 답은 없어도 다음 질문은 계속됩니다. 조물주가 있다면 어떤 분일까?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가? 사람은 왜 70년, 80년 밖에 못사는가? 왜 저 나무나 바위처럼 천년만 년 아니 수억 년을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는가? 수억 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질문은 많으나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답이 없는 문제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답이 있다 해도 과학이 발달해서 답을 찾을지 모르지만 내 생애에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 여겼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답을 제시하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할만한 답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랬습니다.

BC 563년 인도의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석가도 이런 질문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거리에서 지나가는 장례행렬을 보고 인생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가? 그는 이 의문에 사로잡혔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고귀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 석가가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여 그 좋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집을 떠난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왕자의 자리보다 중요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석가의 행동이 이해됩니다. 그가 찾은 철학적인 답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

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인생에 의문만 있고 답이 없다면 우리는 심히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다면 구태여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답이 없다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는 큰 풍년이 들자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 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눅 12:18,19). 이 부자의 인생은 분명히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는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곡식을 산터미 같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이거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배부른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짐승은 배부르고 등 파스하면 그만입니다. 여름 날 배부른 소는 시원한 그늘에 누워서 몇 시간이고 눈을 지그시 감고 가끔 귀나 꼬리로 귀찮게 하는 파리를 쫓으며 평화롭게 되새김질을 합니다. 때가 되면 주인이 꼴을 줍니다. 세상에 소만큼 편한 동물은 없습니다. 소는 자기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존하고 배부르고 편하면 됩니다. 짐승은 이런 삶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인생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다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일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신의 인생이 설명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인생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뛰어난 인생론

입니다. 세상에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쓴 수많은 인생론이 있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인생을 논한 모든 책들 중에서도 단연 뛰어난 책입니다. 왜 전도서가 그토록 권위있는 책인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생론은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배우고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론에 대한 책을 고를 때면 먼저, 누가 썼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만큼 글을 쓴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지식을 가졌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1:1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12절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확인합니다.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이스라엘의 제 3대 솔로몬 왕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왜 인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선포자가 가장 권위 있는 인생론을 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면 괜히 시간과 노력과 돈 들여 그의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그의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인생에 대해 조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 의사, 법학자, 종교인, 대기업 회장, 예술가, 체육인, 정치인, 학자 누구라도 인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 지식과 경험이 있을지라도 인생을 말한다면 그렇게 썩 어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나 교회의 교리에 관해 말해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농부나 목자가 인생론을 쓸 수 있지만 농부는 농사에 대해 말해야 설득력이 있고 목자는 양이나 소에 대해 말해야 권위가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목자는 양에 대하여 농부는 농사에 대하여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존경하지만 그가 인생론을 썼다면 잘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인생을 경험하였으므로 인생을 말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왕도 왕 나름입니다. 어떤 왕은 허수아비 왕이 있고 어떤 왕은 굴욕을 당한 힘없는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국력이 가장 왕성할 때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그의 통치 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주변국 누구도 이스라엘과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매일 만들고 세우고 건축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기틀이 완전히 잡힌 나라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더해져 나라는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나오기를 원하였더라. 그들이 각각 자기의 예물을 가져오되 곧 해마다 정한 비율에 따라 은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져왔더라.”(왕상 10:24,25)

그는 최고의 지혜와 명철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재판에서 잘 드러납니다. 두 여자가 살아있는 아이와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가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왕이 이 문제를 판결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두 여자의 말을 들은 솔로몬이 즉시로 판결합니다. “그때에 왕이 이르되, 한 여자는 말하기를, 살아 있는 이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하고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살아 있는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 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이 이르되, 살아 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하니 그때에 그 살아 있는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속 중심에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겼으므로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 를, 오 내 주여, 살아 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그것이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나누게 하라, 하므로 그때에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살아 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 니니라, 하매 왕이 판단한 재판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 하였으니 이는 판단의 공의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왕상 3:23~28)

사람이 잠언을 말한다는 것은 인생을 깊이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개의 잠언도 말하기 어려우나 솔로몬은 3천개의 잠언을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인생을 깊이 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1005편의 시를 썼습니다. 시는 인생을 직접 경험하고 깊이 관찰한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들은 것으로 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인생을 논할 충분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게 바닷가의 모래 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가 삼천 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었으며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왕상 4:29~34)

솔로몬의 지혜는 주변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의 세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고 자신이 궁금해 하던 모든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으며 여왕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말합니다.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좌에 당신을 앉히시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왕상 10:6~9)

세상에 지혜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보다 지혜롭거나 명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네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네게 주었은즉 네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왕상 3:11~13)

그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기는 쉬워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인생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이 재물에 대하여 아무리 웅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최고의 부자였으므로 세상에서 돈의 무용론이나 유용론을 무론하고 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네게 주었은즉 네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왕상 3:13). 우리는 은수저나 은그릇을 대단히 아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만큼 부요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었으며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되었더라.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고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게 하여 삼 년에 한 번씩 그 다시스의 배들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왔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왕상 10:21~23)

그는 최고의 명예와 지식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지식은 오늘날에도 틀린 곳이 없습니다. 오늘의 과학은 솔로몬의 지식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지식입니다. 그는 식물과 동물과 날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그의 지식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왕상 4:33)

그는 또한 최고의 명예를 가졌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름은 40년 동안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네게 주었은즉 네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왕상 3:13)

그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와 첩이 많다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든 남자들이 법이나 경제력이나 다른 제약 때문에 할 수 없어서이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싶어합니다. 지금도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합법인 중동에서는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남자의 부를 상징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천명의 여자가 모두 합법적

인 그의 아내입니다.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칠백 명과 첩 삼백 명이 있었는데”(왕상 11:3). 적어도 솔로몬은 여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창조주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선생들이 인생에 관한 지침서들을 내어놓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인생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책은 마치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의사가 내놓은 처방전과 같습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는 처방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이 인생의 올바른 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전 12:1)

그의 시대는 태평성대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아들 솔로몬은 안정된 나라를 물려받음으로 전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40년은 이스라엘의 전성기요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많은 전쟁을 치렀다면 전쟁을 대비하고 그에 신경 쓰느라 인생을 깊이 관찰하고 경험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요하였으므로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을 쏟아(1:13) 인생의 문제를 깊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왕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만큼 인생에 대해 말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해 아래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단연 부러워할만한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의 권력과 많은 재물과 뛰어난 지혜와 명예와 지식과 천명이나 되는 아름다운 아내들과 나라의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으므로 그는 해 아래 인생을 말할 최고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어야 합니다. 또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자하는 사람도 반드시 이 전도서를 읽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세바 여왕에게 만족한 답을 주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철학, 학문도 답할 수 없었던 의문들에 대해 그는 충분하고 만족한 답을 줄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왕상 10:3)

2. 인생의 헛됨 1:2~11

선포자는 깊이 살펴 본 뒤에 인생의 헛됨을 알았습니다. 인생에 대한 그의 첫 일성이 인생의 헛됨입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이후에 전개되는 그의 책은 인생이 왜 헛된가에 대한 논증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이 인생을 실패하였기 때문에 헛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때는 성공하였으나 지금은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혜, 최고의 명예, 최고의 지식,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자, 천명이나 되는 최고의 미인들을 아내로 가진 사람이 인생을 헛된다고 합니다. 그는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도 왕이었고 마칠 때도 왕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좌에서 통치하다 평안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귀영화가 그에게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인생의 헛됨을 알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인생이 헛됨을 깨닫는 것은 자신이 목표한 것을 얻거나 이루었을 때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릅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정상까지 가야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은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꼭대기만 바라보고 거친 숨과 땀을 흘리며 올라가는 것에만 열중합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합니다. 먼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탁 트인 전망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도중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정상에서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시원함도 있고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입니다. 자신이 오른 정상은 세상의 수많은 산봉우리들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정상에 올라보면 가지 못한 다른 많은 봉우리

들이 눈앞에 전개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힘들어서 정상에 오른 것이 수많은 봉우리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다 오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설사 그가 전문 산악인이라 해도 그가 오를 수 있는 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전에는 헛됨을 모릅니다. 고지가 저긴데 … 오직 목표에 이르러서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상에 섰을 때 인생의 헛됨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고작 이것이었는가? 솔로몬이 인생의 최정상에서 인생의 헛됨을 알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3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솔로몬 이후 과학의 발달에 많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과학은 우리 삶에 많은 편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힘들게 수고하지 않아도 손가락으로 약간만 조작하면 기계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과 편리가 우리 인생을 헛된 것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인생이 우주를 갔다 와도 여전히 헛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장수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많이 노력한 결과 이전 세대보다 기대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수가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방황하고 어른들도 방황합니다. 과학의 발달, 지식의 증가, 기대수명의 증가, 생활의 여유, 문화생활의 향유 … 그 어떤 것도 끝없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

떤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쾌락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누가 보아도 인생을 망가뜨릴 뿐, 인생의 의미를 갖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인생의 의미가 없으므로 모든 것이 헛됩니다.

왜 인생이 헛된가 3~11절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에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3절

사람은 일생 동안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 수고를 통해 어떤 사람은 많이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학문에 빠져 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적 업적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권력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고작 70~80년 동안의 수고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남깁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행한 우리의 수고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모두 헛됩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여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하나 모두 남의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많은 것을 남겼으면 됐지 앓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면 나를 위한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아무리 많이 남겼어도 빈손으로 가야하는 내게 그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또 해는 뜨고 해는 저서 자기 처소 곧 자기가 뒀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느니라.” 4~7절

인생에 대한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노래들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한 가지는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덧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노래합니다. 대부분의 노래가 청춘이 가기 전에 인생을 즐기자고 합니다(전 11:9). ‘덧없다’는 말은 영속된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정한 때가 없다는 ‘인생무상’과 같은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없고 언제까지나 잘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달이 차면 기울어지듯 언젠가는 인생도 기울 때가 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를 때가 오고 즐거운 음악을 들어도 즐거움이 없을 때가 옵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 청춘은 가고 황혼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헛됩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은 80년입니다. 시인은 이 시간을 한 뼘이라고 합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시편 39:5). 80년이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인생을 나타났다가 곧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라고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약 4:14)

우리 인생은 한 순간 사라져버리고 다음 세대가 옵니다. 나는 늙고 변하고 사라지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땅은 우리가 오기 오래 전에도 있었고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땅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옛 시인은 이에 대해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물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여 꿈이런가 하노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해는 뜨고 저서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처럼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해는 자기 처소로 갔다가 내일이면 어김없이 다시 돌아옵니다. 해는 아담에게도 비쳤고 노아에게도 비쳤고 아브라함에게도 비쳤고 수천년 전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박넙쿨을 비추던 그 뜨거운 해가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사람일뿐 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한 번 불고나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갔다가는 북쪽으로 돌이키고 계속해서 돌며 자기의 순환회로를 따라 되돌아갑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불었던 같은 바람이 지금도 계속 불고 있습니다. 3500년 전 모세 시대에 홍해에 불었던 바람이 지금도 그 바다 위를 불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 몽고의 압력으로 몽골군대와 우리 군대가 일본을 정벌하려고 군대를 동원했으나 태풍으로 인해 배가 파선하여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의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은 지금도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태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흐를 수 있으므로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많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강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흐르고 있는 강물은 오래전에도 흘렀던 물입니다. 강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물이 흐를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인생 뿐, 땅과 해와 바람과 강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80년 인생과 비교하면 얼마나 헛된지 압니다. 우리 인생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변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한 뼘 길이의 우리 인생 역시 얼마나 헛된지 모릅니다.

인생은 수고로 가득하지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8절

사람은 코끼리처럼 크지도 않은데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자도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소도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곰도 배부르면 몇 달 동안 동면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만족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내게 돈이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원하는 만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쉬지 않고 수고하며 채워도 우리 인생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인생은 헛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형벌은 커다란 돌을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시지프스가 있는 힘을 다해 돌을 겨우 산의 정상 가까이 밀어 올리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돌이 다시 저 아래로 굴러가버립니다. 그러면 시지프스는 그 돌을 다시 밀어 올려야 합니다. 그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헛된 반복의 형벌을 받았습니 다. 인생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고자 한다면 시지프스의 헛된 수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9,10절

사람은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옷, 새 집, 새 차. 새 가방, 새 휴대폰, 새 가구, 새 기계, 새 책, 새 제품····. 새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새로운 것을 구합니다. 새로운 교리, 새로운 해석, 새로운 가르침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려고 몰려듭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옛 것입니다. 그가 늦게 발견해 주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최신 유행도 옛 것들의 반복입니다. 아무리 신식이라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구식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 것을 만들어내지만 끊임없이 옛 것이 됩니다. 요즘 새로운 스마트 폰이 계속 나옵니다. 출시하는 그 날은 새것이겠지만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 지나면 구식이 됩니다. 금방 구식이 되는 것을 새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새 것이었는데 내 손에 쥐는 순간 옛 것이 됩니다. 새 것이 가진 환상입니다. 새 것이란 영원히 새것이어야 합니다. 영원히 변함도 없어야 하고 영원히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영원히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는 그런 것이 없으므로 새 것은 영원히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다가올 것들도 그 후에 있을

것들과 함께 기억되지 아니하리로다.” 11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묘비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건물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 땅을 부르기도 합니다(시 49:11). 사람들이 자식으로부터 제사 받기를 원하는 이유도 제사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잊혀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앞서 살았던 나 OOO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궁은 인생의 헛됨을 느끼게 합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추상같은 위엄으로 조선 팔도를 호령하고 다스리던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살던 곳입니다. 또 당대의 내로라하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가문 좋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국사와 정사를 논하던 곳입니다. 그들은 왕을 보필하며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는 그들의 이름과 수고와 학문과 충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3. 지적 탐구의 헛됨 1:12~18

뱀은 여자 이브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창 3:4,5). 이브는 뱀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신들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리라는 강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식의 정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태어날 때는 모두가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자라면서 그가 어떤 지식을 얼마나 습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세상은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삽니다. 그가 가진 지식이 특출하면 많은 돈을 주고 그를 삽니다. 고졸과 대졸의 임금 차이도 지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인재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사실은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는 것입니다.

노벨상은 지적 탐구를 통하여 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받습니다. 2014년 일본인 3사람이 파랑색 LED(발광다이오드)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빛은 빨강색, 녹색, 파랑색 이 3가지가 있으면 흰색 빛이 됩니다. 백열등은 빛 효율이 10% 밖에 안 됩니다. LED는 효율이 90%나 됩니다. 빨강색 LED는 1968년에 처음 개발되었고, 황색과 녹색도 잇달아 개발되었지만 파장이 짧은 파란색 빛은 90년대까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이들 노벨상 수상자들은 파랑색 LED를 개발함으로 LED로 흰색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노벨상 수상자라는 영예가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지적 탐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도전과 즐거움을 줍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철학을 탐구합니다. 실용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수학이나 과학을 탐구합니다.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술을 탐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사람은 법학을 탐구합니다. 지적 탐구는 정신적인 공허를 채워주고 의미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탐구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재물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지만 지적 재산은 죽을 때까지 자신과 함께합니다. 오직 자신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되기도 하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 재산은 양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권리가 됩니다. 자신의 지식이 다른 사람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질 때 많은 만족을 느낍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선포자는 지적 탐구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13절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적 탐구에 책임자이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적 탐구에는 지혜와 탐구심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큰 지혜를 가졌고 사물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탐구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뛰어난 학자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깊이 살폈다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의 남다른 탐구심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모든 사물을 깊이 관찰한 그의 탐구심의 결과입니다. 그

의 뛰어난 지혜에다 왕성한 탐구심까지 더하여졌으니 그가 지식을 탐구하는 일에는 많은 진척이 있었고 아직 다른 사람이 밟아보지 않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16).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탐구하였습니다. 천체, 동물, 식물, 자연현상, 사람, 철학, 예술 솔로몬은 천체물리학 박사, 동물학 박사, 식물학 박사, 정치학 박사, 철학 박사, 법학 박사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학위가 있는지는 몰라도 지식으로 는 솔로몬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지적 탐구는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헛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14절

박사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전문가입니다. 박사가 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탐구해야 합니다. 많은 책을 읽어야 하고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전공분야에 해박한 지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직 연구하지 않은 부분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연구 성과가 있어야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박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식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박사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사가 연구한 분야는 수많은 분야 중 지극히 작은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그 분야의 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없는 지적 탐구는 사람을 참으로 피곤하게 합니다. 선포자가 해 아래에서의 모든 일에 관하여 탐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가 끝이 있어야 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일에 관한 탐구는 끝이 없으므로 선포자를 지치게 합니다. 산을 오를 때는 끝이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성취감으로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끝이 없다면 아무리 높이 올라

도 성취감이 없습니다. 예컨대 5천 미터 높이의 산 정상을 올랐다면 성취감이 있지만 1만 미터 높이의 산을 구천 미터를 올랐다 해도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없습니다.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선포자가 마음을 쏟아 지식을 탐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만족도 없고 끝도 없어 결국에는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끝없는 지적 탐구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쓰라린 해산의 고통입니다.

지적 탐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헛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으며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도다.” 15절

구부러지고 모자라는 것이 셀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곳입니다. 또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며 사악합니다(마 12:39,45).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기도 합니다. 법을 알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지만 구제받지 못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못살게 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없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법은 힘 있고 가진 자의 편리를 도모합니다. 불법으로 얻은 정보로 투기를 하여 많은 재산을 늘립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합니다. 능력보다는 위선자와 아첨꾼이 출세하고 승진합니다. 양심적인 사람보다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더 잘 삽니다. 거짓말이 더 잘 통하고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함보다는 요령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진실함보다는 거짓이 유리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큰 지혜와 많은 지식을 구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산적한 여러 문제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고 모자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지혜와 지식은 빛을 발하고 의미를 가집니다. 선포자는 한 나라의 왕이므로 더 크고 많은 문제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선포자 주위의 모든 것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이루 셀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그의 큰 지혜를 사용하여 탐구합니다. 그러나 선포자는 실망합니다. 그가 가진 큰 지혜와 많은 지식으로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으며”

법학자들이 범죄행동학, 범죄심리학을 탐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탐구가 범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죄에 대하여 아무리 탐구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에 관해 아무리 탐구해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문제를 탐구합니다. 그러나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한계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 탐구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헛됩니다.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복지의 필요성을 압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노후 대책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복지

를 확대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빈곤의 문제를 알지만 복지 문제를 아무리 연구하여도 모자라는 것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낮에는 그늘과 밤에는 열기를 공급해주셨습니다. 또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었습니다. 수박도 없고 부추도 없고 오이도 없고 양파도 없고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자신도 모자라는 것을 다 셀 수 없습니다. 인기가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외모가 없고 재능이 없고 옷이 없고 차가 없고 집이 없고 땅이 없고 권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언변이 없고 유머가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없고 건강이 없고 대책이 없고 재미가 없고 미래가 없고 직장이 없고 희망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의 모자라는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은 그를 돋보이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모자라는 것이 셀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적 탐구가 헛됩니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이 많으므로 헛됩니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나니” 18절

지혜는 지적 탐구에 매우 유용합니다. 선포자가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였습니다. 선포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16). 그러나 지혜가 많으면 탐구도 많이 하고 성과도 많이 내겠지만 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탐구하면 할수록 해 아래에서 올바르게 되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노벨상을 제정한 노벨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습니다. 노벨

은 다이내마이트가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 다이내마이트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폭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노벨은 자신이 개발한 다이내마이트가 사람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자 탄식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였는데 인류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이 돈을 사용해달라고 유언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노벨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 많은 책을 읽습니다. 책을 통해 많은 옛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전 2:6). 물론 지혜는 많아지겠지만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많아집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을 지혜로 인해 근심도 많아집니다.

지식을 늘리면 슬픔도 늘어나므로 헛됩니다.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18절

지적 탐구를 많이 하면 지식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적은 사람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합니다. 지식이 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시야가 넓어지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늘리면 내가 원하는 만족이나 행복이나 기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슬픔이 늘어납니다. 슬픔을 사전에서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악함이 큰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습니다(창 6:5~7).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을 늘리는 것도 결국은 정신적 고통을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해 아래에서 지식을 늘리면 늘수록 더 많은 헛됨을 보게 되고 더 많은 공허를 느끼게 되고 더 많은 인

생의 무의미함을 알게 됩니다. 석가는 인생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었기에 인생의 슬픔을 안 것입니다. 그가 만일 인생을 잘 몰랐다면 인생의 슬픔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등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만일 대학생에게 고등학생의 걱정을 이야기하면 행복한 걱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학생에게는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취업의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의 고민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면 어떨까? 직장인들에게는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대학생은 취업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장인에게는 평생 치러야 할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남느냐 낙오하느냐의 생존경쟁입니다. 같은 입사 동기지만 어떤 사람은 훨씬 앞서갑니다. 어떤 사람은 만년 대리 신세입니다. 그들에게는 힘들게 들어온 직장이지만 계속 다녀야 하는가? 라는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퇴직하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못 견디고 퇴직한다면 남은 생을 실직자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군에서는 제대를 앞두고 있는 고참 병장이 제일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참 병장들은 제대는 기뻐하지만 제대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의 고민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을 목표로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헛됨을 슬퍼합니다. 해 아래에서 사람이 지식을 늘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슬픔은 더욱 커집니다. 이것이 해 아래의 인생입니다.

선포자는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으나 해 아래에서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으므로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지혜를 알기 위해 마음을 쏟은 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나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도 늘리느니라” 18절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포자가 헛되다고 하는 공간은 “해 아래” 혹은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헛되다고 하는 대상은 “사람의 아들들”(1:13, 2:8) 즉 육신적인 출생에 따른 사람들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교리에 적용한다면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해 아래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해 아래는 수고에서 유익이 없습니다.

해 아래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해 아래는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습니다.

해 아래는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습니다.

해 아래는 지식을 늘리는 것이 슬픔을 늘리는 것입니다.

4. 희락의 인생 2:1~11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하게 살아도 80년이요, 그렇지 못해도 80년입니다. 부자로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먹는 것과 입는 것의 차이일 뿐 사는 날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고민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 것처럼 심각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마음껏 즐기며 살 것인가?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심각한 것보다 즐겁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고 노래합니다. 인생을 즐기자, 이것이 희락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차피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다면 희락이 유한한 인생의 최선일 것입니다. 선포자는 희락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인생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1절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선포자는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해줄 모든 것을 추구합니다. 웃음, 술, 아름다운 집, 취미생활, 문화생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소유합니다.

웃으며 살자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2절

한 번 웃으면 몇 분씩 젊어진다고 합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고 합니다. 웃음은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고 분위기를 밝게 합니다. 사람들이 우울하면 더욱 웃을 거리를 찾습니다. 코미디언들의 과장된 몸짓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웃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는 자신의 쇼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앞에 서기 직전 대기실에서 미국에 있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비통하여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쇼를 보기 위해 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쇼를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주일 씨의 한 마디 말에도 즐거워하며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의 손짓 몸짓 표정 하나 하나에도 사람들이 우스워 박장대소를 합니다. 이주일 씨 자신은 심히 슬프면서도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코미디언들은 매일 웃기는 소재를 찾고자 전쟁을 합니다. 관객은 그들을 보고 웃지만 본인들은 전혀 우습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통해 웃음으로 모든 걱정 근심을 잊으려 하고 기분전환을 하고자 하고 우울함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장애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언제 만나도 항상 밝고 유쾌하고 명랑하고 구김살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의 비관이나 어두운 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임에서 친구들의 분위기를 메이커였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 장애인 친구의 구김살 없고 밝은 모습에 모두 그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그 장애인 친구가 자신에 대해 솔직히 말하기를 친구들과 만나고 집에 돌아가면 혼자서 운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에게 자신의 약한 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마음에 없는 행동으로 웃고 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장되게 웃어야 하고 과장되게 밝게 보여야 하는 자신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웃음 뒤에 감추어진 인생입니다. 웃음은 그 안에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자신의 아픔을 숨기기 위해 웃고 있지 않습니까? 선포자는 웃음을 가리켜 미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잠 14:13)

술을 즐기자

“내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구하였으며” 3절

기분이 좋으면 기분을 더 좋게 하려고 술을 마십니다. 기분이 나쁘면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십니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여 현실을 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술이 잠시는 현실을 잊게 해주지만 술에서 깨면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술이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돈이 없었다면 술이 깬 뒤에도 돈이 없고 술을 마시기 전에 걱정이 있었다면 술이 깬 뒤에도 여전히 걱정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과 술에서 깬 후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술의 종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삼킵니다. 술로 잠시는 희락을 얻을 수 있지만 계속 되지 않습니다. 술에는 취함이 있을 뿐 희락은 없습니다. 술로 상황을 바꾸고자 하면 헛될 뿐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집에서 살아보자

4 “내가 나를 위하여 큰일들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5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6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7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

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8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9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 있었도다.” 4~9절

우리가 살고 싶은 최고로 멋진 집을 상상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집 주위에는 온갖 과실수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모과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복숭아나무 ·····, 넓은 잔디와 아름다운 연못, 가까이에는 맑은 시내가 흐르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계절에 따라 피며 새들이 노래하고 맑은 공기와 조용한 환경에서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로이 산다면 최상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집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런 집을 머리속에서 상상하였지만 선포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멋진 집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이 꿈에 그리던 그런 인생을 직접 살아보고 그에 대한 솔직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해주는 아주 귀한 보고서입니다. 사람은 어떤 시인의 말대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나도 한 번 저렇게 살아보았으면 ····· 라는,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으로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꿈꾸던 인생이 어떤가를 정확히

보여줌으로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해주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주며 현재의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저자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넓은 밭과 정원에는 온갖 유실수들을 심었습니다. 나무들에 물을 주기 위해 연못을 팠습니다. 그에게는 넓은 집을 관리할 많은 남종과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이 갖추어진 환경도 헛되었습니다.

품격 있는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했습니다. 8절

그럼 같은 아름다운 집이 있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갖가지 과실수들이 있고 연못이 있고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관리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큰 집을 유지할 충분한 재물도 있습니다. 물론 평생 놀고먹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눅 16:19). 그는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것이 그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지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따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용하게 시간을 보낼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좀 더 세련되고 고상한 인생을 원한다면 고상하고 세련된 취미 생활이나 문화생활을 찾을 것입니다. 선포자는 이런 생활을 통하여 아주 품위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선포자의 취미생활은 특이한 보물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8절

이것은 왕이며 또한 엄청난 부자이므로 가능한 매우 세련되고 고상한 취미생활입니다. 부자는 모두 이런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지 부자라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만한 안목을 가져야 하고 높은 관심도 있어야 합니다. 특이한 보물을 볼 수 있는 뛰어난 안목과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포자는 시시한 수집가가 아니었습니다. 왕들이 소유한 것을 모으려면 많은 왕들과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여 많은 돈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포자는 왕이었으므로 가능했습니다.

선포자는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8절

그는 음악에 남다른 감각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음악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포자는 음악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그는 얼마나 대단한 음악 애호가였는지 아예 집에 무대를 꾸미고 오페라 단과 합창단을 두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8절

“또 악기와 같이 사람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선포자의 취미생활로 그를 판단하건데 그는 매너 있고 왕 다운 기품과 최상류층의 고상한 품격을 가졌습니다. 무대에서 최고의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을 매우 즐깁니다. 최고의 실력있는 교향악단의 연주에도 탁월한 식견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선포자만큼 격조 높은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문학과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상한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해서 인생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욕구가 지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1:15).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선포자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선포자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다 가졌습니다. 10절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선포자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다 가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원하였는데 돈이 없어서 갖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또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하고 싶다면 여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와 다른 문제들로 인해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포자는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일 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태평성대였으므로 정치나 경제적 문제로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마음이 원하는 어떤 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

빠하였기 때문이라.”

당신도 이정도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인생은 만족으로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선포자가 이제 그가 원하는 것들을 가졌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았으므로 100% 만족한다고 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도 행복해지려면 자신과 같은 삶을 추구하라고 자신있게 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선포자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11)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누리고도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니요? 왜? 왜?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포자가 약간 정신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그의 말이 진실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헛되다는 선포자의 말이 틀리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헛되다는 선포자의 말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그의 말대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됩니다. 선포자는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지 그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5. 나를 위한 인생 2:4~9

4 “내가 나를 위하여 큰일들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5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6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7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8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9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 있었도다.”

사람은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됩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롬 1:1). 죄의 종은 죄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의의 종은 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종이 자신을 위해 산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마 24:48~51). 주인의 명령에 순종

하지 않으면 종이 아니며 그는 저주받고 쫓겨 날 것입니다(마 25:24~30). 그러므로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종이 들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보다 먼저 혹은 주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인이 음식을 먹도록 섬기고 그 후에야 먹을 수 있습니다(눅 17:7~9).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또 의의 종은 죄가 자기 주인이 아니므로 죄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죄의 종은 의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말이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선포자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기뻐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자신을 위해 최고로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선포자처럼 나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죄를 위하여 살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생명이시므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키를 한 자도 더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능력이 있다면 흰머리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다면 키가 작아서 고민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서도 정작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나입니다.

나는 죄를 씻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대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 13:23). 나는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죄를 씻거나 없애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진시황도 영원히 살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교주들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덤에 전화기를 설치해 두라고 했답니다. 자신이 삼일 만에 부활하여 전화하면 무덤을 열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했다는 후속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정해진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사람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롬 5:21)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한 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사하기 좋은 도시를 발견하고 그 곳에서 한 일년 머무르며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그러나 내일은 자신의 날이 아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약 4:13-14). 자신의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여 구덩이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점쟁이를 통해 내일 일을 알고자 하지만 점쟁이 자신도 내일 일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유망 종목들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천한 종목들이 내는 수익률이 다른 주식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빼고 투자하면 수익을 낼수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가는 신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신들도 모르는데 사람은 더 모른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무 능력도 없는 신들을 말하지만.

나는 나의 출생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리라 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나리라 결정하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

리라고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불구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의 자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에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 그런 주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하수인이거나 종입니다.

이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이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인생은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도 나를 위한 인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공부하고 나를 위하여 일을 하고 나를 위하여 출세하고 나를 위하여 돈을 벌고 나를 위하여 여가생활을 즐기고 나를 위하여 쇼핑을 하고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나를 위하여 건강을 챙기고 나를 위하여 좋은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노후를 준비하고 모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를 위하여 살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은 선포자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11).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헛된 것은 주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포자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추고도 헛된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자신을 위한 것들이 그에게 만족을 주었다더라면 그는 여기서 더 이상 해 아래 인생에 대하여 탐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의 인생 탐구는 여기서 끝을 맺고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론의 결론을 내리노니 나를 위한 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추구할 바이며 본분이니라. 당신은 자신을 위한 인생에 충실하라.” 선포자는 자신을 위한 인생의 첫됨을 알고 인생 탐구를 계속합니다.

*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가진 육체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과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의롭고 거룩하며 진리요 생명이신 주인을 섬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으므로 나는 주의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으나 구원받은 후에는 주를 위하여 삽니다. 바울은 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 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행 20:23,24)

6. 지혜로운 자의 헛됨 2:12~26

10,11절에서 자신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자기의 수고를 기뻐하며 자기 몫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보며 느끼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1)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지혜로운 자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2:12~17절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 언제라도 재미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만능은 아닙니다. 지혜의 큰 체험을 한(1:16, 왕상 3:5~12) 선포자는 자신이 지혜로웠던 것을 헛되었다고 합니다(2:15).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기 때문입니다(1:18). 지혜에 대해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지혜와 미친 것과 어리석음을 살펴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으리요? 이미 행한 일뿐이리라.” 12절

세상에서 많은 학설이나 주장들이 발표 당시에는 진리로 받아들여졌으나 시간이 지나면 뒤집히기도 합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18,19세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자 천년 왕국이 온 것으로 생각하여 천년의 지복 왕국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후천년설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중세기에는 천동설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한 때는 옳다고 받아들여졌으나 나중에 뒤집히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은 선포자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자는 지혜를 알기 위해 또 미친 것과 어리석음도 알기 위해 1장 17절에서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포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누군가가 지혜와 미친 것과 어리석음에 대해 깊이 살펴보아도 “왕 뒤에 오는 사람이” 선포자의 결론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왕 뒤에 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으리요? 이미 행한 일 뿐이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도 선포자(왕)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자의 글 전도서의 권위입니다. 해 아래의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의 전도서만큼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포자는 지혜의 유익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았도다.” 13절

빛은 모든 어둠을 물리칩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조그마한 한 줄기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방이 아주 캄캄하여 칠흑 같을지라도 조그마한 손전등이나 등불로도 그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빛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으나 어둠은 빛을 물리치

지 못합니다. 어둠이 왔다고 빛을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 빛이 물러가야 어둠이 찾아옵니다. 빛이 물러가기 전에는 어떤 어둠도 올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면 같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선포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눈은 그의 머리 속에 있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나니” 14절

지혜로운 자는 눈이 머리 속에 있습니다. 머리가 그의 모든 것을 보고 조종하고 컨트롤 하고 확인합니다. 그의 눈이 머리 속에 있으므로 지혜가 그를 안전한 길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닙니다. 어둠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큰 돌이 있는지 깊은 구렁이가 있는지 도둑이 숨어있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므로 그는 늘 넘어지고 다치고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포자는 해 아래에서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지혜로운 자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알고 실망합니다. 15절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줄을 내가 직접 깨달았도다.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늘 어찌하여 내가 더 지혜로웠던가? 하고 이에 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로운 자가 헛된 이유는 지혜로운 자의 죽음이 어리석은 자의 죽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훗날에 모두 잊힐 터이므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영원히 더 기억되지 아니하나니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죽느냐? 어리

석은 자와 같도다.” 16절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있을 때 어리석은 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하기도 하고(요셉) 전쟁으로부터 도시를 건져내기도 합니다(지혜로운 여인, 삼하 20:16~22). 집안을 재앙으로부터 건져내기도 하고(아비가일, 삼상 25:18이하) 어떤 일을 맡아도 임무를 잘 수행합니다(삼하 14장). 지혜로운 자는 일을 억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솔로몬, 왕상 2장). 지혜로운 자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모든 사람이 태평하게 살도록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제 때에 수확하며 분노를 그치게 하고 그의 말은 좋은 약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잠시의 쾌락을 위해 지옥에 이르는 길인 창녀의 집으로 가고(잠 7장) 재앙을 보고도 나아가다가 벌을 받으며(잠 22:3)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시 14:1). 어리석은 자는 선을 악으로 갚고(나발, 삼상 25:21) 의로운 자를 버리고 악한 자를 따릅니다(다윗 대신 세바를 따름, 삼하 20:2). 어리석은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짓고(마 7:26) 오늘 일도 알지 못하면서 몇 년 후를 말합니다(어리석은 부자, 눅 12:16~20).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은 근심으로 사람들을 위해 일합니다. 많은 근심이 그를 짓누르나 어리석은 자는 근심이 적으며 그만큼 마음 편하게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능력도 다르고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에서도 달라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쉽게 잊혀져도 지혜로운 자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보다 더 기억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죽으면 잊혀집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만 많아지는데 근심 없이 살

있던 어리석은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지혜로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시편 49:10~12절

“지혜로운 자들이 죽고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그와 같이 멸망하여 자기 재물을 남들에게 남기는 것을 그가 보는도다. 그들은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를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자기들의 땅을 부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 자기들의 집과 거처가 영원히 지속되는 줄 알지만 재물을 남들을 위해 남겨야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유익이 없으므로 헛됩니다.

2) 지혜로운 자의 수고가 무익하기 때문에 2:18~20절

수고의 헛됨에 대한 여러 격언들이 있습니다.

“죽 썬 개 준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

“돈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실컷 애 써서 남 좋은 일 시킨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내 보따리 내 놓으라 한다.”

돈을 모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면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쓸 것 안 쓰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모읍니다. 남다른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이렇게 애써서 모아 놓으면 모은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 되도록 남겨야 합니다. 물려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그 돈은 다음 대에서 모두 날아갈 것입니다.

바빌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때에 대제국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나보니두스는 물려받은 대제국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자신은 원정에 나서고 대신 아들 벨사살을 섭정으로 앉혀 통치하게 합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메대 페르시아 군에 포위된 상태에서도 벨사살은 술과 연회를 즐겼습니다. 결국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빌론은 멸망합니다. 위대한 왕국이 어리석은 자에 의해 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천석지기의 부자였습니다. 논 한 마지기에 벼 한 석이므로 7천 마지기의 땅입니다. 한 마지기가 200평이므로 백사십만 평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땅을 아들에게 물려준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주위에서 많은 욕을 얻어먹으며 모은 재산일 것입니다. 그 많은 땅을 물려받은 이 사람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매일 사냥이나 다니고 술과 여자로 인생을 즐겼습

니다. 그가 죽을 때 남긴 것은 마을 회관에 달려 있는 종 한 개였고 자신이 문힐 땅 한 평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포자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게 지혜로운 아들이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이 남긴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위해 왕위를 남겨야 하고 재산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포자는 해 아래에서 행한 수고가 헛된다고 합니다. “내가 수고하며 행한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직접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3) 자신의 수고가 수고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남겨야 하므로 2:21~23절

맹상군은 첩의 소생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는 많은 첩실과 40~50명의 아들이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재산이 첩의 아들인 맹상군에게 돌아올 뻔은 없습니다. 맹상군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맹상군: 아버지, 아들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손자

맹상군: 손자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증손

맹상군: 증손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현손

맹상군: 현손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맹상군: 결국은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십니까? 선비들은 첩이나 기생들보다 더 가난하게 삽니다. 아버지께서 살

아 계신 동안 가난한 선비들을 위해 재물을 쓴다면 그들은 아버지를 칭송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참고: 족보 서열

- 위: 父-祖父-曾祖-高祖 . . . 중조(中祖)
- 아래: 子-孫-曾孫-玄孫-耳孫 . . . 운손(雲孫, 8대)
- 玄(현손)은 고(高)를 쓰지 않습니다 (검을 玄)
먹구름처럼 흐려 멀리 검게 보인다 해서 현손이라 합니다. 하도 멀기에 가물가물하게 보입니다
- 耳(이손)은 한참 아래 후손이므로 귀로만 들을 수 있고 시간적 차이가 너무 커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후손입니다.
- 雲(운손)은 8대 손, 까마득하여 구름처럼 아득한 자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하여 많은 것을 남겨도 결국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남겨야 합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수고한 것에서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지혜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4) 죄인은 모으고 쌓지만 선한 자에게 돌아가므로 2:24~26절

해 아래에서의 최선은 먹고 마시는 것과 자신이 수고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먹거나 마시거나 자신의 혼으로 좋은 것을 즐길 수 없습니다(약 4:13~15).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그해 풍성한 수확을 하였습니다. 그는 만족하

여 말합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 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 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눅 12:17~19). 그러나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눅 12:20)

난지도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버려진 난지도의 쓰레기장에서 수수를 심으며 살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이 그 땅에 들어서면서 많은 보상을 받아 8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월세 수입이 수백만 원입니다. 이제는 먼지와 악취로 가득한 쓰레기장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맛있는 것과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그가 거둔 것을 자신이 즐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자신이 수고한 좋은 것을 즐기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만 있고 먹고 즐길 수 없다면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헛됩니다.

7. 시기와 때 3:1~8

1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인 것에는 때가 있다.

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6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 찢을 때가 있고 꿰매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여기 언급된 28가지의 때들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때들입니다. 이 때들은 사람이 정하거나 원하여서 주어진 것들이 아닌 누군가가 우리에게 준 것이며 우리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들에 너무 익숙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모든 자연에게 이런 때들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때들은 사람이라는 특정한 대상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자연은 심거나 뽑지 않으며 돌들을 모으거나 버리지 않으며 고치지 않으며 무너뜨리거나 세우지 않으며 전쟁하거나 화평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자연에 해당된다 해도 극히 부분적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100% 적용됩니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때들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저절로 혹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목적이 있어서 이 때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때들을 인간에게 명으로 지웠는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때들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없다면 이런 때들이 필요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태어날 때는 있지만 죽을 때가 없으며 죽일 때도 없고 애곡할 때도 없고 울 때도 없고 미워할 때도 없고 전쟁할 때도 없습니다. 미워할 때가 없으면 사랑할 때도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전쟁할 때가 없으면 화평할 때도 없습니다. 언제나 화평하므로 화평할 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28가지의 “때”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때를 벗어나려고 과학과 인간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노력해도 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새장 안에 든 새가 아무리 힘을 다해 날고 또 날아도 새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람쥐가 쉬지 않고 쳇바퀴를 돌리지만 언제나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처럼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도 “시기”와 “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포자가 아니었다면 “시기”와 “때”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갇힌 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선포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과 목적인 것에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2절

사람이나 짐승을 무론하고 자신이 태어날 때를 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

리 지혜로운 자도 자신의 날 때와 죽을 때를 정할 수 없습니다. 또 잉태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9개월, 소는 10개월의 정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때만 있고 죽는 때는 내가 정하거나 아예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를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듯이 죽을 때도 자신이 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때 안에서 태어나 70~80년의 정한 때가(시 90:10) 되면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를 피하고자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죽을 때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죽을 때” 안에 있으므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2절

만일 때가 없다면 우리는 곡식을 심고 심을 때 언제나 심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아무 때나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심고 저녁에 뽑을 것입니다. 때가 없다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곡식은 반드시 심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아닌데 심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심은 것은 반드시 때가 되어야 뽑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아침에 심고 저녁에 뽑을 수 없습니다. 빨리 수확하고 싶어서 빨리 뽑는다면 곡식을 얻지 못합니다. 곡식을 심고 때가 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닭이 하루에 계란 한 개씩을 낳는 것보다 여러 개를 낳으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화이지만 어떤 농부가 하루에 많은 계란을 얻기 위해 닭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 농부는 때를 무시한 것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3절

전쟁에서는 적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

를 죽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쟁에서는 어느 한 쪽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지만 다친 적을 싸매주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2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웁니다.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남은 자들에게 자기들의 딸을 주기로 합니다. 죽일 때도 있지만 고칠 때도 있습니다.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3절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낡은 집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낡아지면 폐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도로 포장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포장을 걷어내고 해야 합니다. 다리를 건설할 때는 기존의 다리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낡았다고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사에는 무너뜨릴 때만 있거나 세울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뜨리기만 한다면 폐허가 될 것이며 세우기만 한다면 감당 못할 것입니다. 무너뜨릴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4절

웃을 일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웃음은 자신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만일 세상에 웃을 일과 춤출 일만 있다면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채우기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슬픔과 애곡이 함께 인생의 씨줄과 날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항상 울 때와 애곡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으며 애곡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습니다.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5절

집을 짓거나 담을 쌓거나 성을 쌓을 때는 돌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돌을 구하기 위해 힘써서 멀리까지 가서 구해 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돌들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집에 나병이 생겼으면 그 집의 돌들을 도시 밖의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야 합니다(레 14:34~45).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습니다.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6절

사람은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 처럼 돈이 잘 벌리는 날만 평생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항상 상승하기를 바라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상승 곡선이 있으면 하강 곡선도 있습니다. 세상에 오르막만 있거나 내리막만 있는 길은 천하에 없습니다. 장사가 1년 365일 평생 잘 될 수는 없습니다. 흑자 날 때도 있고 적자 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를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새옹지마와 같습니다.

〈북방 국경에 한 늙은이가 말을 기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르는 말이 도망쳐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 너머로 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 이를 위로하자 늙은이는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는지 알겠소?” 하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을 한 필을 데리고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축하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이는 “그것이 또 무슨 화가 될는지 누가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타기를 좋아하던 늙은이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들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위로하자 늙은이는 “그것이 혹시 복이 될는지 누가 알아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오랑캐들이 쳐들어 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는데, 늙은이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좋아할 것 없고 지금 어렵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90세 된 사라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안고 웃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타국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죽고 손자도 없고 큰 며느리는 떠나가고 재산도 없고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옴이가 손자를 안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룻 4:13~17)? 인생은 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희희낙락 하였을지라도 마지막에 웃을 수 없다면 웃는 인생이 아닙니다. 평생을 웃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면 그가 진짜로 웃는 인생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5,6). “능력과 명예로 웃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잠 31:25)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7절

옷을 찢는 것은 자기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엘 2장에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화가 임할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욥 2:13). 사람이 자기 옷을 찢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상황을 아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옷을 꿰매게 하실 것입니다.

- 부모나 형제 자녀가 죽었을 때 옷을 찢음으로 자신의 슬픈 마음을 나타냅니다.(창 37:29절의 르우벤, 레 10:6, 21:10, 욥 1:20)
- 나병환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알리기 위해 자기 옷을 찢습니다.(레 13:45)
-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의 나쁜 보고에 옷을 찢었습니다.(민 14:6)
- 아합 왕이 자신에게 화가 선포되었음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왕상 21:27)
-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알 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 달라는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애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왕하 5:7) 왕하 6:24~30절 참고

-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신도 자기 나라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김과 셉나와 요아가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왕하 18:33~37)

- 자기를 낫출 때 자기 옷을 찢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왕하 19:1)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8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대로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은 미워해야 합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으며” 8절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약 4:1)? 그러나 항상 전쟁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 양쪽 다 망합니다. 수나라는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100만 대군을 일으켰다가 패하고 망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언제까지나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제1,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인류는 전쟁의 참혹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자 국제연합(UN)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합이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전쟁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화평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일은 때의 지배를 받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시작할 때가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사람은 때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심었으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때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죽

을 때를 벗어나 영생을 꿈꾼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때들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2천 년 전 이 ‘때’ 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때의 울타리 안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려하심이며 자신을 믿는 자들을 죽을 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선포자가 강조하는 것은 1절입니다. 때의 지배는 “해 아래 있는 모든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해 아래에서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해 아래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때를 바꾸려 하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단 7:25). 그러나 그도 자기의 때에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계 12:12). 때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때를 정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8. 해산의 고통 3:9~15

지혜로운 자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세우더라도 때가 되면 다른 이론이 들어설 것입니다. 시기와 때 안에서는 모두가 반복이고 순환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반복의 연속이며 새 것이 없으므로 어떤 사람은 역사를 순환 논리로 설명합니다. 어느 가수는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를 정하신 것은 시기와 때 안에서 진리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인생을 단련하시려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때 안에서 인생의 수고는 지혜자의 수고이든 어리석은 자의 수고이든 고통일 뿐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도 고통을 받고 가장 어리석은 자도 고통을 받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가진 사람도 고통을 받고 서민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는 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노느라 신발이 금방 떨어집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새 신발을 사주고 싶지만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의 먹는 것과 입는 것도 늘 부족합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생각다 못하여 그 지역 최고의 부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큰 집에 들어서니 주인 내외가 친절하게 맞이해주었습니다. 현관에는 반짝이는 아이의 새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런 저런 얘기 끝에 찾아온 용건을 말합니다. 세 아이에게 먹을 것과 신발을 사주고 싶으나 돈이 없어 사주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을 얘기 했습니다. 아이 얘기를 꺼내자 부자 내외는 눈물을 흘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무슨 얘기를 잘못했는가 불안했습니다. 부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실수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껏 뛰어노는 건강한 아이가 셋이나 있다니 얼마나 부러운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아이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분명

히 들어올 때 아이의 새 구두가 한 켤레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이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 아이의 구두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이가 없더니요?” 부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구두를 신을 아이가 있었으면 해서 아이 구두를 사 놓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돌아오며 신발을 부지런히 떨어뜨리는 건강한 아이가 셋이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는데 사람이 해 아래 살면서 고통 없이 살려는 계획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단련하시는 방법입니다.

선포자가 본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 낼 수 없도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을 빼앗깁니다. 경치가 좋은 곳은 오래 보고 싶어 하고 다시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직 세상만 있고 세상은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1~8절의 시기와 때 안에 있습니다. 시기와 때 안에서는 영원이 없고 모두 일시적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 일시적인 것에 있습

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심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생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깁니다. 개역성경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라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알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남기고자 합니다. 만일 이 세상이 없어질 것임을 안다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도 버릴 것이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버릴 것이며 세상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지도 알 것입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면 파도가 그의 이름을 지우듯 때가 그의 이름을 지울 것입니다. 없어질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남기고자 애쓰는 인생의 헛됨,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선포자가 본 인생의 진실이었습니다. 누가 인생을 아름답다고 하는가? 누가 세상을 아름답다고 하는가? 누가 세상을 살아 볼만하다고 하는가? 참으로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단연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인생은 헛되며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인생의 헛됨과 해산의 고통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선포자만큼 인생을 탐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선포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포자가 본 해산의 고통은 인생에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기
빠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빠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인생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 하는 것이 인생입
니다. 비석은 그가 자기 그릇에 무엇을 채웠는가를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유한한 인생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똑같은 그릇
일지라도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
떤 그릇은 귀한 것을 담아두는 그릇이 됩니다. 주인이 그 그릇을 항상 눈앞
에 두고 아깁니다. 주인이 어딜 가든 챙깁니다. 그러나 같은 그릇이라도 쓰
레기를 채우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쓰레기통은 주인이 아끼지 않으며 좀
부서져도 그만이고 긁혀도 그만이고 없어져도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치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그 최선의 방법이 기빠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빠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에서 얻는 것이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
다. 그들은 자원 봉사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보람을 느끼며 뿌듯
함과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과 봉사는 분명 더욱 칭찬들을 만한 일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
츠는 2년 동안 2조 8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미
국의 다른 부자들도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최고의 선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포자가 보기에는 그것이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재산이나 재

능의 기부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지만 그것은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는 만족감 더 이상은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자기만족에 불과합니다. 사람들 안에 더 이상의 다른 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위들을 칭찬하고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평생 모은 자기 재산 전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는데 모든 언론이나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무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멸시한다면 아무도 기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다른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고전 13:3)

참 사랑은 다른 사람이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핍박해도 그를 위해 선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험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하거나 예수님의 행위가 선한 일이라고 인정하는 어떤 시민단체나 언론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위해 자신은 가난하게 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도 당신은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 2:2)

예수님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선한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선한 것이 있었습

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칭찬이나 자기만족 때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나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족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모함을 받았습니다. 39대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감옥에도 수 없이 갇혔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만족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친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행 7:60)

사람들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세 번째로 선포자가 본 해산의 고통은 먹고 마시며 자기의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자신의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모두 자신의 능력이나 권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권리가 아니라는 데에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이 먹고 마시며 자신의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보는 것을 원하는데도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이 권리일 수 없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매”(마 20:32,33). 그들은 시력을 받기 원하였음에도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시력은 그들의 것도 아니고 그들의 권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면 우리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자기의 수고한 것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천년을 살고 싶으면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고 싶으면 만년을 살고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영원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마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자기의 수고한 것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만큼의 햇수만 살 수 있습니다(시 90:10). 어떤 사람은 여러 해 동안 힘써 재산을 일구어 놓지만 큰 병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십 년 만에 새집을 장만하여 이제 자기 집에서 마음 놓고 한 번 살아보리라는 부푼 기대를 갖고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를 데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는 내일에 대한 밝은 미래도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이 그의 모든 꿈을 앗아갑니다. 자기 인생이 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것이 인생에게 해산의 고통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는 선포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거나 건강하거나 정상적인 신체조건을 갖고 태어났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나? 이제 네가 그것을 받았을진대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전 4:7)

하나님께서 해 아래 사는 인생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14절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늘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인생이 가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결코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하시면 그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40년 이내에 죽을 것이라고 하셨으므로(민 14:32~34) 그 말씀대로 되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2:14,15 “우리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삼십팔 년이었느니라. 마침내 이때에 군사들의 모든 세대가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군대 가운데서 소멸되었나니 참으로 주의 손이 그들을 치사 그 군대 가운데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마침내 그들이 소멸되

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거짓 대언자 하나냐의 생명을, 말씀하신 “이 해”로 정하셨습니다.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대언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신뢰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네가 주에게 반역하는 것을 가르쳤으므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없애리니 네가 이 해에 죽으리라, 하매”(렘 15,16). 하나냐는 그 해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칠월에 죽었더라.”(렘 28:17)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것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인생에게 해산의 고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인생에게 해산의 고통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한 것이 없다는 것도 인생에게 해산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신 것은 인생을 단련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9. 사람과 짐승의 죽음이 같다 3:16~22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풍신수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지만 일본에서는 전국을 통일한 영웅입니다. 그 풍신수길의 생김새가 원숭이 같아서 사람들은 그를 원숭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원숭이라고 불리는 것에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가 어떤 가신에게 사람들이 내가 원숭이를 닮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신은 “주군이 원숭이를 닮은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주군을 닮은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닮은 것은 같으나 주객을 바꾼 것입니다. 이 말에 풍신수길이 매우 만족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짐승보다는 뛰어나다고 믿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짐승과 비교한다면 매우 기분 나쁩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점이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게 합니다. 베드로는 그 차이를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므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벧 후 2:12). 이성이 있으면 사람이고 이성이 없으면 짐승입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이성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이성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유다는 이성 없는 사람들을 짐승들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유 10). 짐승은 이성이 없으므로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자신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비방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비방합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면 죽어봤느냐고 합니다. 통치권을 멸시하고 위엄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도 이성이 없는 짐승입니다(유 8). 짐승은 이성이 없으므로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본능에 따라 힘센 녀석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사람도 이성이 없으면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짐승일 뿐입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따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조건 배척하였으나(행 17:5~9)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탐구하였습니다. 결과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행 17:10~12)

이성 없는 법정

“또 내가 해 아래에서 재판하는 곳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그 불법이 있도다.” 16절

의로운 재판은 신명기 25:1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며” 불의한 재판은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잠 17:15). 선포자는 의로운 재판이 되어야 할 법정에서 사악함과 불법을 보았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법은 힘 있는 자의 편이고 법을 아는 자의 편이라고 합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재판에 불법과 사악함

이 있다는 것은 거짓증언과 불의한 재판 때문입니다. 거짓 증인은 이성보다 자신의 본능에 따라 욕망을 추구합니다. 이성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여 그른 것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따르지 않는 거짓 증인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에 대비해 재판관은 거짓 증인들의 증거를 부지런히 조사하여 악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신 19:16~20)

하나님께서서는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게 그가 행하고자 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악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가 형제를 죽이려고 거짓 증언하였다면 그를 죽이고 그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자 거짓 증언하였다면 그에게 동일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짓 증언은 악하지만 재판의 책임은 거짓 증인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재판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 사실 조사를 부지런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관은 참과 거짓을 가려내어 거짓 증인은 반드시 그의 악함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법정에 사악함과 불법이 있다는 것은 거짓 증인의 위증만이 아니라 증언이 참된지 아닌지 재판관이 부지런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목격자의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가해자가 돈으로 목격자를 매수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게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가 됩니다. 경찰관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편리한 대로 처리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의 불편부당함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바로잡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법정에 사악함이 있고 불법이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깁니다.

멜런은 1997년 리처드 데일리라는 30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채택된 것은 준 패티라는 여성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패티는 상습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허위 증언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 경찰이 따로 파일을 만들어 관리할 정도로 심각한 거짓말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검사는 패티의 증언을 믿고 멜런을 기소했으며, 배심원단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멜런은 남자친구 아버지를 증인으로 내세워 알리바이를 댔으나 검사와 배심원단은 이를 믿어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무능도 한 몫 했습니다. 증언자 패티는 멜런이 옥살이를 하던 도중인 2006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2013년에 한 공익단체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재소자들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멜런 사건에서 결정적 유죄 증언을 한 패티가 상습적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심결과 멜런에게 무죄 판결했습니다(2014년). 멜런은 17년을 억울하게 살고 풀려났습니다. 거짓 증언, 부실한 검사, 어리석은 배심원, 무능한 변호사, 게으른 재판관의 합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

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인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17절

사람들은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전 8:11).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목적인 것과 일에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는 죄 있다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코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거짓 증인에 대한 심판은 잠언 17:15, 19:5, 21:28절에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나 재판관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의 사악함과 잘못이 언제까지나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오진 혹은 무책임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지만 전문적인 그들의 업무 때문에 피해자가 의사 혹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과 은폐는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심판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악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화병으로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법정의 사악함과 불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불행하지만 그런 억울한 일들이 해 아래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가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18)

사람의 아들들이 짐승인 두 가지 이유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흠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흠으로 돌아가거니와” 19,20절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를 짐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는 한 숨을 가졌고 흠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습니다. 짐승은 한 번 죽습니다. 사람도 한 번 죽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한 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한 숨이지만 사람은 특별히 둘 혹은 세 숨을 가져 두 번 세 번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죽음이 한 번으로 같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나 짐승이 죽으면 흠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평생 놀고 먹으면서 배고프면 사냥을 하거나 풀을 뜯어먹으면 됩니다. 모을 필요도 없고 모으기 위해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짐승처럼 살았다가는 굶주리거나 인간 이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많은 수고를 하여 많은 것을 모읍니다. 죽을 때에는 평생 수고하여 모은 것을 많이 남깁니다. 사람은 분명히 짐승과 다르게 살았고 짐승보다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여 많은 것을 남긴다 해도 죽으면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짐승과 똑같은 흠으로 돌아갑니다. 사람과 짐승의 죽음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짐승에 불과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죽음 사이에 있는 한 가지 차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개역 성경은 영을 혼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구원받았으면 위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지옥)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12:7)

그러므로 해 아래에서는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 주겠느냐”(22)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내가 먹고 쓰고 입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쓸 수 있고 적게 번다면 다른 사람보다 적게 쓸 것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들을 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한다 해도 그런 것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 그의 몫으로 그것을 남겨야 하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전 2:21).

또한 자기 일들을 기뻐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고자 해도 씻을 수 없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해도 죄만 넘칠 뿐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롬 5:20). 사람이 해 아래에서 자기의 일들을 기뻐한다 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지혜자로 살든 어리석은 자로 살든 많은 것을 남겼든 남기지 못했든 죽음의 결과가 짐승과 같다면 그는 짐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과정이 조금 달라도 결과가 같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자로 산 짐승, 가난하게 산 짐승, 지혜롭게 산 짐승, 어리석게 산 짐승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를 누리느냐 얼마나 멋있게 사느냐 얼마나 훌륭하게 사느냐 얼마나 즐기며 사느냐에 인생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이 짐승과 얼마나 같은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재물과 명예와 지식과 지혜와 자량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죽음이 짐승과 같음을 보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숨을 가졌고 흠으로 돌아가는 짐승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는 자신의 지식에 눈멀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에 사는 딸이 실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지식이 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지금까지 무시했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딸의 시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딸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았고 시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선포자는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짐승임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포자가 본 것 같이 자신이 짐승과 같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 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18)

10. 위로자가 없는 사회 4:1~3

1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 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 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2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어 있는 죽은 자들 을 더욱 칭송하였으니

3 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자 곧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악한 일을 보 지 못한 자가 그들 둘보다 낫도다.”

동물의 세계는 살기 위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서 동물들보다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네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팔거나 네 이 이웃의 손에서 조금이라도 살 때에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라. 희년 이후 의 햇수대로 너는 네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열매를 얻을 햇수대로 네게 팔 것인즉 햇수가 많은 대로 너는 그것의 값을 많게 하고 햇수가 적은 대로 그것의 값을 적게 할지니 그가 열매를 얻을 햇수대로 네게 파느니라.”(레 25:14~16)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을 학대합 니다.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 아저씨를 모욕하므로 경비원 이 분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대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못살 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우월한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갑질은 약육강식하는 짐승들의 세계

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도 만연합니다. 갑질은 어느 사회에나 있어 왔습니다.

느헤미야기 5장 1~5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으니 이는 몇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아들딸들이 많은즉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취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또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 잡히고 기근으로 인해 곡식을 사야 하겠다, 하고 또 몇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왕의 세금을 바치려고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맡기고 돈을 빌렸도다. 그러나 이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거늘, 보라, 우리가 우리 아들딸들을 속박하여 종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딸들 중의 몇 사람이 벌써 속박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차지하였으므로 그들을 속량할 힘이 우리에게 없도다, 하였더라.”

가난한 사람이 곡식을 사기 위해 혹은 세금을 내기 위해 자신의 땅과 포도원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립니다. 이때 돈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비싼 이자를 받았습시다.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녀들을 그 집에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하며 쇠약하게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며 오직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네 형제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얻으려고 네 양식을 빌려 주지 말라”(레 25:35~37). 하지만 법은 사문화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자를 받

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관행이 되었습니다. 만일 빌리는 사람이 법 조항을 들먹이며 이자를 줄 수 없다고 하면 그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쓸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우리 사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사채 이자는 매우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사채 이자를 최고 연 25%이상을 받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사채 이자가 200%를 넘는다고 합니다. 사채 이자가 너무 비싸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는 사람은 돈이 급할 때 제 1,2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채시장을 찾습니다. 빌려 주는 사람이 갑이고 빌리는 사람이 을입니다. 빌리는 사람이 법에 따른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 돈을 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갑질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제약회사의 갑이 되어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리베이트를 안 주면 그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권한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줍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에게 갑질합니다.

대기업은 납품회사에 갑질합니다. 결재를 어음으로 합니다. 납품회사는 현금을 쓰기 위해 받은 어음을 높은 이자로 할인합니다. 때로는 어음이 부도나기도 합니다. 모든 피해는 납품회사가 안아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협찬은 갑질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기업에 협찬을 요구합니다. 협찬을 거절하면 그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힙니다.

정치인 후보자들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당선

되면 바로 갑질에 들어갑니다. 경찰에 갑질하고 공무원에 갑질하고 공공기관에 갑질합니다.

좋은 부서라는 것은 갑질하기 좋은 자리라는 말입니다. 납품을 이유로 뒷돈을 요구합니다. 뒷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차 없이 잘라버립니다. 갑질로 자신의 위세를 보여줍니다.

갑질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부간의 갈등은 시어머니의 갑질 때문입니다. 시집살이 힘들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자신이 힘들게 시집을 살았으므로 며느리에게는 잘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을이 되었을 때와 갑이 되었을 때 사람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많이 배우고 경제력이 있는 며느리가 경제력 없는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힘이 있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힘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힘을 행세한다면 갑질입니다. 군에서도 졸병이 고참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졸병이 고참이 되면 그도 졸병을 괴롭힙니다. 약자에 대한 갑질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완장만 차면 행세를 합니다. 일제 시대 말단 헌병 보조원들은 모두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장이 무슨 벼슬인양 같은 민족 힘없는 조선인들을 학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 자신도 완장을 차면 모두 갑질할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갑질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지위나

자리에 있지 않거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왕따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힘 있는 학생이 힘없는 동료 학생을 학대합니다. 힘없는 학생이 부당한 학대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을 실행할 만큼 심하게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지만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학대 받는 자의 고통을 알면서도 오히려 힘 있는 자의 편에서 그를 괴롭힙니다. 을보다는 갑질의 대열에 끼어듭니다.

중소기업이 모든 힘을 들여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대기업이 그 기술을 훔치거나 도용합니다. 중소기업은 법에 기댁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싸움을 합니다. 1심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다 해도 대기업은 물러서지 않고 항소합니다. 대기업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간을 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법적 싸움은 몇 년이 걸립니다. 중소기업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포기합니다. 결국 중소기업은 기술 뺏기고 돈 잃고 문을 닫는 것이 현실입니다.

3천년 전 설표자가 보았던 이런 학대가 지금도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합니다. 세상은 발전한 것도 아니며 더 살기좋은 세상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때도 학대 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없었듯이 지금도 학대 받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학대하는 자에게는 그때에도 권세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갑질하는 사회입니다. 학대는 살아있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대를 받는 중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학대가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으면 이 땅에서 학대받는 자의 고통을 본 설표자는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어 있는 죽은 자들을 더욱 칭송하였으니” 적어도 죽으면 더 이상 학대가 없고 고통의 눈물도 없고 위로자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학대 받는 세상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자가 살아있거나 죽은 자보다 더 낫습니다. “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자 곧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들 둘보다 낫도다.”

살아 있는 사람은 지금 학대를 받고 있으므로 최악이고 죽은 사람은 과거에 학대가 있었지만 이미 지나갔으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이 둘보다 더 나은 것은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악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면 우리는 태어난 것을 백번 감사할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며 즐기며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살거나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학대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항상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만 있습니다. 세상은 약자의 편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처럼 이 권세의 주체를 바꾼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는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서 또 학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 을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도 권세가 있으므로 갑질을 하게 됩

니다. 이것이 해 아래 세상입니다.

다음으로, 학대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법에 호소해도 법이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나 법은 권세 있는 자의 편입니다. 소송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법이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학대당하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므로 학대로 인한 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학대로 인해 눈물을 흘린다 해도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있다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로자가 있다면 강남의 그 아파트 경비원도 분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대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세상을 비판하거나 절망하여 자살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대가 그들을 절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학대당하는 것보다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이 절망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뒤에는 위로자가 없는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으로 인해 자신이 왜 세상에 태어났던가 하고 탄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태어남을 탄식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위로를 기대하고 가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위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나 재물은 우리의 위로자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당신의 위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편리를 제공해줄 뿐 더

이상의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눅 12:15). 학대로 인한 눈물은 있으나 그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는 곳이 바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세상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눈물을 닦아 줄 위로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런 위로자를 소개시켜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6~18)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줍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11. 홀로 산다는 것 4:7~12

7 “그때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노라.

8 한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로다.

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10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로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12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 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둘이 서로 의지하는 것이 사람(人)입니다. 사람은 혼자 설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받쳐주어야 합니다. 부모 부부 자녀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도우며 살아갑니다. 가장이 일을 하는 것도 자신의 수고로 따뜻한 밥을 먹을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장이 일을 해서 자기 가족은 굶고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누군가가 먹는다면 일할 의욕도 없고 일할 맛도 나지 않고 일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가치를 원합니다. 많이 일했으면 많이 가지고 적게 일했으면 적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일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자는 평등주의입니다. 사람들은 같이 살 수 있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초보자와 숙련된 기술자의 생산성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초보자나 기술자나 똑같이 분배합니다. 일을 잘하는 기술자가 많은 일을 하여 그 결과가 자신과 자기 가족의 몫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기술자가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자기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초보자보다 일을 많이 할 필요를 못 느끼므로 공산주의 체계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마르크스와 레닌은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북한의 공동생산체제에서는 인민들의 먹을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을 지지 못하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조그마한 텃밭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텃밭에서 나는 것은 얼마를 거두든지 모두 자기의 것이므로 열심히 가꿉니다. 공동생산으로는 불가능한 수확을 거둡니다.

가족이 있을 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장으로 하여금 일할 의욕과 힘을 줍니다. 가족이 없다면 책임감과 의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굶지나 않고 편리한대로 먹고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쌀가게를 하던 어떤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장사는 되었고 먹고 살만큼의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장사가 되면 뭘 하고 돈을 벌면 뭘 해?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라고 한탄합니다. 자식이 없어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고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8절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한 마디로 천애고아입니다.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양할 가족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일가친척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없이 수고합니다. 혼자서 먹고 사는 데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쉬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의 많은 재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매일 땀 흘려 일합니다. 돈을 특별히 쓸데가 있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으는 재미입니다. 장난감 모으는 사람은 별의별 장난감을 모읍니다. 그 장난감으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으는 재미입니다. 이 사람도 단순히 돈을 모으는 재미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를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통장에 평생 잘 먹고도 남을 만큼 돈이 있어도 먹는데 군색하고 입는데 군색하고 뭍는데 인색합니다. 이 사람의 재미는 돈이 불어나는 데 있습니다. 통장에는 동그라미가 늘어납니다. 돈이 돈을 낳고 매일 불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모이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지만 아까워서 쓰지 못합니다. 돈을 쓰면 모으는 재미가 사라집니다. 돈은 가지고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돈이 있어도 늘 가난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거지가 굶어죽었는데 그 거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사람이 거지의 입었던 옷이 이상해서 옷을 뜯어보니 옷 속에 우리 돈으로 약 1200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돈을 가지고만 있었지 쓸 줄은 몰랐습니다. 돈은 쓸데가 없으면 가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도 물 한 컵보다 못하고 빵 한 조각보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에게 먹고 마시며 자신의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리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3:13). 그러나 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끝없이 수고하지만 자신이 수고한 좋은 것을 누릴 줄 모릅니다.

우리는 간혹 걸음을 멈추고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은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과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면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고 길이 틀렸다면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낯선 길을 가면서 수시로 이정표를 살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홀로 외롭게 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는가?”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그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면 헛된 수고를 그칠 것입니다.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으므로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쓴다면 언제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일하고 기계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을 마다한 그에게는 아무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포자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2:18~23에서 말합니다.

“참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내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이라. /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며 행한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직접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

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 이러므로 내가 노력하여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를 단념하게 하였도다. /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한다 해도 그런 것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 그의 몫으로 그것을 남겨야 하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18~21).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지만 수고에는 끝이 없고 현재의 재물로도 만족하지 않는 그에 대하여 선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리요? /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22,23). 그가 헛된 수고를 하는 이유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자기만족이라는 허황된 꿈을 쫓기 때문입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수고는 헛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독신을 추구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합니다. 스스로 고립되어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군중 속에 있거나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혼자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만족할 만한 좋은 환경도 주셨지만 동산에 남자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시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 조력자로 인하여 아담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홀로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자유는 홀로 서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독립이나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가 경

제적으로 홀로 서기에 성공하였다면 돈이 그를 독립하게 한 것이므로 그는 돈에 종속됩니다. 또한 그가 주위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대신에 많은 것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방종의 노예가 됩니다.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요 8:32)

백짓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얻는 유익이 세 가지입니다.

1) 넘어 졌을 때 동료가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10절

둘이 있다면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연락은 어떻게 하고 누가 나를 데려다줄 것인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둘이 있으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11절

우리나라는 온돌방이라 두 사람이 있어야 따뜻하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돌이 없는 방에 혼자 누우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라야 따뜻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땔 때에도 장작 한 개만 넣으면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장작이 여러 개 있으면 서로 열을 내어 불이 잘 탑니다. 장작이 여러 개일 때는 오히려 불을 조절하기 위해 생나무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작 한 개로는 주변 열이 없으므로 아무리 태우려 해도 안 탑니다.

3) 누가 그를 때리면 힘을 합쳐 상대를 맞설 수 있습니다. 12절

어느 날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각자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각자 한 개씩의 화살을 취하고 부러뜨리라고 합니다. 아들들이 화살을 쉽게 부러뜨렸습니다. 이번에는 각자의 화살을 한데 모아서 부러뜨리라고 합니다. 합쳐진 여러 개의 화살은 누구도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너희도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유언을 합니다. 한 가닥으로 된 실은 쉽게 끊어지지만 약한 실일지라도 세 겹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함께 할 때의 유익입니다.

사람이 함께할 친구를 얻으려면

1) 친구가 없을 때 수군거리면 안 됩니다(잠 16:28). 말은 돌고 돌아 본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친구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신의 흉을 보는 친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문제를 거듭 말하면 안 됩니다(잠 17:9).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잘못을 덮어줍니다(잠 10:12).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의 잘못을 자꾸 들추어냅니다.

3) 재물이 많아야 합니다(잠 19:4). 가난하면 친구가 없어집니다(잠 19:7). 가난하게 되면 그는 그들에게 자기 사정을 장황하게 말하겠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아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에게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주머니가 바닥나자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배가 고프지만 밥을 사줄 친구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돼지 농장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돼지의 먹이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주는 사람이 없어 배를 끓아야 했습니다.(눅 15장)

4)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합니다(잠 18:24).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친구는 항상 사랑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잠 17:17). 친구가 곤궁한 형편에 처하였을 때 외면한다면 몇 십 년간 이어왔던 친구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부라도 남편이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아이들도 버려두고 여자들이 집을 떠납니다. 남자가 가장 힘들 때 아내의 위로와 격려는 큰 힘이 되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내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여자는 남편에게서 떠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워야 따뜻하지만 자신만 따뜻해지고자 합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당신을 일으켜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이 곤경에 처하였을 때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대가 세다면 기꺼이 당신을 도울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단점까지도 사랑하고 허물로 삼지 아니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당신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친구 한 분을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시려고 나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깨끗하시고 의로우시지만 씻지 않아 더럽고 냄새 나는 나와(엡

2:1) 내 옷(눅 3:3~5)과 추한 내 물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당당히 소개합니다. 그는 자기 친구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진실한 친구는 자신이 기꺼이 자기 친구를 위해 죽겠다고 합니다. 그의 친구는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지만 자신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친구가 진실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진실한 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라.”(요 15:13~15)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면 당신이 그분을 친구로 받아주지 않아서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는 함께였으나 죽음 앞에서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눅 23:40,41).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

서”(42). 예수님께서서는 이 두 번째 강도가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그를 부끄러워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43). 예수님을 친구로 거절한 사람은 죽음에서 혼자였지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다른 한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를 낙원에까지 데려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살인자요 강도를 친구로 삼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고 당신의 친구가 되고자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곤경에 처하였을 때 나를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내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곤경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게 실망하여 나를 떠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계셔서 자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마 28:20)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키려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하지만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
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벧전
5:8~11)

* 해 아래에서와 그리스도인의 차이

장소; 해 아래 ⇔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

세상 ⇔ 세상에 속하지 않음

대상; 사람의 아들들 ⇔ 하나님의 아들들

시간; 날 때와 죽을 때 안에 있음 ⇔ 영존하는 생명을 가짐

결과; 모든 수고가 헛됨 ⇔ 모든 수고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음

새 것이 없다. ⇔ 새로운 창조물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은 영원합니다.
다시는 새롭게 될 필요가 없으며 한 번 새롭게 되면 영원히 새로우며 결코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전 5:17)

영을 괴롭게 하는 것 1:14 ⇔ 항상 기뻐함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음 1:15 ⇔ 구부
러지거나 왜곡된 곳이 없으며 영적인 복이 풍성함

희락의 헛됨 2:1~11 ⇔ 모든 일에서 만족하며 항상 기뻐함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 같음 2:16 ⇔ 영광스런 부활이 있
음

지혜자의 수고가 수고하지 않은 자를 위해 남겨야 함 2:18~21 ⇔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

때와 시기의 율타리를 벗어나지 못함 3:1~8 ⇔ 때와 시기의 지배를 받지

없음

자신의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 3:22 ⇔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뻐함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 주셨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또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함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기록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천국에 가기 위하여, 의롭게 되기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믿는 것뿐입니다.

학대 받는 자, 갑질하는 사회 4:1 ⇔ 섬기는 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함 -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 오셨고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위로자가 없는 사회 4:1 성령님께서 위로자가 되심 요 16:7, 요한복음 14:18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혼자임 4:8 ⇔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심 마 28:20

12. 세대 간의 갈등 4:13~16

13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도다.

14 그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거니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 되는도다.

15 내가 그를 대신하여 일어 설 둘째 아이와 더불어 해 아래에서 걷는 모든 산 자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16 모든 백성들의 끝이 없으며 심지어 그들 전에 있던 모든 자들의 끝도 없도다. 뒤에 오는 자들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14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개역한글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왕이 가난하게 태어났음)

개역개정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왕이 가난하게 태어났음)

표준새번역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왕이 가난하게 태어났음)

한글 킹 제임스 “이는 그는 감옥에서 나와 치리하는 반면에 그의 왕국에서 태어난 자는 가난하게 됨이라. (그의 왕국에서 태어난 자가 가난하게 됨)

흠정역 “그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거니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 되는도다.” (가난하게 되는 사람은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임)

킹 제임스 영문 “For out of prison he cometh to reign; whereas also he that is born in his kingdom becometh poor.”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통치자를 말하는지 아니면 감옥에서 나온 통치자의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건대 가난하게 되는 사람은 감옥에서 나온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왕국에서 태어난 백성이라야 16절의 말씀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왕국에서 태어난 자 또한 가난하게 되는도다.” (그의 왕국에서 태어난 자가 가난하게 됨)

우리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13절의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은 1세대, 가난하고 지혜로운 아이는 2세대, 15절의 그를 대신하여 일어설 둘째 아이는 3세대입니다. 즉 늙고 어리석은 왕이 죽으면 가난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감옥에서 나와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왕국에서 태어난 자도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고픈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 통치자가 된 그를 대신할 새로운 왕을 원합니다. 그가 둘째 아이 즉 3세대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끝이 없으며” 이들은 가난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감옥에

서 나와 왕이 된 2세대 왕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입니다.

“그들 전에 있던 모든 자들의 끝도 없다.” 이들은 권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늙고 어리석은 1세대 왕을 따르던 많은 백성입니다.

“뒤에 오는 자들은” 감옥에서 나온 통치자를 이어 왕이 될 둘째 아이 즉 3세대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오는 자들은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된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빵을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2세대 왕이 그들의 빵을 해결해주었다라면 그를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본문은 마치 북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1세대 김일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그 때는 빵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 김정일의 대에 이르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300만 명의 인민이 굶어 죽습니다. 김정일 때의 북한 경제는 아버지 김일성 때보다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배급을 받지 못해 주민들 스스로 식량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왕국에서 태어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 되는데도다.” 김정일은 큰 아들 김정남을 물리치고 작은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를 대신하여 일어설 둘째 아이”입니다.

김일성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김정일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김정은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일의 인기는 아버지 김일성에 많이 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오는 자들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김정일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은 김정은도 북한 주민들의 빵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빵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통치자를 좋아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므

로 사람들이 그도 싫어합니다. 북한체제가 계속된다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지금의 김정은도 싫어할 것입니다. “뒤에 오는 자들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늙고 어리석어서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

왕이 처음부터 백성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고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왕이 권고를 받을 때는 왕의 평판이 좋았습니다. 왕의 평판이 나빠진 것은 모든 것을 가진 후 얻을 것보다 지킬 것이 많아졌으므로 사람들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서부터입니다. 어느 시대라도 이런 왕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늙고 어리석은 왕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이 선포자보다 앞선 시대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왕이 먼 옛날에 살았던 왕이라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입니다. 늙고 어리석은 왕은 3천 년 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3천 년 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읽어야 할 책입니다.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늙고 어리석은 왕은 현재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를 말합니다. 오늘의 기성세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사회를 움직이는 실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기성세대는 새로운 것을 얻으려하기 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을 원합니다. 신세대들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자신의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신세대의 권고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 기묘사화가 있습니다. 1519년(중종 14) 남곤, 홍경주 등의 훈구파에 의해 조광조 등의 신진 사람들이 숙청된 사건입니다. 연산군의 악정으로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된 중종이 연산군의 폐정을 개혁하고 성균관을 중수하며, 연산군 때 있었던 두 차례의 무오사화, 갑자사화로 희생된 사람들을 신원(伸冤)하고, 명망 있는 신진 사림파를 등용하였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든 개혁해야 할 폐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선 사회는 초기에 문물제도의 정비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경국대전』 체제를 중심으로 유교적 사회질서를 수립한 이후 점차 사회적 폐단을 드러내면서 여러 분야에서 개혁의 요구가 분출하였습니다. 주로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제도나 공납에서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병폐가 속출하게 되는데, 특히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뒤 부상한 훈구파 대신들이 차지한 토지와 지방관들의 수탈 행위가 정치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유교적 이념을 가진 선비들이 토지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 전반의 개혁을 주장합니다. 이들을 사림파(士林派)라고 합니다. 이들은 현실 정치참여자가 아니라 주자학을 연구하는 선비들이었으나, 당시 사회의 피폐함을 보고 개혁을 주장하면서 정치에 참여하여 과감한 개혁을 주창하였습니다.

이들 사림파는 중종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습니다. 중종에게 군자를 중용하고 소인(小人)을 멀리할 것을 역설하였고 나라의 미풍양속을 기르기 위하여 미신타파와 향약(鄉約)실시를 강행하고, 유익한 서적을 국가에서 간행·반포하게 하였으며,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량과는 성품, 기국, 재능, 학식, 행실과 행적, 지조, 생활태도와 현실대응 의식 등 7가지 항목을 종합하여 인재를 천거하고 그들을 궁궐 뜰에 모아 왕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책(對策)으로 시험보고 인재

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별시로 치러졌습니다. 현량과를 통해 2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는 현량과를 통해 등용된 28명은 모두 사림파였습니다. 사림파는 훈구파를 소인이라고 비난하며 훈구파는 한 사람도 뽑지 않은 것입니다. 현량과는 사림파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방편이었고 파당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림파는 중종과 훈구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종반정 공신 117명 가운데 76명은 뚜렷한 공로 없이 공훈을 받았다하여 이들을 공신록에서 삭제하여 작위를 삭탈하고 그들의 전답과 노비 등도 모두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위훈삭제(僞勳削除)사건을 야기시켰습니다. 조광조는 왕이 윤허를 미루자 자신이 감옥에 가거나 죽어도 좋으니 윤허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드디어 왕의 윤허가 있었고 훈구파 76명의 공훈을 삭제하고 지위를 박탈합니다. 그러나 3일 뒤 사림파는 숙청됩니다. 중종이 사림파를 숙청한 것은 그들 자신들만이 선이고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그들의 급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위훈삭제 사건이 중종반정을 반역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고 중종은 결국 조광조와 사림파를 몰아냅니다. 후대에 울곡 이이는 조광조가 성급했다고 비판합니다.

연산군의 폭정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과 대신들의 마음이 연산군에게서 떠났으므로 중종반정이 쉽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연산군을 축출한 중종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지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중종반정에 공을 세운 공신들의 폐해가 날로 커져갑니다. 백성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때에 개혁을 기치로 내건 신진 사류(사림파)의 등장은 중종과 백성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습니다. 기묘사화는 모든 것을 가진 훈구파와 그들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으라는 사림파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득권층과 갖지 못한 세력과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정을 해봅니다. 그때 만일 왕과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사림파가 득세를 하고 그들의 세상이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세력이 되었을까? 추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림파 그들만의 세상은 되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 받는 세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0년 가는 권력이 없다고 말합니다(權不十年). 처음에는 민심을 얻지만 민심을 계속 얻는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민심을 얻었다면 10년이 아니라 30년 50년이라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림파가 종종과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득세하였을지라도 앞의 사람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합니다. 얼마가지 않아 민심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들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산군에게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종종과 훈구파에게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도 있고 사림파에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은 뒤에 오는 사람들은 실망하여 앞의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지지하지만 이내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은 철새처럼 쉽게 떠나갑니다. 한 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도 사람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권도 이해관계와 사고가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갖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다가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느 날 돌아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영원한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멋있게 살아도 다음세대가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가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선포자가 본 사람들의 헛되고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정권과도 전혀 다른 정권이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
에 의해 세워질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리스도
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장차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
게 됩니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통치를 기
뻐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 구세대가 없
이 모두 하나의 세대 즉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시편 22:30,31 “한 씨가 그
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
을 드러내리로다.”

뒤에 오는 사람들은 앞선 사람으로부터 복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앞
서 있었던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의 명예나 편안한 삶을 버리고 목숨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오는 사람들은 앞서 있었
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20:22~24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
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
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
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

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
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13. 말에 신중하라 5:1~7

1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네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2 네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네 말 수를 적게 할지니라.

3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네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5 네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6 네 입이 네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네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7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말의 중요성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공주가 심한 병이 들었는데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아주 먼 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약을 구하러 갑니다. 손과 발과 입이 공주의 병을 고치면 받을 공을 두고 서로 다툰

니다. 손은 자신이 없으면 그 약을 취할 수 없으므로 이번 일의 공은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발은 그 약이 있는 곳에 자신이 없으면 갈 수 없으므로 공은 자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입은 자신이 말을 해야 하므로 약을 얻는 것은 자신의 공이라고 합니다. 손과 발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주는 밥만 먹고 있는 입이 공로 운운하는 것이 심히 못마땅하여 비웃었습니다. 먼 길을 수고하여 약을 구해 돌아와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이 손과 발의 수고를 치하였습니다. 그러자 입은 “그 약에는 독이 들어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노하여 약을 구해온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세치 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에게 화가 미칩니다. 사람은 말로 구원받고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작은 혀 하나가 우리의 온 몸 전체를 더럽히고 몸 전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주를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혀요, 주를 부인하고 주를 모독하는 것도 혀입니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지만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2,6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यो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 . .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므로 선한 것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므로 악한 말들이 나

웁니다. 마태복음 12:34~37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 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리라. / 네 말들로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들로 네가 정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을 통해서 그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학인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책, 성경을 읽어보면 됩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거룩하심, 사랑하심, 오래 참으심, 전능하심 등등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도 그 사람 안에 거짓이 없다면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요일 2:21).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이 없으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민 23:19)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딤후 1:3). 그러나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쟁이이므로 거짓을 말합니다.(요 8:44)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절

우리가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계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과 제자들의 음식을 마련하느라 주방에서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가 얼마나 바쁜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데 열중합니다. 마르다는 동생이 자기를 도와 주기 바라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드디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기를 돕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리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눅 10:41,42)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앞에서 상사가 말을 하지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늦게 다니지 말라, 나이트에 가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훈계를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훈계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잠 1:1~3)

“내 아들이” 1:8,10,15, 2:1, 3:1,21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가인이 사악한 자에게 속하고(요일 3:12)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4:6,7)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만 하면 아무도 자기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 주었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아말렉의 살지고 좋은 짐승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으나 악을 행하였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낮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삼상 15:22,23). 사울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희생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희생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모든 죄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도둑질 하지 아니하였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고 법을 지켰으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악하지 않으므로 자신은 악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행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과 같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한다면 그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여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유익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아와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 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

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치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눅 6:47,48)

우리는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2절

“네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한 번 내뱉은 우리의 말은 허공중에 사라지지 않고 모두 책에 기록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의 말이 모두 녹음되고 재생됩니다. 6천 년 전 이브와 뱀(마귀, 용)이 했던 대화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5

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뱀: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아담과 이브가 한 변명도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3:11~13

하나님: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아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이브에게) “네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나?”

이브: “뱀이 나를 속이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말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창 4:9)

.....

가인: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 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창 4:13,14)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불평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출 14:11,12)

마라의 물이 쓰므로 마실 수 없게 되자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출 15:24)

이집트를 떠난지 25일이 지났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지자 불평하였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술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출 16:3)

르비딤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자 모세와 다투며 불평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 . .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출 17:2,3)

수천 년 전 아담, 이브, 가인, 이스라엘 . . . 그들은 자신의 말들을 스스로 녹음하거나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평이 이렇게 낱알이 기록되어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알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뱉은 모든 말들은 한 마디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말, 변명, 음담패설, 신성모독, 다른 사람에 대한 중상모략, 비방, 조롱, 멸시 등등.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을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계 20:12)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할지니라.”

말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맹세를 쉽게 합니다.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일을 말하려면 신중하게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약 4:15)고

말해야 합니다.

이점에서 바울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 우쭐대는 고린도교회에 대하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가서 알아보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고전 4:19)

- 에베소 교회를 들르기 위해 고린도교회에 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주께서 허락하시면 함께 머물겠다고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하노라.”(고전 16:7)

- 에베소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행 18:21).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약 4:13)고 말합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대로 되고 생각한대로 되고 마음대로 된다면 내가 왕이고 회장이고 재벌일 것이고 최고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해야 합니다.

-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왕국에서 좌의정과 우의정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높은 직위를 얻을 마음에 그들은 아주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마 20:22).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잡히시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시는 잔을 마시지 못했고 주님이 받으시는 침례로 침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말이 그들의 행동보다 훨씬 앞섰기 때문입니다.

•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날 곧 이 밤에 수탉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그가 더욱 자신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막 14:27~31). 베드로의 자신에 찬 말은 겨우 몇 시간 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밤에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연속해서 부인하였습니다.(막 14:66~72)

사도 야고보는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 하라.”(약 1:19)

서원 4~6절

서원은 말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하거나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고 맹세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원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의 몇 가지 예입니다.

야곱의 서원, 창 28:10~22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 벧엘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땅위에 선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누운 이 땅을 그와 그의 씨에게 주실 것이며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언약 하십니다. 잠에서 일어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 28:20~22)

야곱의 절박함이 서원하게 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원 때문에 야곱을 지키시고 복주시고 이 땅으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서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여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언약에 자신의 생각대로 서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야곱의 삶은 이 서원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믿음이 성숙하였다면 서원 대신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 사 11:29~31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사 11:30,31). 입다는 하지 않아야 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입다가 승리하였습니다. 입다의 승리는 그의 서원 때문이 아닙니다. 입다가 개선하여 집으로 돌아오자 제일 먼저 그의 딸이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무남독녀였습니다. 입다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슬프다, 내 딸이여! 네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의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사 11:35). 그는 심히 슬퍼하며 그의 무남독녀를 번제물로 바칩니다. 입다는 다시 한 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입다는 자신의 잘못된 서원에 대하여 범법 헌물로 자기의 무남독녀 대신에 양이나 염소의 새끼로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이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
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
할지니라.”(레 5장 4~6)

바울을 죽이려는 어떤 유대인들의 서원, 행 23:12~14

“날이 새매 유대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더라. 이 음모를 꾸민 자가 마흔 명이 넘더라. 그들이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
주 아래 두었은즉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서원하였고 자신들을 저주 아래 두었습
니다. 자신들을 저주 아래 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계획을 승인하시고 이루
어주시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였습니
다. 서원을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서
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
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
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요는 아니요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
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약 5:12). 어떤 사람이 서원을 하였다는
말을 들을 때 그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말에 걸
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입을 경솔히 열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급하게 말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

두 발로 걷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잘 넘어집니다. 아이가 잘 넘어지는 것은 잘 걸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발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므로 잘 넘어지지 않지만 아이들은 발 보다 마음이 앞서므로 잘 넘어집니다. 우리의 많은 실수는 말의 성급함에 있습니다. 말이 앞서면 어린아이와 같고 아이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게 됩니다.

꿈 3,7절

사람이 70~80년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들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을 보면 국회의원도 해보고 싶고, 대통령의 권력을 보면 대통령도 해보고 싶고, 부자들의 사는 것을 보면 재벌 회장도 되고 싶고, 스포츠 스타들이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을 보면 스포츠 스타도 되고 싶고, 연예인들이 인기를 누리고 화려하게 사는 것을 보면 연예인도 되고 싶고 유명 작가들이 베스트셀러들을 내놓으면 작가가 되고 싶고 여행자들이 세계의 곳곳을 다니며 사는 것을 보면 여행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꿈이 많으면 평생 꿈을 쫓다가 일생을 헛되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꿈이 많은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꿈은 일이 많아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니발이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는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김일성도 남북을 통일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꿈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는 꿈을 이루었다고 할지 모르나 그들이 쌓은 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꿈은 헛됩니다.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7절

14. 정의는 살아 있다 5:8

“만일 네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우리는 어떤 악인이 불치의 병을 얻거나 큰 손실을 당하면 그가 천벌을 받았거나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미궁에 빠질 뻔 했던 사건의 범죄자가 드러나고 법의 단죄를 받습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책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선하지만 힘이 없고 가난한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는 잘 살고 권세가 있으며 심술궂고 시기심이 많으며 욕심이 많고 우리의 주인공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악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괴롭힘을 당하지만 대항할 힘이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지만 성실하고 공부를 잘합니다. 돈이 없어 선생에게 직접 배울 수는 없어도 어깨너머로 글을 배우고 익힙니다. 선생님은 그런 아이를 기특히 여겨 글을 가르칩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쳐 열심히 공부하여 드디어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합니다. 어사가 되고 금의 환향하여 자신을 괴롭혔던 악덕관리를 혼내줍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를 만나 아들딸들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권선징악을 좋아합니다.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것에 권선징악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주인공이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런 옛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 그러나 세상에서 권선징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야기로나마 확실하게 악인이 징계를 받고 선한 사람이 잘 되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현실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해 아래에서는 정의가 죽어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악인이 잘되고 형통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포자는 세상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번개를 맞고도 멀쩡하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간혹 듣고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멀쩡하게 살아났다거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기적 같은 얘기도 간혹 듣습니다. 사람이 번개를 맞는 것도 희귀한 일이지만 번개를 맞고도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별한 일은 나와는 별 상관없습니다. 아주 희귀한 일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기 보다는 번개를 맞아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는 일반적인 것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우리가 번개를 맞거나 과속으로 달리는 차에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십중팔구는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포자가 해 아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일어나기 힘든 기적적인 일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그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을 말한다면 나와 상관있는 일이므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우리에게 흔하디흔한 경우입니다.

-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가난한 자가 학대를 당하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지방은 중앙보다 권력이 많이 남용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지방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 관리들의 비행은 그치지 않았습니 다. 흥년에는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어하지만 지방 관리들의 착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민란은 지방 관리들의 착취를 견디다 못한 지방민들의 분노로 발생합니다. 민란은 한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함경도와 같은 중앙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먼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중앙에서 멀수록 관리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찾기 힘듭니다. 약 125년 전(1890년대 조선 말기) 비숍이라는 영국 사람이 부산에서부터 서울 동해 신의주 강경 그리고 연해주까지 걸어서 올라가며 조선의 상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지방의 곡식 창고와 병기고를 보았는데 창고는 비었고 병기고에 무기는 없고 고철덩어리만 몇 개 있더라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돈 될 만한 것은 다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의 눈에 비친 조선 사람들은 모두가 게으르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옷은 더럽고 몸에는 냄새가 났습니 다. 서울에 올라왔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 다. 서울도 거리가 더럽고 냄새가 진동하여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관리들이 백성들로부터 착취하는 것을 보았는데 양평군에만 이방이 8백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군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입니다. 이방들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돈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알면 아무 죄가 없어도 무조건 잡아다가 곤장을 칩니다. 잡혀온 사람은 왜 잡혀왔는지 영문을 모릅니다. 곤장을 때리고서 하는 말이 “네 죄를 알렸다! 네 죄는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네 죄는 왜 뇌물을 안 가져왔느냐 그걸 말로 해야 알겠냐는 것입니다. 뇌물을 안 가져오면 무조건 잡아다가 곤장을 치는 사회였습니다. 그 선교사가 국경 너머 연해주까지 올라가서 조선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연해주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은 한결같이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러시아 사람들보다 더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조선을 3류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이 게으르고 더러운 것은 그들의 민족성이 아니라 지방 관리의 착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동네 사람들의 집안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고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누가 일하겠는가?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너무도 심하였고 공의와 정의는 조선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폭력과 착취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 아래에서 그런 사악한 관리들의 폭력과 착취에 아무런 징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자식들에게 대물림해줍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다른 서민들보다 잘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제 때 조국을 버리고 일본 편에 서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매국노들은 해방 후에도 잘 살았고 그들의 자식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청춘을 바쳐 싸웠던 독립군들은 가난하였습니다. 해방 후 독립군의 후손들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이 잘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례는 여럿 있습니다. 아삽은 악인이 세상에서 너무도 번성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은 다 출세하고 잘 되었으며 재물은 계속 늘어나고 형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살면서 고난도 없고 그들의 입이 하나님을 대적하
고 욕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징계도 없었습니다.

시편 73:2~12

2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
러질 뻔하였으니

3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다.

4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5 다른 사람들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
는도다.

7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
보다 더 많으며

8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9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
도다.

10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11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12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이 같은 일은 해 아래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8:11). 불의는 형태만 약간 바뀌었을 뿐 사회 전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은 법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힘을 가진 자의 횡포가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허가권을 쥔 관청, 힘을 가진 개인, 단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도 그 힘을 과시합니다. 그 어디에든 힘을 가진 자의 압력이나 횡포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런 상황을 보면 분노합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많은 범죄 사건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도 몇 년 정도 형을 살면 끝입니다.

정의는 살아있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자가 되고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집행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집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당신의 정의를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요 8:3~5)

당신도 이 무리 중의 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손으로 정의를 집행하고자 하십니까?

저 악덕한 관리들이나 범죄자들을 징죄하고 있습니까?

저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공의와 정의가 서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하십니까?

선포자는 말합니다.

“그 일에 놀라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다윗 왕이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이 신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그 신하를 전장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간음을 알 사람이 없고 또 안다 해도 왕을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왕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계셨으며 왕을 징계하였습니다(삼하 12:1~14). 설사 왕의 권세일지라도 그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신 위에 더 높은 권세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의 통치권이 잘 미치지 않는 지방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지방관들에게도 그들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습니다. 더 높은 권세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그를 징계할 것입니다. 만일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래 사람들의 악행을 눈 감아 준다면 더 높은 권세가 그를 징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더 높은 자들이 뇌물을 받고 모두가 한 통속이 된다면 가장 높은 왕이 그런 자들을 징계할 것입니다. 만일 왕이 부패하고 악하여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지극히 거룩하시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들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라”(골 4:1). 권세를 가지고 학대하는 자들은 자신들보

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학대받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느도다.”(시 103:6)

본문 8절은 4:1절 말씀의 계속입니다. 4:1절은 학대받는 자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반면에 5:8절은 학대하는 자에 대하여 말합니다. “만일 네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정의의 집행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정의의 최종집행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통치자들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통치자가 의로 바로 설 때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적국 바빌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빌론이 평안해야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렘 29:7) 디모테전서 2:1,2절 참조

15. 바람을 얻으려는 수고 5:9~20

9 “또한 땅이 내는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왕도 친히 밭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느니라.

10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11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느나니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12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우므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13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14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그가 아들은 낳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도다.

15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16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18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19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20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므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꿈은 이루어진다? 무지개를 잡으면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행운을 잡기 위해 가까운 들판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잡으려합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저만치 앞서갑니다. 무지개가 인생의 꿈이지만 무지개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은 허황된 인생입니다.

땅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익을 내고 사람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왕도 땅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고 서민들도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왕이 아무리 구중궁궐에 살아도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지 않는다면 살 수 없습니다. 왕은 그 왕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을 수 있고 매 끼니마다 산해진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민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일생동안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많은 재물을 모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은과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 10절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압도적으로 돈입니다.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야 합니다. 청춘을 희생하고 열정을 희생하고 달리 갈 수 있었던 길을 희생해야 합니다. 자수성가한 부자

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우연히 혹은 가만히 있는데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한 대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로 산다는 것은 복입니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부부의 노후자금으로 약 7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넉넉잡고 10억 혹은 20억이 모이면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함이 없으므로 만족할 때까지 재물을 모읍니다. 그러나 재물을 모으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미 가진 것으로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가 내일을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면 내일을 위해 재물을 쌓아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내년, 10년, 50년, 아니 자자손손 먹을 것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남은 인생은 물론 자손들의 내일도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땅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익을 냅니다. 인류 역사 6천 년 동안 땅이 이익을 내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아무것도 심거나 거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염려합니다.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레 25:20)?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염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에 세 해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씨를 뿌리려니와 아홉째 해까지는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리니 곧 그것의 열매들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가 묵은 비축분을 먹으리라”(레 25:21,22).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안식년을 위해 여섯째 해에 3년 먹을 것을 내었습니다. 이처럼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땅은 모두를 위해서 올해도 이익을 내고 내년에도 이익을 내어 사람이 먹을 것을 내는 일을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18). 우리는 아무도 땅이 이익을 내지 않으면 어떡할까, 땅이 고장 나서 5년이고 10년이고 멈춘다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땅이 모두를 위해 이익을 내기를 쉬지 않는 한,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빵을 거두었습니다.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일도 하늘에서 빵이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빵이 내리지 않았지만 전 날에 두 배를 거두게 하심으로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땅이 모두를 위해 이익을 내는 한 내일을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여 필요 이상의 많은 재물을 쌓는다면 어떻게 될까? 소유주에게 해가 됩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군식구도 늘어납니다. 11절

재물이 아무리 늘어나도 부자의 먹는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다면 몸을 위해 좋은 것과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산해진미를 두고도 한 끼에 한 그릇 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재물로 많은 음식을 차리지만 먹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입니다. 부자에게는 부자의 재물로 먹고 사는 많은 식객들이 있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보험 설계사, 재무 설계사, 관리인, 경호원 등등. 부자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먹게 됩니다. 부자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12절

재물을 쌓아두는 목적은 내일을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부자가 그 해에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 부자는 말합니다.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눅 12:19). 이 부자는 평안을 누리려고 했지만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평안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낫습니다. 적어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은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부자보다 잠을 달게 잘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국내경제나 세계경제의 호황이나 불황에 잠을 설치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기름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상관없이 잠을 달게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는 투자금액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가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석유 가격의 등락에 민감합니다. 주가가 떨어
져도 걱정입니다. 달러나 엔화의 가치가 움직이는 것도 신경 쓰입니다. 부
자는 많은 사기꾼들의 표적이 됩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경이 항상 곤두서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그 소유주로 하여금 평안을 누
리지 못하게 합니다. 부자들을 잠자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가난한 자들
보다 훨씬 많습니다.

재물이 가진 자에게 해를 끼칩니다. 13,14절

자자손손 안전하게 먹고 살려고 준비하였으나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자
식에게 아무것도 물려 줄 수 없게 됩니다. 롯은 소돔의 기름진 평야를 보았
습니다. 롯의 무지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롯은 그곳으로 달려갔고 자신
의 무지개를 잡았습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재물과 지위를 얻는데 성공하였
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그에게 악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무지개
인 재물이 불타도록 버려두고 그곳에서 나와야 했습니다(창 19장). 롯의 손
에 더 이상 무지개는 없었습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15절

공수래공수거. 살아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세실 로즈는(Cecil John Rhodes 1853~1902년) 영국 사람으로 1870년 남
아프리카로 건너가 다이아몬드광(鑛)·금광을 경영하면서 자산가로 성장
하였고, 이후에는 정계에도 진출하여 케이프주 식민지의 총독이 되었습니
다. 1889년 광산채굴권·경찰권 등을 포함한 브리티시사우스아프리카회사

설립의 특허를 획득, 1890년대에는 철도·전신 사업 등도 경영하여 남아프리카의 경제계를 지배하고 거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제국주의자로서 인근 지방에 대한 무력정복을 하였습니다. 1887년경부터 1894년까지 중앙아프리카를 정복하고 그 정복지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디지아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로디지아라는 나라가 바로 그 땅입니다. 보어 전쟁 중 김벌리에서 포위되어 전쟁이 끝나기 직전 49세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세실 로즈가 세운 드비어스 사는 지금도 세계의 금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을 딴 로즈 장학금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로즈는 죽음에 가까워지자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금과 땅을 얻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 동안 얻은 것 중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보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세실로즈는 목사의 아들이었으나 세상의 성공에 눈멀어 영원한 보화를 얻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가난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필요한 만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유하다고 더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는다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부자도 70~80년을 살고 가난한 사람도 70~80년을 삽니다. 부자도 빈손으로 가고 가난한 사람도 빈손으로 갑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것을 보면 부자도 남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빵을 거두어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먹거나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의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출 16:19,20)

많은 은과 풍요는 인생의 꿈이요 무지개였으므로 그것들을 손에 움켜쥐고 싶지만 신기루마냥 그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은과 풍요를 위해 모든 인생을 바쳤는데 빈손으로 가야합니다. 그 빈손을 위해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그토록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였던 말인가!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딤후 6:7,8)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람을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 흘러내리는 땀을 식혀주는 데에는 시원한 바람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바람을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시원한 바람으로 여름의 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따듯한 바람으로 추운 겨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수고는 소용없습니다. 선포자는 땅이 이익을 내지 않을 것을 염려해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을 바람을 얻으려는 무익한 수고라고 합니다.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느라 수고한 인생에서 그가 얻은 것은 내일에 대한 안전이 아니라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은 것과 질병과 많은 슬픔과 진노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악하고 헛된 일은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최선의 삶 18~20절

은이나 풍요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많은 면에서 유용하며 풍요는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만족을 가져다줍니다.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자

기의 수고의 삶의 열매를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5:18,19)

앞에서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의 헛됨을 말하였는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가 헛된 것은 많은 재물을 모으되 그가 수고한 것을 먹고 마시며 수고의 열매를 즐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먹고 마시며 그가 수고한 열매를 즐길 수 있는 것 이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을 모으는데 인생을 희생하였으므로 헛되다고 한 것입니다.

16. 사람을 헛되게 하는 것들 6:1~12

쓰레기는 아무리 더해도 더 가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인생에도 더 가치 있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1절

사람이 험한 세상에서 70~80년을 살아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많은 사연이 있고 많은 애환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하는 악이 있습니다. 악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졌어도 사람을 더 낮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으나 그것을 누릴 능력이 없으면 헛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2절

사람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성공을 못해서 문제지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의 잣대는 부와 권력과 명예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악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지 성공한 사람에게는 해로운 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려나 악은 성공한 사람에게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나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최선은 많은 것을 얻고 얻은 것을 모두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2:24).

차선은 얻은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최악은 많은 것을 얻었으나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는 세상에서 대단히 유용하므로 사람이 이것들을 얻으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얻은 것이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유용하나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시 49:17).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얻은 것을 모두 누리는 것이 해 아래 있는 사람의 최선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달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3:22). 그러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많은 법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것들을 얻었는데 그것을 누릴 능력이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고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먹기 싫은 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으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 아껴가며 고생 고생하여 재산을 모으지만 고생만 하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후처가 들어와서 전처가 힘써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씁니다. 그녀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전

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자가 자신의 좋은 것을 모두 먹는다면 이보다 더 헛된 일은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최악의 인생입니다.

백 명의 자식을 낳으며 오래 살아도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헛됩니다.

“비록 사람이 백 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헛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므로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요, / 더욱이 그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느니라.” 3~5절

많은 자식은 전통의 화살과 같습니다(시 127:4,5). 장수는 인생의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백 명의 자식은 든든함이요, 장수는 부모를 공경하거나 의로운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출 20:12, 왕상 3:14, 잠 28:12~15). 사람이 많은 자식을 낳고 오래 산다는 것은 복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백 명의 자식을 낳고 오래 살아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는 악한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불행들로 인해 백 명의 자식을 낳고 오래 살고도 햇빛을 보지 못한 유산된 자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유산된 자는 생명으로 잉태되었음에도 햇빛이 얼마나 밝은지도 모르고 산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인생의 기쁨도 즐거움도 모릅니다. 유산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므로 그의 이름이 어둠속에 묻힙니다. 그러나 그는 해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므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험한 일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읊을 통해 이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읊은 7남 3녀의 사랑하는 열 자식이 있

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그들을 한낱한시에 모두 잃었습니다. 욥은 혼이 심히 괴로워 죽기를 갈망하지만 죽음이 오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욥기 3:1~23절

1 “이 일 뒤에 욥이 자기 입을 열어 자기의 날을 저주하니라.

2 욥이 말하여 이르되,

3 내가 태어난 그 낮과 사람들이, 사내아이를 수태하였다, 하던 그 밤이 소멸되었더라면,

4 그 낮이 어두웠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낮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 낮 위에 빛을 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5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낮을 얼룩지게 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낮 위에 거하였더라면, 그 낮의 캄캄함이 그 낮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6 그 밤으로 말하건대 어둠이 그 밤을 붙잡았더라면, 그 밤이 그 해의 날수에 끼지도 아니하고 달수에 들지도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7 보라,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 밤에 기뻐하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8 그 낮을 저주하는 자들 곧 어느 때든지 소리를 높여 애곡하려 하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9 그 밤의 새벽녘의 별들이 어둡게 되었더라면, 그 밤이 빛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이 날이 새는 것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으리니

10 이는 그 밤이 내 어머니 태의 문들을 닫지 아니하고 내 눈에서 내 슬픔을 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11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에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 어찌하여 무릎들이 먼저 가서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젖가슴이 먼저 가서 내가 빨게 하였던가?

13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누워 평온히 지내고 잠들어 안식하였을 것이요,

14 자기를 위해 황폐한 거처를 세운 땅의 왕들과 조연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15 혹은 금을 가진 통치자들 곧 은으로 자기 집을 채운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16 혹은 남모르게 유산된 자같이 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겠고 전혀 빛을 보지 못한 어린 아기들 같았으리라.

17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안식을 얻으며

18 거기서는 옥에 갇힌 자들이 함께 안식하고 또 학대하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19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 자유를 누리느니라.

20 어찌하여 그분께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혼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21 이러한 자들은 죽기를 갈망하나 죽음이 오지 아니하므로 땅을 파고 죽음을 구하기를 숨긴 보물을 구하는 것보다 더 하다가

22 무덤을 찾게 되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23 하나님께서 둘러싸서 길을 숨기신 자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커다란 고통으로 인해 죽기를 갈망하다 무덤을 찾게 되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는 욕에게 그래도 태어난 것이 낫다거나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고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욕의 세 친구도 그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찾아왔으나 그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유산된 자보다 못한 일이 자신에게는 닥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해 아래 인생입니다.

천 년을 두 번 살아도 좋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그가 천 년을 두 번 살지라도 여전히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산 자들 앞에서 걸을 줄 아는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6~8절

사람들은 80년을 살고 세상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세상이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라면, 사람이 천 년을 두 번 살 수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80년을 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천 년을 두 번 살았다면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천국? 낙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 아무도 믿지 못할 꿈같은 일?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가 천 년을 두 번 사는 동안 본 것은 태어난 사람마다 모두 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든 누구에게서 태어나든 어떻게 태어나든 모두 죽음이라는 한 곳으로만 갑니다. 이천 년 동안 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았겠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 곳으로만 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은 없는가?

사람이 100년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100년을 산 사람들의 인생을 듣는다면 그것은 인생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일제시대의 착취와 차별과 멸시와 설움과 배고픔과 분노와 좌절과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감시와 강제 징용, 잠시뿐인 해방의 기쁨, 살벌한 좌우의 이념 대립,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끝없는 부정과 부패, 예기치 않은 6.25전쟁과 피란 생활, 전쟁 통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고생과 굶주림과 살기 위한 몸부림, 휴전과 남북의 분단으로 찢겨진 이산 가족의 아픔 등등. 얼굴의 주름살만큼이나 굴곡진 인생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100년만 살았어도 우리 모두 겪었을 일들입니다. 만일 천 년을 두 번 살았다면 그의 이야기는 참으로 끔찍할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코 좋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로운 사람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950년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꿈같은 장수(長壽)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인생은 좋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회의 만연한 폭력과 부패를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홍수로 인한 인류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고 그 자신도 대홍수에서 살기 위해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대홍수로 멸망하는 것을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함께 자랐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홍수로 멸망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홍수에서 그의 가족 8명이 살아남은 후에도 아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손자 가나안을 저주해야만 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창 9:24,25). 950년을 산 노아의 인생은 낭만이나 꿈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었습니다. 이전 시대는 지금보다 악이 훨씬 적었지만 결코 좋은 것을 볼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천 년을 두 번 살아도 보게 될 실망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채울 수 없는 식욕입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입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입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입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은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만일 사람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그토록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위한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식욕을 채울 수 없으며 어리석은 자도 식욕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많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천 년을 두 번 살아도 좋은 것을 볼 수 없다면 해 아래 인생은 헛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헛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해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지금까지 존재한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그는 자기보다 강하신 이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9,10절

수집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 우표, 돈, 자동차, 가방, 옷, 신발, 장난감, 고서적 선포자도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수집하였습니다(2:8).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귀한 보물들일 것입니다. 거실에나 창고에 수집품들이 가득합니다. 솔로몬이 왕의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집가들은 자신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혹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모아 놓은 수집품들을 눈으로

보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수집품들을 볼 때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주고 구입하였더라거나 구입하는데 얹힌 사연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수집품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집품들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들을 모으지 않아 갖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해매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집하는 사람은 자신이 고상한 취미를 가졌음을 자랑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수집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가장 고상하고 우아한 고품격의 취미를 가졌지만 그것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해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해매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의 다른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눈은 우리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눈을 통해서입니다. 광고나 디자인은 눈을 사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형과 외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브가 뱀의 말을 들은 후 먹지 말라고 경고 받은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이브가 그 금지된 선악과를 보았다는 것으로는 그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죄를 지은 것은 눈으로 본 후, 신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저녁에 왕궁에서 지

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이 우연히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본 것이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눈으로 본 후, 그의 욕망이 그녀를 불러들였고 간음한 것입니다.(삼하 11:2~4)

롯이 소돔 평야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비친 소돔 평야는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소돔 평야가 롯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 잘못된 아닙니다. 문제는 그 소돔 땅으로 가고 싶다는 욕망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람은 욕망을 이기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이며 강한 자와 다룰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욕망에 지배당하여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욕망이 나를 이기고 사로잡아갑니다. 가인은 자신의 희생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을 내고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죄의 열망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 주시며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앞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죄가 가인을 이기고 그를 지배했습니다. 가인은 죄의 열망에 따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 고백합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노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2~24)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것으로는 사람을 더 낮게 만들지 못합니다.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일이 많이 있음을 보거니와 무엇이 사람을 더 낮게 만들리요? 이 삶 곧 사람이 헛된 삶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보내는 삶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요? 해 아래에서 사람의 뒤를 따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11,12절

부와 권력과 명예와 많은 자녀와 장수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며 성공의 잣대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헛된 것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안다면 당장 그 악한 일을 그만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이 그로 하여금 눈멀게 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어제가 아무리 좋았다 해도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가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해도 오늘은 어제보다 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우리를 더 낮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들입니다. 사람은 지금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그 헛된 것들을 많이 증대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 인생입니다.

17. 사람을 더 낮게 하는 것 7:1~6

6장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였다면 본문은 실속파에 속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의 겉모습은 별 볼일 없습니다. 그는 집에 값나가는 보물도 없고 화려한 학력이나 이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도 내세울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사람에게는 금이나 은 같이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고 6장에서 본 것처럼 많이 있어도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6장에서는 사람을 더 낮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재물과 부와 명예를 얻어도 그것을 누릴 능력이 없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혼,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 눈으로 보는 것 등등. 모두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일들이었으며 사람을 더 낮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헛된 삶 속에서는 무엇이 좋은지도 알지 못합니다(6:11,12). 그러므로 선포자는 이제 7장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성공지향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좋은 이름과 향유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1절

돈과 명예 두 가지를 다 얻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귀한 향유는 매우 비쌉니다.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병을 예수님을 위해 부었습니다. 계산에 밝은 유다가 그 향유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적어도 300테나리온 혹은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요 12:5, 막 14:5). 1테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므로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도 그 향유의 가치가 적어도 1500만 원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귀한 향유

를 많이 소유하면 재산의 가치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향유를 소유한다고 해서 소유하는 사람의 가치까지 늘어나거나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한 향유가 그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돈은 가치가 있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가진 사람의 가치가 커지거나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사무엘기상 25장의 나발,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2장,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돈이 그들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유주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소유주를 가치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도행전 9장의 도르가는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였습니다. 10장의 백부장 고넬료도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습니다.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행 10:4,31). 사무엘기하 17장의 암몬 사람 소비, 마길, 바르실래는 그들의 재물로 피난하는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의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자손에게 속한 랍바 출신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출신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출신의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침상들과 대야들과 질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콩과 꿀과 버터와 양과 암소의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밋 그와 함께한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삼하 17:27~29).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그들은 모두 향유보다는 좋은 이름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도 좋은 이름을 택하였습니다. 그녀가 귀한 향유를 소비함으로 15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나 그녀의 선한 행위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

지게 됩니다.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 .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마 26:10,13). 마리아가 귀한 향유보다는 좋은 이름을 택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귀한 향유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이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바울과 같은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는 은 30개를 얻었으나 좋은 이름을 잃어 버렸습니다. 유다가 얻은 은 30개는 그가 써보지도 못하였고 그의 이름은 두고두고 모든 사람에게 배신자, 스승을 판 자, 주를 배반한 자라는 더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귀한 향유를 얻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좋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죽는 날과 생일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1절

만일 세상이 좋은 곳이라면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죽는 날보다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죽는 사람은 좋은 것을 누릴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는 것은 세상이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안식과 평안이 있다면 사람이 사는 동안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반대로 해 아래에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다면 사람이 사는 동안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쉽게 알 수 있습니

다. “우리의 헛수의 날들이 칠십 년이요, 강건하면 팔십 년이라도 그 헛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매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시 90:10). 사람이 태어나면 안식과 평안은 없고 수고와 슬픔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사람은 그날부터 수고와 슬픔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지만 죽는 사람은 그날부터 그 모든 수고와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죽는 날보다는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교육은 이 세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난 날을 중요시합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라며 먹고 마시며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도 아니며 또 그날에 태어났다 해도 축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태어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죽음, 양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사람은 죄로 인해 죽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육신에 대하여 죽었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의 테이블에는 죄와 피와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은 몰라도 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야기는 우리에게서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 2:24).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골 1:14). 세상에 이보다 좋은 소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임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기뻐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주의 만찬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 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고전 11:23~26)

애곡하는 집과 잔칫집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 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2절

사람은 죽음을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전에는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 그 집에서 장례를 준비하며 문상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룹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장의차가 들어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잔칫집에 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초상 집에 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칫집은 우리 자신의 헛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잔칫집에서는 인생에서 아무 문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잔칫집에서의 인생은 먹고 마시며 즐기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이 없고 슬픔에 잠긴 사람도 없습니다. 잔칫집에서는 인생의 화려한 겉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요 그러한 날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착역이 다가오면 그때에야 비로소 인생은 화려함도 아니며 즐거움도 아니며 아름다움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일장춘몽! 손바닥 길이만한 그 짧은 꿈을 위해 희생했던 자신의 모든 수고들이 헛됨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잔칫집에 있다면 그는 인생의 어떤 문제나 헛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애곡하는 집은 인생의 끝을 보게 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게 하며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죽음은 인생이 가진 모든 문제의 결정체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합니다. 애곡하는 집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에서 사람이 왜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도 승리의 영광은 없고 오직 패배의 슬픔만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욥기 14:1,2). 애

곡하는 집에서는 누구라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싸워도 죽음을 이길 수 없도록 정해진 경기를 했다는 것, 부활의 소망이 없음으로 인한 절망,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 인생의 헛됨 등입니다. 이들 중의 어느 것도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는 해답도 있습니다. 문제만 있고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초상집에서 인생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면 아무리 찾아도 헛수고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알지만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해답이 없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롬 3:20,21)

죽음이 있다면 생명을 찾으면 됩니다. 죽음이 있다는 말은 곧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품이 없으면 모조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화폐가 없으면 위조화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를 불에 태운다고 해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가짜가 있다는 말은 진짜가 있다는 말이고 모조품이 있다는 말은 진품이 있다는 말이고 위폐가 있다는 말은 진폐가 있다는 말이고 죽음이 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

한 것은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요 5:2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이 생명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가까운 곳에서 찾지 아니하고 저~ 멀리서 찾고자 하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롬 10:8)

여자에게서 난 것이 문제라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면 됩니다. 답만큼이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요일 5:1)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 1:12,13)

사람이 죽음을 이긴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없으므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의 도우심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롬 6:9)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딤후 1:10)

부활에 대한 소망은 부활하신 분에게서 찾으면 됩니다.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이천 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한 사람이 여럿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헷갈리겠지만 세상에 단 한 분뿐이므로 너무도 찾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너무나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이지 듣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요 11:25,26)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전 15:20~23)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충만이므로(엡 1:23)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는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으므로 죄인으로 드러날 염려가 없으며 부활이 있으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 15:55~57)

만일 사람이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해도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생명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묻는다면 반드시 인생의 창조주께서 그를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잔칫집에서는 인생의 문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서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슬픔과 웃음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

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3,4절

슬픔은 애곡하는 집에 있고 웃음은 희락하는 집에서 있습니다. 희락의 집에서는 먹고 마시며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이 됩니다. 웃음은 육신적이거나 감각적인 것들이 만족되어서 기분 좋을 때 나옵니다. 그러므로 웃음은 철저히 자신의, 자신의 의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불행을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고 타인의 불행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곧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의 불행이 나의 불행으로 여겨 슬퍼합니다. 슬픔은 자기 자신을 위해 갖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갖는 마음이므로 진실하고 위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슬픔은 헛되고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슬픔은 웃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책망과 노래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오니라. 가시나무가 숲 밑에서 우지직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와 같나니 이것도 헛되니라.” 5,6절

어리석은 자의 노래는 듣기에 달콤하고 감미롭습니다. 나의 정서와 맞을 수 있고 내 상황을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노래는 가시나무가 숲 밑에서 불타며 내는 우지직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가시나무가 불에 탈 때 소리는 아주 요란하지만 불이 금방 사그라집니다. “가시덤불의 불같이 꺼졌나니”(시 118:12). 그래서 음식을 할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가 성가시고 처리할 방법이 마땅찮아서 아궁이에 넣는 것이지 음식을 하기 위해 가시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과 사랑과 꿈과 내일과 청춘을 노래합니다. 그들의 노래가 잠시는 내 마음에 와닿고 공감과 감동과 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 웃고 울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가시나무처럼 잠시일 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는 사람은 달콤한 노래에 도취하여 이것이 인생이라며 가던 길을 더 빨리 가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남은 모든 길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나의 행위나 길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우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책망이 듣는 당시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몸에 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범법과 죄들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사람은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어리석은 자의 노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귀는 어리석은 자의 노래에는 활짝 열려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책망에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노래가 듣기에는 감미로우나 가시나무가 숲 밑에서 타며 내는 우지직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18. 부끄러운 자화상 7:7~10

7 “참으로 학대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

8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낮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오니

9 네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10 너는 이르기를, 이전의 날들이 이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지 말라. 네가 이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묻지 아니하느니라.”

특히 여배우나 여자 탤런트들은 연기를 할 때면 항상 화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찌다 화장을 하지 않은 자신의 민낯이 사진에 찍히거나 공개되면 당황스러워 합니다. 화장을 한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나 화장한 얼굴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닙니다. 화장은 자신의 얼굴을 감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드럽고 선하고 이해심이 많고 친절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기만 하면 모두 유능한 연기자가 됩니다. 실제 내 모습과는 다릅니다. 위선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위선자입니다. 선포자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학대는 지혜로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학대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시어머니들

이 며느리들을 모질게 시집 살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시어머니도 이전에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는 모질게 시집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입장이 바뀌자 자신도 갑질할 준비가 되었고 불쌍한 며느리를 학대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점점 모진 시어머니가 되어갑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고참병이 졸병들 위에 군림합니다.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므로 나이 학력 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계급이 최고입니다. 졸병의 나이가 훨씬 많아도 나이 훨씬 어린 고참에게 경례를 해야 하고 꼬박 꼬박 존대해야 합니다. 나이 어린 고참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학대가 먼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 사이에도 학대가 있습니다. 한 번 학대에 가담하면 그 재미에 빠져듭니다. 힘 있는 사람의 잘못된 재미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상습이 됩니다. 학교에서 같은 친구로부터의 괴롭힘이 끝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자가 자신도 모르게 학대에 미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학대가 그를 미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학대하는 사람은 재미였다, 장난이었다,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서 재미였고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면 학대하는 자의 재미가 학대받는 자에게는 고통과 눈물이 됩니다. 학대받는 자에게는 위로자도 없습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4:1)

2015년 2월3일.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養母) A씨(47)에게 살인죄가 적용,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키 만한 쇠파이프로 심하게 구타해 아이의 온몸이 피하출혈을 보이고 전체 혈액량이 20~25% 소실된 것으로 추정

되는 등 회복하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아이가 저혈량 쇼크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매운 고추를 먹이고 찬물로 샤워시키는 등 학대해 결국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입양신청 과정에서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만큼 더 큰 책임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오후 4시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리는 양모 A씨를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대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밧세바의 일로 충신 우리야를 학대하여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다윗이 대언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였지만 학대는 다윗 같은 성군도 미치게 합니다. 이런 미친 것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친구나 이웃이 환경이 바뀌면서 변했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듣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더니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출세하더니 이전의 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변한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뇌물을 좋아합니다.

뇌물은 공짜로 생긴 돈입니다.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신이 힘 있는 사람이라는 자만심을 갖게 합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과거에 교통경찰은 뇌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지수가 세계의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 사회가 뇌물이 통하는 사회라는 말입니다. 뇌물이 통하는 사회는 그만큼 불의한 일이 많습니다. 뇌물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의 마음을 파멸시킵니다. 재판관의 생명은 공의입니다. 재판관은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해야 합니다(신 25:1).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잠 17:15).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뇌물을 받는 사람은 뇌물이 그의 마음을 파멸시킴으로 판결을 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신 16:19). 국토부 관계 공무원들이나 판사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할 때 좌석 특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뇌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특혜를 받는 것에 어깨가 으쓱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행위입니다.

뇌물은 받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뇌물을 주면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조금 쓰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아마 그 재미에 빠질 것입니다. 뇌물이 그런 잘못에 빠져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고 하십니다. 그러나 뇌물은 이런 법칙을 깨뜨립니다. 뇌물은 우리를 도둑놈이 되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불의를 조장하고 반칙에 익숙하게 합니다. 뇌물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낮고”

작심삼일, 용두사미.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결심들을 합니

다. 담배를 끊으리라. 술을 끊으리라. 운동을 하리라. 공부하리라. 성경을 읽으리라. 전도하리라. 계획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지만 끝을 맺지 못합니다. 일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중요합니다. 갑옷을 입는 사람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려 하지만 갑옷을 벗는 자같이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갑옷을 입는 것보다 갑옷을 벗는 것이 낫습니다(왕상 20:10,11).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60만 명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얼마나 멋있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멋있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의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거나 비방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심이 상할 때 쉽게 분노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교만과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급한 분노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잠 14:29). “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32)

사람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분노여서 안 됩니다. 사울은 자존심 때문에 다윗에게, 아들 요나단에게, 늑 땅의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에게 분노합니다. 사울은 어리석은 분노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요나단을 죽이려 하였고 늑 땅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사울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늑 땅의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아말렉이 그의 분노의 대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교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마 21:12,13). 비느하스는 회중이 거룩함을 어겼을 때 분노했습니다. 민수기 25:1~11절 참조. 책망은 지혜로운 자를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다윗은 회개하였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일로 분노하는가?

이전의 날들에 비교하여 현재를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집트에 있던 날들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술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출 16:2,3) 그들은 이집트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이집트 생활은 매우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

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출 3:7). 이집트는 그들에게 속박의 집이었고(출 13:3) 쇠 용광로였으며(신 4:20) 그곳에서 그들은 종이였습니다(신 5:15).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때와 비교한다면 광야에 있는 지금은 자유가 있고 먹는 것이 다양하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매일 빵을 공급받았으므로 굶주릴 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신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이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고통은 잊고 현재의 고통에 불평입니다.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해 아래에서 사람이 살기에 좋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과거의 날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평불만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합니다(살전 5:18). 그러나 불평불만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우리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는 어떤 곳에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면,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기뻐하고 지금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족하기를 기다리고 기뻐하기를 기다린다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학대를 즐기고 뇌물 받기를 좋아하며 일의 시작은 잘하지만 끝맺지 못하고 조금씩 분노하기를 잘하며 현재에 늘 불평하는 것. 이것들이 일그러진 나의 모습입니다. 선포자는 나를 책망합니다. “참으로 학대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낮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네 영이 조금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너는 이르기를, 이전의 날들이 이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나? 하지 말라. 네가 이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묻지 아니하느니라.”

19. 지혜로운 처신 7:11~22

11 “지혜는 상속 재산과 더불어 좋은 것이니 해를 쳐다보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통하여 유익이 있도다.

12 지혜는 방벽이며 돈은 방벽이니라. 그러나 지식의 뛰어난 점은 지혜가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니라.

13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분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15 나의 허무한 날들 속에서 내가 모든 일을 보았는데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속에서 자기 생명을 길게 하는 사악한 자가 있도다.

16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도 말며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네가 네 자신을 멸하려 하느냐?

17 너는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지도 말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네가 네 때가 이르기도 전에 죽으려 하느냐?

18 네가 이것을 붙잡고 참으로 네 손을 이것에서 거두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것들 모두에서 벗어나리라.

19 지혜가 지혜로운 자를 도시 안에 있는 열 명의 용사보다 더 강하게 하느니라.

20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21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네가 들을까 염려하노라.

22 너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였음을 네 마음도 종종 아느니라.”

지혜를 상속재산보다 낮게 여깁니다. 11,12절

지혜와 돈은 둘 다 매우 유익합니다. 지혜와 돈은 특히 재난의 날에 가진 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큰 병이 들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많은 경우 돈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돈은 인생의 든든한 방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든든한 울타리로 보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도 그런 방벽이 됩니다. 전쟁은 돈 싸움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군대와 무기를 가질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자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나 군대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주변국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왕상 4:31).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나오기를 원하였더라. 그들이 각각 자기의 예물을 가져오되 곧 해마다 정한 비율에 따라 은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져왔더라”(왕상 10:24,25). 지혜가 돈이나 무기보다 낫습니다. 지혜는 든든한 방벽일 뿐만 아니라 상속 재산보다 더 유익합니다. 돈이 그에게 많은 힘이 되고 울타리가 되지만 소유주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돈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지혜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생명을 주는 지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과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을 주는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고전 1:23,24)

육신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재산을 상속받는 것보다는 생명을 주는 지혜를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혜는 구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약 1:5)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13,14절

누구의 인생이든 언제나 좋은 일만 계속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나쁜 일만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너무 잘되어 영원히 잘 될 것처럼 돈을 마음대로 쓰며 삽니다. 잘 안 될 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날 환경이 급변합니다. 법이 바뀌거나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거나 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은 날이 지나간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역경의 날은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양지가 음지 될 날이 있고 음지가 양지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이라 하여 마냥 기뻐할 것 없습니다. 역경의 날에 대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역경을 당하는 사람도 현재의 상황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형통한 날을 만들거나 역경의 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형통한 날과 역경의 날은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

어진 날입니다. 누구는 일제 식민지배나 6.25전쟁과 같은 시련의 날에 살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입니다. 젊은 세대는 전쟁과 이념과 배고픔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풍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들이 만들거나 택한 환경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형통한 날도 역경의 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형통하다고 기뻐하거나 역경을 당한다고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날을 주셨을까?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 모나게 살지 않습니다. 15~18절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를 앞세워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신랄하게 정죄합니다. 자신의 의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로 삼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으므로 자신있게 공격합니다.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전부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천하에 의로운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과신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듭니다. 지나친 의로움이 그에게 부메랑이 되어 화를 가져옵니다. 그는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망합니다. 그는 주변에 그의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나지 않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혜롭거나 사악한 사람은 심히 모난 사람입니다.

좋은 예로 진나라 효공의 법가주의자 상앙이 있습니다. 기원전 390년경에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일종의 정치행정학인 형명(形名)학을 평생의 동지인 시교라는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위(魏)나라의 재상 공손좌가 위 혜왕에게 그를 천거하였으나 혜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천하의 인재를 찾는다는 진나라로 갑니다. 부국강병의 술책으로 진 효공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중요 직책인 좌서장을 거쳐 총리 격인 대량조(大良造)로 승진하여 정치개혁의 총설계자가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변법을 성공시켜 약소국 진나라를 일약 강대국으로 만들어냅니다.

군사적으로도 전술전략과 병법에 능통하였던 상앙은 연전연승하여 후일 진나라에 의한 천하통일의 기초를 다졌으며, 자신도 그 공으로 상 지역 15개 읍을 봉지로 받아 제후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엄격하고도 공적인 법집행은 자신에게도 화를 불렀습니다. 태자가 사형선고를 받은 왕족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였습니다. 상앙이 태자에게 죄를 묻는 대신 태자의 스승인 공자 건과 공손고에게 책임을 물어 건의 코를 베고 공손고는 목형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보수집단의 거센 반발을 불러 효공이 죽자마자 역모의 모함에 걸려 사지가 찢기고 가족이 모두 참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왜 모나게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은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친 적이 없고 세금은 제때 다 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세청이 그의 뒷조사를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꼬투리를 잡힐 일이 없으므로 그 누구에게도 당당합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의 의로움이 모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신의 의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

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눅 18:10~12).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가 하늘을 찌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하십니다(마 23장). 자신의 의로운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면 차라리 의롭지 않은 것이 낫습니다.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이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5,6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신을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딤후 1:15) 고백합니다.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도 말라” 지혜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지혜는 상속재산과 더불어 해 아래에서 유익하며 또한 방벽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의 지혜로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권이 바뀌고 여러 불리한 경우에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지혜도 지나치면 지혜가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 사람은 난세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는 있으나 섬기는 군주에 대한 충성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경계합니다. 통치자도 그를 경계하고 경쟁자들도 그를 경계합니다. 그가 다른 경쟁자의 모사가 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쓰는 사람도 그를 경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난국 상황이 되면 제거 대상 1순위입니다. 결국 지나치게 지혜로운 것이 자신에게 화를 부릅니다.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지 말라, 지나치지 않으면 사악한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악한’은 ‘못된’, ‘부도덕한’의 뜻입니다.

사악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악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악한 자는 강탈하고(잠 21:7) 재앙을 바라며(잠 21:10) 의로운 자의 거처를 치려고 숨어 기다리며 그의 안식하는 처소를 노략하고(잠 24:15)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잠 29:7).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고(잠 3:33)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입니다(잠 5:22). 지나치게 사악한 자의 표본으로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녀는 시돈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 우상 바알을 가져왔고 아합으로 하여금 악한 왕이 되도록 부추겼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자 사악한 방법으로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죄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또 이 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예스르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왕상 21:23). 이 말씀은 예후에 의하여 그대로 이루어 집니다.(왕하 9:30~37)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는 나발입니다(삼상 25장). 차라리 모자라는 것이 지나친 것보다 낫습니다. 조금 의로운 것이 지나치게 의로운 것보다 낫고 평범한 것이 지나치게 지혜로운 것보다 낫습니다. 지나친 것은 의로움이나 지혜나 악이 우리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나치게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교만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도 않으며 사악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5:8절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도 왕보다 더 높은 분께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압니다.(잠 3:7)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나지 않으므로 정 맞을 일이 없어 안전합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19절

11,12절에 지혜는 좋은 것이니 해 아래에서 유익하며 방벽이라 하였습니다. 위기의 날에는 강한 용사 열 명을 구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지혜자를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베냐민 족속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역하였습니다. 세바가 요압의 군대를 피해 벤마아가의 아벨로 들어가자 요압이 아벨을 포위하고 점령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러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아벨을 멸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요압이 세바를 넘겨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 여인이 성 안의 백성을 설득하여 세바의 머리를 베어 성 밖으로 던져 성을 구하였습니다(삼하 20:14~22). 아벨의 사람들이 전부 힘을 합쳐도 요압의 군대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이 도시를 구하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20절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죄는 사람을 쫓기는 자로 만듭니다.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잠 28:1).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몇 십 년 숨어 지내다가 공소시효를 불과 며칠 앞두고 잡혔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가 며칠만 더 참으면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며칠을 못 참아서 잡힌 것에 심히 억울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잡힌 범인의 첫마디가 “이제 잡혀서 홀가분하다”였습니다. 전혀 예상 밖입니다. 그가 범행한 날로부터 공소시효를 불과 며칠 남겨두고 잡히기까지 쫓겨 다닌 그 긴 날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죄값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데도 잡혀서 흥분하다고 했을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죄는 그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민 32:23).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그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는 죄에게 쫓겨 다닙니다. 이것이 죄의 해악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청문회에 세우면 흠 잡히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장관이나 고위직 후보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보면 많은 흠결들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총리나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털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악하거나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보다 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보다 선하게 살았음에도 몇몇 행위가 그를 악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 총리나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비난받게 만듭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잘못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비난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21,22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주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는 것이라면 누구도 2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라면 한 자리에서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고 아무리 해도 지겹지 않고 비난거리가 넘쳐납니다.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은 천하에 나쁜 사람이고 비난하는 나는 천하에 가장 좋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끼리 모인 자리에서 아무도 내 얘기, 우리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면 곤란해지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듣기를 원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말은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다른 사람들도 모여서 내 얘기를 하고 나를 비난하는 말에 열을 올릴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천하에 가장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그도 나를 천하에 가장 나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저주하는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왕이 문무 대신들과 연회를 열었습니다. 술이 돌고 취기가 오르고 흥이 돋자 한 대신이 왕의 첩을 와락 껴안고 뽀뽀했습니다. 첩이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고 그 대신의 얼굴은 모르지만 머리카락을 잘랐으므로 머리 모양을 보시면 그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연회장에 있는 모든 불을 끄게 하고 모든 대신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지고 연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들을 것과 듣지 않을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들어야 할 것에는 귀를 닫고 듣지 않아야 할 것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듣는다 해도 그것을 흘려들어야 합니다. 어떤 부하 직원이 상사에 대해 나쁘게 말한 것이 본인의 귀에 들어가 그 부하 직원이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견디지 못하고 3개월 만에 퇴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집에 속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하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네게로 되 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네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네 재난 속에 네가 빠졌느니라, 하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 하자 다윗은 그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배 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라?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 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니라.” 시므이가 따라가며 계속 저주를 하였으나 다윗은 그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가 그의 맞은편에서 산비탈을 따라 가면서 그가 갈 때에 그를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삼하 16:5~13)

누가 나를 헐담하는 말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 치의 용서도 없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듣는 것에 주의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처신입니다.

20. 지혜로 시험한 결과 7:23~29

23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는 내게서 멀리 있었도다.

24 멀리 있고 지극히 깊은 것을 누가 능히 찾아내리요?

25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고 탐구하여 찾아내려 하였으며 또 어리석은 짓 곧 어리석은 것과 심지어 미친 것의 사악함을 알고자 하였는데

26 마음이 올라가와 그물 같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히리로다.

27 선포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하나씩 하나씩 세어가며 전말을 알아내어 이것을 알게 되었노라.

28 내 혼이 아직도 찾고 있으나 내가 알아내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곧 내가 천 명 가운데서 한 남자를 찾았으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29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안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인간의 한계 23,24절

사람들이 과학을 믿는 것은 과학적 실험 때문입니다. 과학의 생명은 반복된 실험을 통하여 같은 결과를 얻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의 모든 주장들을 추측이나 가설에 근거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선포자의 말은 추측이 아니라

모두 시험해보고 마음을 다하여 깊이 살펴보고 체험하고 확인하여 얻은 결론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말이 그러한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똑같이 시험해보다면 백 번을 하던 천 번을 하던 그는 반드시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가 3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리로 사랑받는 것은 그의 철저한 시험과 마음을 다하여 깊이 살펴본 결과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현상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 말합니다. 현상적인 문제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전도서가 3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당시의 풍조나 흐름을 가지고 인생을 말했다면 3천년이 지난 오늘 그의 책을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화론과 철학을 좋아하지만 진화론은 최초의 생명과 해와 하늘과 공기와 물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그것들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가정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진화론은 아무리 반복 시험해도 같은 결론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철학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각자에게 있고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답은 애초에 없고 자신이 좋아하는 철학을 고르면 됩니다. 결론은 각자 좋아하는 대로 내리면 됩니다. 불교도 철학입니다. 불교는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해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처가 되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답을 얻으면 깨달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고 깨달아도 답은 제각각입니다. 모두 답이 아닌 거짓말들입니다. 당신이 정직한 채점자라면 그러한 제각각의 답이 맞다고 동그라미를 치지 못할 것입니다. 진화론이나 철학은 검증되거나 사실로 확인 된 적이 없습니다. 모두 가설이고 추측이고 상상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중구난방으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이나 철학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 과학계를 흥분시킨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럽우주기구(ESA)가 발사한 로제타호의 로봇탐사선 필레가 최초로 혜성 착륙에 성공한 것입니다. 로제타호는 2004년 3월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10년 8개월 동안 65억km를 날아 2014년 11월 12일 혜성에 착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필레의 임무는 혜성의 흙 속에서 생명의 기원이 될 물질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이 많은 돈(로제타호에 1조 7천억 원)을 들여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달이나 화성, 여타 행성에서 생명의 비밀을 밝혀내려고 수고하지만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갖고 보낸 것이 아니라 혹시나 비밀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탐사선을 보낸 것입니다. 그 혜성에서 확실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근거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지혜의 왕은 이에 대해 말합니다. “내게서 멀리 있었다.” 지혜는 인간의 우주선이나 탐사선이 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이 찾기에는 너무 멀리 있고 지극히 깊은 곳에 있어서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욥기 28:12~22

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13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 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14 깊음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15 그것은 금으로도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

하리로다.

16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마노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
하겠고

17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
꾸지 못하고

18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19 에티오피아의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
을 매기지 못하리로다.

20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21 그것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가려졌나니

22 멸망과 죽음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것의 명성을 들었노
라, 하느니라.”

지혜가 땅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고 모든 생물의 눈에는 숨겨졌고 하늘
을 나는 새들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멸망과 죽음도 지혜의 소문은 들었으
나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만일 멸망과 죽음이 지혜가 어디 있는
지 알고 찾았더라면 멸망하지도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혜는 현대 과
학자들의 눈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하
지만 지혜를 찾지는 못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돈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도 아시고 처소도 아십니다. 23~27절입니다.

23 “하나님께서서는 그것의 길을 이해하시며 그것의 처소도 아시나니

24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25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되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26 그분께서 비를 위하여 법령을 정하시고 천둥이 칠 때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으니

27 그때에 그분께서 그것을 보시고 밝히 드러내시며 예비하시고 참으로 살살이 살피셨으며”

바람이나 물, 비, 번개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이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 있습니다.

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혜는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법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도 아니하리라. 오직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신 30:11~14)

솔로몬은 탐구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고 탐구하여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또 어리석은 짓의 사악함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합니다(25절). 우리는 선포자의 이런 탐구심 덕분에 해 아래 인생에서 헛된 것과 최선의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이제 선포자가 알게 된 것과 알아내지 못한 것과 찾아낸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은 모두 시험한 것이므로 매우 확실한 것입니다.

선포자가 알게 된 것 26,27

마음이 올라미와 그물 같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여자들에 대한 예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호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창 39:7~20), 삼손을 넘겨 준 들릴라(삿 16:4~20), 아합 왕이 악을 행하도록 부추긴 왕비 이세벨(왕상 21:25, 16:31), 잠언 2장의 낯선 여자, 잠언 7장의 창녀,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게 한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마 14:3~12) 등등입니다. 남자가 이런 여자에게 걸리면 그물에 걸린 고기 신세마냥 그의 인생은 끝장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남자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기다리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하기 전, 여자가 자기 형부와 조카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남자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니다. 알고 보니 형부와 조카가 아니라 여자의 남편이고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들은 낯선 여자(잠 2:16, 7:5) 소위 꽃땀입니다. 어떤 여자가 꽃땀인 줄 알 수 있는가? 성경에는 꽃땀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언 7:6~27절에 꽃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활동하며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하며 시끄럽고 고집이 세며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바깥으로 나갑니다. 얼굴이 뻘뻘스럽고 거짓말에 능하며 남자를 잘 흘립니다. 자기의 말들로 아침을 잘 합니다(잠 2:16). 이런 여자에게 걸리면 치명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창녀의 옷 차림은 계시록 17:43절에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중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이들은 장식한 머리를 하고 금이나 보석이나 진주와 같은 비싼 것으로 장식을 합니다. 아주 비싼 옷을 입습니다.(딤후 2:9 참조)

이들은 디모데전서 2:9~11절의 여자와 너무 다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카락이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남자가 이런 꽃뱀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꽃뱀인줄은 알았지만 종이므로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꽃뱀의 올가미에 요셉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죄를 짓지 않았고 대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감으로 꽃뱀의 올가미와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훈련과정이었습니니다. 하지만 삼손의 경우는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꽃뱀에 잡혀 눈이 뽑히고 낮 족쇄로 결박당하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는 치욕을 자신의 생명과 바꾸고서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 잠언 7장의 어리석은 청년, 헤롯 같은 죄인은 여자가 놓은 올가미와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올가미와 그물 같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는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선포자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사례를 찾아가면서 그 결말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런 여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선포자가 알아내지 못한 것 28절

선포자가 열심히 찾고 있지만 알아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에게서는 천 명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욥기 33:23~28절 “만일 천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요 그와 함께하는 사자(使者)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의 곧바른 길을 보일진대 / 그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 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뻐하며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그분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베푸시리라. / 그분께서 사람들을 살피시거늘 만일 누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굽게 하였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 / 그분께서 그의 혼을 건져 내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리니 그의 생명이 빛을 보리라.”

남자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간혹 있었으나 여자에게서는 천 명 가운데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남녀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녀가 평등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선포자가 여자를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포자가 하나씩 하나씩 세어가며 확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편들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무슨 특권을 주시거나 남자를 기뻐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남자의 사악함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기록에서 여자가 남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올라미와 그물을 치는 예들은 여럿 기록되어 있으나 남자가 여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올라미와 그물을

치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로 하여금 죄 짓도록 부추기지만 남자가 여자를 죄 짓도록 부추기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것이지 아담이 여자에게 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딤후 2:14). 이것은 여자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못 믿겠으면 사극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여자를 부추겨 악한 일을 꾀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왕이나 남자들을 부추겨 악한 일을 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여자의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딤후 2:11~14)

선포자는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잘 알았을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포자가 한 나라의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요 죽은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재판을 맡았습니다. 분명히 한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거짓말을 알기 위해 판결을 내립니다. 여자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재판을 받으러 오는 많은 여자들을 통해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왕이 판단한 재판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판단의 공의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왕상 3:28)

다른 한 가지는 솔로몬에게 천 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왕상 11:3). 각국의 출신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여자의 특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천 명의 아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암투가 있었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여자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나은 여자임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여자들이 서로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자기 나라들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와 남편에게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다른 여자들에게 자신의 남편에 대한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바가지에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로부터 자기 힘의 비밀을 털어놓도록 시달렸던 것처럼 솔로몬도 아내들로부터 시달렸을 것입니다. 삼손은 한 여자를 감당 못했는데 솔로몬은 천 명의 여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그가 산당을 건축하고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는 여자들로부터 얼마나 시달렸을까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3~8

3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칠백 명과 첩 삼백 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4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5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6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7 그때에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의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8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솔로몬이라면 여자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논문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논문은 아주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므로 3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논문이 변함없이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도 솔로몬의 논문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선포자가 발견한 것 29절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곧바르게 만드셨는지는 사람의 신체 기능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기능들은 70~80년을 문제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 기능 중 서로 간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며 필요 없는 지체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체들은 서로를 돕고 필요로 합니다.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서로 싸우거나 공을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눈이 아주 멋진 경치를 보고 감탄할 때 손이나 발은 보지 못하지만 눈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입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다른 지체들은 맛을 볼 수 없지만 입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귀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호강할 때 입이나 손발은 듣지 못해도 귀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발은 종일 수고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발은 눈이 멋진 것을 볼 수 있도록 빨리 걷게 하고 입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이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곧바르게 만드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이런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많은 창안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그들이 찾아낸 많은 창안물을 통해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합니다. 투자가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작가는 어떤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발명가는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궁리합니다. 학생은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일에 모든 생각을 모으고 더 나은 것을 찾습니다. 평소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어떤 것이 우연히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아낸 창안물은 자신의 별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드는 것이며(창 3:6)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할 근거를 찾고 자신을 즐겁게 할 악기와 여러 도구들을 만들며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를 만들고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도시와 문화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것들로 바꾸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들로 바꾸고 자신의 창안물이 곧바르다고 생각합니다(삿 21:25). 그러나 인간이 찾아낸 창안물은 모두 일그러진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창안물 중 곧바른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비뚤어지고 꾸부러지고 왜곡되고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신 것과 얼마나 다른지!

해 아래에서 선포자가 하나하나 세어가며 찾고 알아내고 발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해 아래에서 선포자가 알아내지 못한 것을 알아낸 것이 있습니까? 선포자의 발견한 것이 틀렸다고 할 만한 것을 발견하였습니까? 없다면 우리가 심각하

게 잘못된 것임에 분명합니다.

21. 지혜로운 사람 8:1~5

1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뽀뽀함이 변하리라.

2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

3 그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며 악한 것 가운데 서지 말라.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4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5 누구든지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불발탄은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터지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군에서도 불발탄 처리는 고도의 전문가들이 다룹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는 많은 불발탄이 있었습니다. 그 불발탄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갖고 놀다가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위험을 몰랐거나 알고도 무시해서 생긴 안전사고입니다. 사람이 위험을 모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노아 때에도 사람들은 홍수의 경고를 들었으나 그 위험을 무시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위험을 몰랐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위험을 고지받았으나 무시했습니다. 임진왜란이나 6.25도 위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험을 무시한 결과는 비극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을 무시한다면 언젠가는 그 위험이 그

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을 잘 알고 행동하면 안전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을 아는 사람이고 위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위험을 아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왕입니다. 왕은 불발탄이나 핵폭탄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왕은 권력이 있으며 최고의 명령권자입니다. 세상에서 명령을 받지 않고 오직 명령만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왕입니다. 왕에게는 권능이 있어 그가 기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만일 나를 미워하여 나의 생명을 빼앗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산을 빼앗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왕의 권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으로 여깁니다. 대통령이나 통치자에 대한 모욕을 서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통치자들을 욕하고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무시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투쟁성을 나타내려고 대통령에 대해서나 혹은 통치자들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며 그것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극히 어리석은 자들의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치고 잘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법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거나 못해도 그들은 잘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왕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왕의 명령을 지킵니다. 2절

왕이 왜 위험한가? 왕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롬 13:1,2).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는 백성에게 맹세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기상 8:11~17(맹세의 내용)/19,20(맹세에 동의함)

맹세의 내용

11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이 이러하리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들을 자기와 자기의 병거들을 위해 지정하고 또 자기의 기병으로 삼으리니 몇 사람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가리라.

12 또 그가 자기를 위해 천인 대장들과 오십인 대장들을 지정하고 그들을 세워 자기 땅을 갈게 하며 자기의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자기의 전쟁 무기과 병거의 기구를 만들게 하리라.

13 또 그가 너희 딸들을 취하여 과자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으리라.

14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취하되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주며

15 또 너희 씨와 포도원의 십분의 일을 취하여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16 또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하며

17 너희 양의 십분의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모든 백성은 이 맹세에 동의하였습니다(19,20). 그러므로 백성은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백성이 왕의 명령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멸망시킨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에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바빌론 왕을 섬기려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바빌론 왕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렘 27:3~11)

8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 바빌론 왕 곧 느부갓네살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 즉 자기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에 두려 하지 아니하는 그 민족을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벌하되 마침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소멸시킬 때까지 벌하리라.

9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너희의 대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마법사들의 말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10 너희를 너희 땅에서부터 멀리 옮기기 위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대언하나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몰아내어 너희를 망하게 하려 함이라.

11 그러나 자기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에 두고 그를 섬기는 민족들 곧 그들은 내가 조용히 그들의 땅에 남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갈고 그 안에 거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는 이집트에 군사 지원을 요청함으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대사들을 이집트로 보내어

그들로부터 말과 많은 백성을 받으려 함으로 그 왕을 배반하였으니 그가 형통하겠느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도피하겠느냐? 그가 언약을 어기고 구출을 받겠느냐” (겔 17:15)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16~21

16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으나 그가 그 왕과의 맹세를 멸시하고 그 왕과의 언약을 어겼은즉 반드시 그 왕이 거하는 처소 곧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그 왕과 함께하다가 죽으리리라.

17 또 파라오가 많은 사람을 멸하기 위해 자기의 강한 군대와 큰 무리를 동원하여 작은 산들을 쌓아 올리고 보루들을 세워도 그 전쟁에서 그를 위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라.

18 보라,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이 모든 일을 행하고는 그 언약을 어김으로 그 맹세를 멸시하였은즉 도피하지 못하리라.

19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으로 그가 멸시킨 내 맹세, 그가 어긴 내 언약 바로 그것을 내가 그의 머리에 얹으리라.

20 또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를 내 울무에 걸리게 하여 바빌론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나를 대적하여 범법한 그의 범법으로 인해 거기서 그와 변론하리라.

21 그의 모든 도망한 자들과 그의 모든 부대가 칼에 쓰러지며 남은 자들은 모든 바람을 향하여 흩어지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어떻게 하였는가? 시드기야의 배반 소식에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킵니다. 시드기야는 도망하였으나 여리고 평야에서 붙잡혔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아들과 신하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보내어졌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놋 족쇄에 채워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왕하 25:6,7).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을 일들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왕 위에 앉았습니다(대하 36:10). 그는 느부갓네살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런 그가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어긴 것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그를 배반하고 오히려 목을 뺏뺏하게 하며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대하 36:13).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내라고 하셨습니다. 즉 로마의 이스라엘 식민 지배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데모하는 사람들이 법을 예사로 어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불법이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고 자신이 잘못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범법자들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자가당착입니다. 통치자들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왕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3절

왕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는 것은 왕과 자신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왕의 분노를 샀을 때 왕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왕의 눈앞에서 빨리 돌아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일 네가 어리석게 행하여 네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잠 30:32). 다윗은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만 끝까지 사울로부터 돌아서지 않았고 충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습니다.

설사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잘 되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어떤 일에 참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설사 그가 옳다할지라도 그는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왕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다른 곳에 가서도 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의견과 맞지 않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사표를 냈으로 자신의 의견이 옳았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가 상사를 언짢게 하였다면 사표를 내기 전에 상사에게 용서를 구하고 상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악한 것 가운데 서지 않습니다. 3절

악한 것은 왕에게 반역하거나 항명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뛰어난 조언자였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자 압살롬의 조언

자가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일 좋은 계책을 내 놓았으나 그의 계책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책이 형통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삼하 17:14).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책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자기 도시로 돌아가 집에서 목매어 자살합니다(삼하 17:23). 만일 사람이 왕을 반역하는 일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왕의 하려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4절

왕은 해 아래에서 절대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왕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왕에게 대항하거나 왕의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5절

통치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진노를 집행하기 위해 칼을 가집니다. 로마서 13:3,4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네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이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왕을 존경하는 사람이요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때와 판단을 분별합니다. 5절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신의 선대를 악으로 갚자 그를 멸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조언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삼상 25:32~35). 전도서 3:17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인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으므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두 번의 완벽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다윗이 왕좌에 앉게 됩니다.

법을 지키고 통치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22. 때와 판단 8:6

“모든 목적인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게 임하나니” 6절

모든 목적인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목적인 것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컴퓨터나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까지 걸어서 한 달 걸리던 거리를 4~5시간이면 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자동차는 비 오는 날에도 비를 맞지 않고 추운 날에도 따뜻하게, 더운 날에도 땀 흘리지 않고 먼 거리를 갈 수 있게 합니다. 스마트 폰은 손바닥만한 기계로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자동차나 스마트 폰을 가지고 오백 년 전이나 천 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사람들을 놀래주고 싶겠지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백 년 전이나 천 년 전의 모든 여건은 자동차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자동차 길이 없고 자동차 기름이 없고 자동차 부품이 없고 수리점도 없습니다. 왕이 자동차를 탄다면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밀거나 아니면 여러 필의 말이 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수레보다 못합니다. 스마트 폰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통신사도 없고 기지국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천 년 전 세상에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완전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갈 4:4). 안전사고에도 때가 있습니다. 큰 사고

가 일어나기 전에 작은 사고가 수십 번 일어난 다음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작은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면 안전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안전사고가 날 때에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도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죽음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닙니다. 늙고 기력이 쇠하고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게 될 때입니다. 한 나라의 멸망도 때가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부패하고 백성들은 살기 어려워지고 민심이 떠나므로 다른 세상을 기대할 때입니다. 세상의 종말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세상의 끝이 오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세상의 끝이 올 때는 수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의 기승으로 믿음에서 떠나고 유희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귀 기울이고 위선적인 거짓말과 양심의 마비,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할 때입니다(딤후 4:1~3). 인간의 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양심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디모데후서 3:1~5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웃습니다.(벧후 3:3)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

세의 징조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반복하여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악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적이 과거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도 때가 있고 역사의 흐름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었다”거나 “시기상조” 혹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곡식을 심으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목적한 것에는 시작하는 때가 있고 무르익는 때가 있고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때는 모두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시작하거나 심는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라거나 무르익게 하시는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거두거나 끝내는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종교개혁은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의 능력이거나 노력이 아니라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루터 이전에 프랑스의 왈도파, 롤러드파(派)를 이끌던 영국의 위클리프, 위클리프의 뒤를 이은 보헤미아의 후스, 피렌체의 사보나롤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씨를 뿌렸고 하나님께서 그 씨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루터는 때가 되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모든 환경들이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장의 끝에 있는 ‘종교개혁의 배경’ 참조)

모든 목적인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습니다.

모든 목적인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때만 있고 판단이 없거나 혹은 때가 없고 판단이 있다면 어찌될까? 우리는 때를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서로 다른 희생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 중에서 드렸습니다. 때가 되어 희생을 드렸지만 판단이 없다면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어느 희생물이 나은 희생물이고 잘못된 희생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된 희생물로 인해 정죄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인은 알곡을 심었고 원수는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때가 없거나 판단이 없다면 그 씨가 알곡이든 가라지이든 씨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알곡이나 가라지는 각자 열매를 맺을 것이나 농부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 알곡이거나 가라지이거나 구별 없이 모두 거두어서 곳간에 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때가 없다면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때가 되어 열매를 맺을 때에야 확실히 구별됩니다. 그 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도 비슷하여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릴 것인가고 물었을 때, 주인은 추수 때까지 가만 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뽑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때와 판단이 없다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다고 대언합니다. 그러나 거짓 대언자 하나냐는 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

로가 될지라도 2년이 지나지 않아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거짓 대언자를 때가 되기 전에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는 판단을 함께 가져옵니다. 때가 되면 누가 하나님의 대언자인고 누가 거짓 대언자인지 백일하에 드러나므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으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판단 받았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ერ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아무리 많아도 한 가지뿐입니다. 모두가 거짓이거나 아니면 하나의 진리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많다고 해서 가짜가 진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많아도 가짜입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 어느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진리와 거짓을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구원과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에는 약속했던 생명도 부활도 구원도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진리와 거짓이 명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없다면 아무리 경건하고 멋있고 화려하게 보여도 거짓 종교입니다. 마지막 때는 옳고 그른 것을 저절로 판단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가 나옵니다. 다섯은 지혜로운 처녀이고 다섯

은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이들이 지혜로운 처녀인지 어리석은 처녀인지는 때가 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다섯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에 기름을 채우고 또 신랑이 늦게 올 것에 대비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에 기름을 채웠지만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신랑이 때가 되기 전에 즉 열 처녀가 등에 채운 기름이 다 타기 전에 왔다면 지혜로운 처녀인지 어리석은 처녀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열 처녀는 모두 잠이 들었고 등의 기름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열 처녀가 다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아 함께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을 켤 수 없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혼인잔치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때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판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도 때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악하다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의 종말이 있고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앞날을 전혀 모르면서 앞으로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누구의 판단이 옳은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안다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던 적이 없고 사람의 판단이 옳았던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직 판단이 드러나지 않은 것도 때가 되면 누가 옳은지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때가 되어 자신의 어리석음이 판단 받게 되는 날은 비극입니다.

장차 세상과 천사들도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판단은 성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2~5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때는 반드시 판단을 동반합니다. 때와 판단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합니다. 사람은 모두 때 아래 놓여있고 판단 아래 놓여 있습니다.

“모든 목적인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게 임하나니”

지혜로운 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하므로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1~5). 때와 판단으로 인해 불행이 크게 임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불행이 그에게 크게 임하는 것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언제 그 일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미리 대비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전혀 대비하지 않으므로 불행이 크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이 판단을 받고 거짓 종교가 판단을 받고 거짓 대언자가 판단을 받고 가짜가 판단을 받고 세상이 판단을 받고 천사가 판단을 받는 날에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큰 불행이 찾아올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때〉 (배경)

(정진기 교수의 글을 요약 인용함)

1. 정치적인 면

국가주의의 등장입니다. 교황의 명령과 권위보다 국왕들의 권위에 의해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독립 국가들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교회 주권 중심에서 국가 주권 중심으로 권력의 핵심을 이동시켰습니다.

영국의 경우, 헨리 8세가 카톨릭인 아내 캐더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교황 클레멘트 7세에게 이혼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캐더린이 신성로마제국 황제 찰스 5세의 고모이므로 이혼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과거부터 로마 교황의 전횡에 반감을 가졌던 헨리는 캐더린과 이혼하고 영국을 로마 교황의 세력으로부터 독립시켰습니다. 영국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국왕이라는 수장령을 반포했습니다.

스페인도 오랫동안 무어족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1469년 아라곤의 페르디난드와 카스틸의 이사벨라가 결혼함으로써 스페인은 국가주의의 초석을 깔게 되었습니다. 이 후 스페인의 국가적 영광과 권력은 신성로마제국의 찰스 5세이기도 했던 찰스 1세(1516-1556) 치하에서, 또한 필립 2세(1556-1598)의 영도 하에 획기적으로 신장되었습니다.

독일은 외견상으로는 신성로마제국의 통치 영역이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황제는 세습제가 아닌 지역의 선제후들이 뽑는 선거제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선제후들을 위시한 각 지역의 왕자들은 거의 독자적인 자치권을 행사했는데, 독일 연방에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는 제국 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찰스 5세 황제는 이러한 제국의 구조 속에서 작센 선제후의 정치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이 작센 선제후의 영지에 속해 있었습니다. 황제는 카톨릭 신자로서 루터와 같은 개혁신의자를 신성로마제국에서 용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선제후들의 협력 없이는 루터를 함부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1521년 4월 18일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가 교황과 찰스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선포되었지만, 독일 국민들과 제후들, 특히 선제후 프레드릭의 비호를 받고 있는 루터를 황제는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찰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찰스는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부르군디, 알사스, 카스틸, 아라곤, 나폴리, 시칠리아와 스페인의 해외 식민지까지 차지한 대제국의 군주였습니다. 그는 이 대제국을 지키기 위해 일생 동안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날로 강성해져가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이 있었고, 뒤에는 강력한 통치와 종교로 위협하는 이슬람의 오토만 터키인들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제국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을 형성하려면 제국에 남아서 일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521년부터 1530년까지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을 가장 중요한 때에 황제는 프랑스와의 전쟁 및 오토만 터키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독일을 10년 동안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민족주의의 발흥과 전쟁 중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2. 경제 · 사회적인 면

십자군운동 이후 봉건사회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고, 농업경제가 상업 경제로 옮겨지는 과도기에서 사회의 구조적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 발견으로 세계무역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부의 분배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본주의적 질서가 형성되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겨났으며, 도시 내에 무산자 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계층은 농촌 지역에서 몰락한 불만 세력을 유입하였습니다. 부의 증대, 사치생활, 도덕적 타락은 16세기 초반 25년 동안 도시 생활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노동자 사이에는 반목이 커졌습니다. 경제의 불균형이 정치 위기를 조장한 것입니다.

3. 문화적인 면

르네상스(Renaissance, 약 1350-1650년) 운동은 유럽의 지적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운동은 그리스 · 로마(Greece · Roman) 시대의 고전 문화를 연구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나중에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발전함으로써, 문화의 전 영역-건축, 그림, 조각, 문학, 철학, 종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으로 신학의 비중이 약화되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인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에라스무스는 여러 종류의 성경사본을 교부들의 저술과 비교하면서 헬라어 신약성경을 편집하였습니다. 영국의 틴데일(William Tyndale, 1495-1536)은 에라스무스의 헬라어성경과 루터의 독일어성경에 의존하여 1525년 영어성경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1526년 영국으로 유입되었고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 활자체의 발명과 인쇄술의 발달은 책의 보급에 아주 중

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전부 손으로 필사하였으므로 성경은 매우 귀하고 비쌌습니다. 교회에 큰 성경을 쇠줄로 매어 두었습니다. 성경을 보려면 교회로 와야 하지만 와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쇄의 발달로 성경과 책을 대량으로 출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국어로 된 성경과 책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518년에서 1523년까지 비텐베르그 지역에서만 600여 종의 서책이 출판되었고,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도 300여 종의 인문·종교 서적이 출판되었습니다. 성경의 보급으로 로마 교황청의 교리 체계가 비판받기 시작합니다.

4. 종교적인 배경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에 이주한 사건(1309-1377)은 카톨릭의 쇠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로마 교황청과 아비뇽 교황청 간의 오랜 분열(1378-1417)은 교황청의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교황권의 전성기 때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일부 교황이 전성기의 교황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미 지나간 때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교황의 부패와 타락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면죄부 판매 외에도 성직 매매가 성행하고 신부들의 생활은 문란해졌습니다. 카톨릭 내부에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영국 등 유럽 각국은 근대 국민국가로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중세의 카톨릭 세력은 점차 쇠퇴해 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종교개혁은, 카톨릭 교회의 혁신운동이지만 근대국가의 성립이라는 정치적 변혁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길을 만들었고 종교개혁의 때가 무르익었습니

다. 누군가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될 수 있을 때 루터가 등장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던 루터 자신이 구원의 문제로 심각한 영적 갈등을 겪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17)는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루터는 구원받은 후에야 로마 카톨릭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물론 루터 외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카톨릭 내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므로 카톨릭의 종교를 개혁할 책임자들은 아닙니다. 카톨릭의 사제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의 책임자였습니다.

23. 인생의 한계 8:7,8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하겠느냐?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 내지 못하리로다.” 7,8 절

꿈은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열렸을 때 응원구호가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사람은 꿈을 위해 살고 꿈을 이루려고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그러나 만일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 순간부터 꿈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꿈은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안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꿈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룰 수 있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인생은 결국 이루지 못할 꿈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꿈은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꿈과 내일을 잡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아무리 쫓아가도 꿈이고, 내일은 백년을 쫓아가도 내일입니다. 꿈을 쫓아간 그들이 얻는 것은 허망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어도 허망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허망합니다. 인생 최고의 성공을 직접 경험한 선포자의 말입니다(2:4~11). 이브는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자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뱀이 그녀에게 꿈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너희가 절대

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창 3:4,5). 이브는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말대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얻은 꿈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아는 것 뿐이었습니다. 허망함 그 자체였습니다. 롯은 성공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창 13:10,11).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가 꿈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도덕성을 가진 두 딸만 남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잃었습니다.

사람이 성공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공의 정상은 허무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꿈을 안고 정상에 서지만 그가 원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최고로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헛될 뿐입니다. 김종필 씨가 조문 온 사람들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뭐해 다 허상이야.” 꿈을 이룬 결과가 허망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만일 꿈을 이룬 결과가 허망하다면 아무도 꿈이나 가능성을 쫓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에게 꿈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하려함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아집니다(전 5:7). 꿈만큼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하기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좌우를 둘러보거나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사람이 꿈이나 가능성을 위해서 밤낮 달리다보면 어느덧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사람이 종착역에 도착하면 꿈은 사라지고 오직 늙음과 병든 몸과 아쉬움과 회한만 남

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가 받아든 인생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꿈과 가능성으로 시작해서 헛됨으로 끝나는 인생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꿈과 가능성을 심었으므로 손에 잡히지 않는 헛된 것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위해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꿈을 이루라거나 가능성을 바라보라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말하면서 인간의 꿈이나 내일의 희망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에 인생을 투자하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헛됨과 한계를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헛됨과 한계에 대해서는 자신이 경험하고 탐구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상세히 말합니다.

-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1:3)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1:14)
- 희락과 쾌락도 헛됩니다.(2:1)
- 부귀와 재물과 영화도 헛됩니다.(2:4~11)
- 지혜도 헛됩니다.(2:15~17)
-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2:18~23)
-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헛됩니다.(3:18~21)
- 옳은 일도 헛됩니다.(4:4)
- 홀로 살아도 수고가 끝없으므로 헛됩니다.(4:8)

- 권세도 헛됩니다.(4:13~16)
-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5:3) 꿈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됩니다.(5:7)
- 재산이 늘어나도 만족이 없으므로 헛됩니다.(5:10)
- 부와 재물과 명예도 먹을 능력이 없고 낯선 자가 먹으므로 헛됩니다.(6:2)
- 많은 자식을 낳아도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오래 살아도 입을 채우지 못하므로 헛됩니다.(6:3~7)
- 어리석은 자의 노래도 순간에 불과하므로 헛됩니다.(7:5,6)
- 사람은 목적인 것의 때와 판단을 알 수 없습니다.(8:6)

솔로몬은 계속해서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꿈이나 가능성을 좇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꿈은 사람이 꾸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 없지만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딤후 2:13). 바울은 이 소망을 위해 살았고 또한 이 소망은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택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冠)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딤후 4:6~8)

7,8절은 지혜로운 자이든지 어리석은 자이든지 무론하고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고 언제 그 일이 있을지 아무도 내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마지막 날 빅터 프랭클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는 유대인 의사였으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있는 동안 드디어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수용소 안에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용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남은 사람들은 불과 몇 십 명이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용소는 비우고 불태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싣고 갈 마지막 트럭이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트럭 대신 붉은 십자를 칠한 승용차 한 대가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국제 적십자 소속 차량이었습니다. 국제 적십자 대표는 수용소에 남은 사람들에게 이제 수용소를 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날 밤 두 대의 트럭과 함께 친위대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몰라볼 정도로 친절했고 남은 사람들에게 이 수용소는 비워야 하므로 트럭을 타라고 했습니다. 중앙수용소로 보내져 거기서 48시간 내에 포로들과 교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트럭을 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친구와 함께 맨 뒤에 있었습니다. 건장한 사람들이 먼저 트럭에 타고 어떤 사람들은 부축을 받아 올라탔습니다. 그 트럭이 떠나고 남은 트럭에는 13명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 주치의가 남은 사람 중에서 트럭에 탈 13명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과 친구는 지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텅 빈 수용소에 남아야 했고 절

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대포소리와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총알이 수용소 안에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주치의가 옆드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다 총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동이 트자 수용소 정문에는 흰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주일이 지난 후에야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까지도 운명이 그들을 갈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트럭을 타고 갔던 사람들은 다른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동안 빅터 프랭클에게 삶과 죽음은 마지막까지 한 순간의 차이였습니다. 어느 쪽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빅터 프랭클은 몰랐습니다. 삶과 죽음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영을 다스릴 권능이 없습니다.

영은 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영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을 취하시면 아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육체로부터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창 35:18, 왕하 17:17~23).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내 영을 취하시면 영은 나를 떠날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생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요 10:17,18). 모든 사람이 “공포의

왕”(욥 18:14)인 죽음에게 넘겨지는 날 아무도 죽음에게 저항할 수 없고 죽음에 대하여 권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혜도 통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와 같이 죽습니다(2:16). 많은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눅 12:15)

전쟁에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전쟁은 군인들에게 두려움입니다. 전쟁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두렵지만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모든 군인들에게 자신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이유를 대라면 모든 군인이 이유를 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대 독자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와 가족의 모든 희망일 것이고 한 가정의 기둥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벌려놓은 사업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갈아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로 장기간 멀리 출장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전사한다면 기둥이 무너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끊어질지도 모르고 대가 끊어질지 모르고 많은 투자를 한 사업은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은 각자의 어떤 이유에도 전쟁에서 면제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이유로 면제한다면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개인의 사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 2:3,4)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 내지 못합니다.

사악한 자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온갖 거짓말과 꾸며낸 말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사악함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를 형통하게 했던 거짓말과 속임수도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시편 52:2~7 “네 혀가 해악들을 꺾하고 날카로운 칼같이 속임수로 일하는 도다. / 네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셀라. / 오 속이는 혀여, 네가 사람을 삼키는 모든 말을 사랑하나니 /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붙잡아 가시며 네 거처에서 너를 뽑아내시고 산 자들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으시리로다. 셀라. / 의로운 자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비약적인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과 엄청난 지식의 축적과 고도의 문명,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인간의 한계를 허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구조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물에 빠졌으나 자신의 힘으로 헤쳐 나오고자 하는 사람은 구조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구조요청을 한 사람은 살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24.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 8:9~11

9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며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내 마음을 기울인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해치는 때가 있도다.

10 이처럼 내가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도다. 그들은 왔다가 거룩한 자의 처소를 떠났으며 또 자기들이 그렇게 행한 도에서 잊었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1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것을 따라하는 모방본능이 있습니다. 유행은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셀린트가 어떤 머리모양을 하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가? 어떤 머리핀을 하는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를 보고 따라합니다. 커피점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면 커피점이 여기저기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도 어떤 가게에서 장사가 잘 되면 다른 사람도 같은 장사를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생겼으면 자신도 그 사람처럼 잘 생긴 사람이 되고 싶어 성형을 합니다. 어떤 상품이 유명세를 타면 반드시 모방상품이 생겨납니다. 범죄도 모방합니다. 총기사고가 발생하면 모방범죄가 생깁니다. 성 범죄도 모방 범죄가 많습니다. 유명인사가 자살하면 자살도 모방합니다. 그런데 모든 모방에는 항상 어떤 일정한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의 탐욕이나 욕망을 채우는 이기적이고 악한 방향입니다. 사람의 타고난 모방본능은 모두 악한 것에 대한 모방이지 선하거나 의로운 것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선이

나 의가 유행하고 따라하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이 유행하고 따르는 일은 없습니다. 진리가 유행하거나 진리를 따르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는 그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해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10절은 그들이 “사악한 자들”이며 그들의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11절은 모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해치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뿐입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자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고 나봇이 죽었음을 아합에게 알립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내려갑니다. 나봇을 죽게 한 이세벨이나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내려가는 아합은 사악합니다. 그들의 사악함이 그들을 해칩니다(왕상 21장). 사악한 자도 죽어서 묻힙니다.

“이처럼 내가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도다. 그들은 왔다가 거룩한 자의 처소를 떠났으며 또 자기들이 그렇게 행한 도시에서 잊혔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죽어서 묻힌 자들은 사악한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사악한”(wicked)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창 18:23,25), 농 땅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인 도엑(시 52:7), 음행이나(창 39:9, 레 18:17) 속이는 것이 사악한 행위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니다(욥 21:14,15). 사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힘없는 많은 자들을 학대하였고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전 4:1)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였습니다(전 5:8). 그럼에도 그들의 삶

은 형통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사악한 자들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에 있어서도 특별한 예우를 받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장례는 평화롭고 누구보다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 행렬은 끝이 없고 운구차를 뒤따르는 인파의 무리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살았을 때보다 죽어서 더 존경을 받습니다. 그가 생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살아서는 장수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죽어서는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무덤에 묻힙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확히 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생전에 행하였던 악한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만 기억합니다. 그들은 생전에 거룩한 처소에 있었고 선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거룩한 처소에 있었지만 거룩에는 관심이 없었고 거룩한 처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이 생전에 거룩한 처소에 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보다 더 부러운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악한 자의 삶과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사악한 통치자들의 악하게 행한 것이 도시에서 잊혔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악한 행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가만 관심사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악한 자를 소개합니다.

욥기 21:7~13

7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냐?

8 그들의 씨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도다.

9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10 그들의 황소는 새끼를 낳되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암소는 새끼를 낳되 유산하지 아니하는도다.

11 그들은 자기들의 어린것들을 양 떼처럼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도다.

12 그들은 작은북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기뻐하며

13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는 세상에서 사악하게 살았지만 그가 사는 날 동안 어떤 고난도 없이 권세는 강하고 형통하며 풍요롭게 살았고 그가 죽어서는 평안히 무덤에 묻힙니다. 그는 분명히 “사악한 자”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학대하였고 괴롭혔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 쳐서 숨겨 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약 5: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사악한 면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며 얼마나 장수하고 형통하였으며 풍요롭게 살았는가만 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는 참으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분명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악을 행하였지만 그들의 악한 일에 대한 어떤 징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더 없이 행복하게 보였고 어느 날 아무 고통 없이 무덤에 묻힙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

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악한 자들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삶과 죽음을 보며 자신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악한 자들의 인생을 모방합니다. 사람들이 모방하는 것은 모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과 최고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모방합니다. 순위에서 열 번째나 열한 번째를 모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것을 모방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악한 자들의 인생을 모방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최고로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 세상에서는 양심적이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며 잘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사기 치고도 끝까지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이 잡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돈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잡히더라도 몇 년 감옥살이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징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에 담대합니다.

1) 동두천경찰서는 2015년 2월 25일 보험 상품 14개에 가입해 장기간 병원에 허위 입원한 뒤 수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씨(56·여)와 아들 L씨(35) 등 3명의 가족 보험사기단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2014년 7월까지 동두천 지역 소규모 병원 7개를 옮겨 다니며 1인당 570여 일씩 총 1천 718일간 허위·반복 입원해 보험사들로부터

총 3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입원한 이후에도 자주 외출을 하고 물리치료만 받았다.

2) 과다 입원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 중에는 103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4년 넘게 환자 행세를 하며 7억4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일가족도 포함됐다. A가족 4명은 총 103개의 보험에 가입해 질병 입원 시 최대 57만 원의 보험금(상해시 최대 51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후 2010년 5월부터 4년여 간 총 1천542일간 입원해 16개 보험회사로부터 7억4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3) 경기 양평경찰서는 2015년 3월 2일 경미한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6년간 8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B(58·여)씨 등 가족과 친척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보험사 10곳의 67개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3533일을 필요 이상으로 입원해 모두 8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두 아들과 남동생, 여동생, 조카 등 가족들과 B씨의 옛 동거남도 포함됐다. 그중 한 사람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18일을 입원, 연평균 170일가량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행위는 악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를 따르면 그도 함께 사악한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악한 자들이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항상 쫓기는 신세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잠 28:1). 도둑이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범죄자들은 경찰제복만 보아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

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롬 2:4)?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인간들이 범죄하는 즉시 심판하신다면 이미 오래 전에 이 땅에 인간의 씨가 말랐을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부터 범죄하였으므로 아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온갖 범죄에 대하여 즉시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집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죄와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크시므로 심판을 행하실 리가 없고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고 합니다. 심판하시고 지옥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분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심판할 능력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정죄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고 예수님께서 구태여 우리의 죄가 되실 필요가 없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하고 정해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히 9:27).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은 인생을 왜곡하는 것이며 잘못된 판단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25. 잘되는 사람 8:12~14

12 “비록 죄인이 백 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되리라.

13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되지 못하며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 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4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며 또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내가 이것도 헛되다고 말하였노라.”

1912년 4월 14일 당시 가장 크고 최고의 기술로 만든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 호가 영국에서 뉴욕으로 향해하던 중 배의 오른 쪽이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여객과 승무원 2223명 중 1513명이 사망한 최악의 해상사고였습니다. 빙산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큼니다. 빙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타이타닉호의 운명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인생을 판단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사악한 자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부자로 살고 건강하며 재앙이 없고 형통하며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평안히 죽습니다(시 73:3~12).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사악한 자들의 모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33세라는 한창 나이에 십자

가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사악한 자들은 가장 복 있는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악한 자들의 죽음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셨고 감옥에도 가지 못하셨으며 죽임을 당하실 때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셨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사악한 자를 조문하려는 사람은 수백만 명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는 손가락으로도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사악한 자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모두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며 영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멸망하여 지옥에 갇습니다(시 73:18, 눅 16:23).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까지 합쳐서 볼 때 사악한 자와 예수님의 결말은 너무도 다릅니다. 인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좌우됩니다.

앞의 9~11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한해서 인생을 판단한 것입니다. 12~14절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생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잘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잘되는지 아닌지는 사후(死後)의 일이므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뒷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잘나가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나? 그들의 씨

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도다.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황소는 새끼를 낳되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암소는 새끼를 낳되 유산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린 것들을 양 떼처럼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도다. 그들은 작은 복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기뻐하며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느니라”(욥 21:7~13). 그러나 그가 무덤으로 내려간 뒤가 문제였습니다.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악한 자의 계약은 내게서 매우 멀리 있도다.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사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도다. 그들은 바람 앞의 지푸라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거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불법을 그의 자녀들을 위해 쌓아 두시며 그분께서 그에게 보응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리라. 그가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고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리라”(욥 21:16~20). 인생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으며 멸망에 던져집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악한 자가 의로운 자보다 잘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악하므로 의로운 자보다 악한 자가 살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뇌물을 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여 의로운 자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악한 자에 대한 법의 징계가 있지만 모든 악인이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에 한해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의가 넘치는 곳이 아니므로 의로운 자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악한 자에게 일어나고 악한 자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의로운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

해서 넘어집니다. 욥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 하는 자였지만(욥 1:1) 그에게는 어떤 악한 자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욥의 그 많던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와 자신의 건강을 순식간에 모두 잃었습니다. 이 일들은 욥 자신도 그의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반대로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되고 그의 날들에 악에 대한 어떤 심판도 집행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의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지 그것이 그가 잘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세상에서 최상류층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모두가졌습니다. 그녀는 지위, 재산, 지적 예술적 수준, 외모, 인기, 건강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최고가 아니면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삶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영원히 귀부인이 되리라, 하고는 이 일들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며 그것의 마지막 끝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사 47:7,8).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쫓깁니다. 그들은 고급 침대에 누웠어도 잠을 달게 잘 수 없습니다. 가장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맛

을 모릅니다. 많이 가졌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넓은 집에 살며 그의 날들이 길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멀리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라도 잠을 달게 잘 수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되는 자들입니다.

사악한 자는 그의 날들이 길지 못하며 그 날들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사람이 천년을 산다 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날들은 잃어버린 날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세상에서는 큰 부자로 호화롭게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죽고 나니 과거의 영화는 그 날들이 지극히 짧은 한 순간에 불과하였고 그의 앞에는 영원한 고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부러워하겠지만 그의 결말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그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잘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미천한 사람이 왕으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의 왕국은 40년으로 끝났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 날들이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재위 기간은 사울과 같은 40년이었지만 그의 왕국과 왕좌는 영원합니다.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배 속에서 나올 자 곧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세우고 그

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공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삼하 7:12~16). 이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그의 형통함이 영원해야 합니다. 사울의 왕좌는 40년으로 끝났으나 다윗의 왕좌와 왕국은 영원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악을 행한 왕들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의 왕좌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여호람이 악을 행하였지만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다윗의 왕좌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아합의 집이 행한 것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주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으로 인하여 유다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왕하 8:18,19).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왕상 15:1~5). 다윗의 왕좌가 바빌론의 포로 때부터 지금까지 약 2500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주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왕좌와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잘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인생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들의 날들이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5~9

5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6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8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9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앞의 요한계시록 19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21절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12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13 또 그분께서 피에 담긴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14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15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16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18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20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

21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6. 사람이 알아낼 수 없는 일들 8:16,17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서 지혜를 알고자 하였으며 또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였나니 (이는 낮이나 밤이나 자기 눈으로 잠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기 때문이라.)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으니 이는 사람이 수고하여 그것을 찾아내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 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일을 겪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대부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자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문해보지만 답을 얻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있었고 지금도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3천 년 전 솔로몬의 때보다 과학, 학문, 지식이 훨씬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하여 일식이나 월식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며 또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후에 있을 일식이나 월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나 이유를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지만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마 16:3)

왜 내게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누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일들은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떤 일들은 너무도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일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주변에도 그런 일로 인하여 며칠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이유를 속 시원히 대답을 찾지만 찾아내지 못합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게 하지만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진실입니다. 사람이 앞날에 대하여 51%의 확률만 있다면 그는 월가에서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앞날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눈앞에 일어난 부분적인 일만 알 수 있을 뿐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사 55:8,9). 믿음이 있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한 달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시자, 모세는 이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 달간이나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은 걷는 남자가 육십만 명이온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내내 먹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들을 위해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족하오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그들에게 족하오리이까? 하매”(민 11:21,22).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며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를 찾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

하지 않을 것이고 감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실 선포자도 우리처럼 궁금하여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지만(16절)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욥

욥에게 일어난 일들은 말 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욥은 동쪽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7남 3녀의 자식과 많은 종들과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축들이 매우 많으므로 양떼는 양떼대로 낙타는 낙타대로 나귀들은 나귀들대로 따로 나누어서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욥의 종들을 죽이고 소들과 나귀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욥의 양들과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낙타들을 끌어가버렸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큰 아들 집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집의 네 모퉁이를 큰 바람이 치므로 무너져 열 명의 자식들을 한꺼번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그 소식들을 듣고 일어나 겹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욥 1:21). 그러나 욥의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마저 빼앗겼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욥에게 일어났는지 그의 아내, 그의 친구들, 욥 자신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의 세 친구들이 나뵈므로 이유를 짚어보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문제였

습니다. 제3자인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뿐, 만일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이고 영구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야곱

장남으로 태어나야 장자권을 갖지만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첫째로 태어난 에서에는 장자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고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장자권이 왜 관심 없는 에서에게 주어졌는가? 장자권을 갖고 싶어 하는 야곱은 왜 둘째로 태어났는가? 우리로서는 이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팔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내가 먹게 하면 그것을 먹고 그에게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왜 똑같은 쌍둥인데 에서에게만 축복하겠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에서의 얼굴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7년을 일하면 작은 딸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7년이 되자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큰 딸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또한 야곱의 품삷을 열 번이나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야곱은 왜 이런 사람을 그의 인생에서 만나야 했을까?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의하여 더럽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들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였지만 심한 기근이 들어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내게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4년 12월 25일 인도네시아 쓰나미 발생

수십만 명이 사망한 그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 앉아 한탄합니다. “신이시여 왜 나는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며 자신이 죽지 않은 것을 원망합니다. 이 재앙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재앙이 왜 그들에게 일어나야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제의 식민지배를 36년이나 받아야 했는지, 6.25는 왜 일어났는지, 왜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가 되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으르렁 거리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와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중에는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들보다는 불행하고 슬프고 분노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모든 재산을 잃는다거나 가족을 잃는다거나 전쟁이나 불의의 재난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와 우리를 둘러싸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욕을 시험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고 야곱이 만났던 일들도 야곱의 교활함을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쓰나미라는 큰 재앙도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에 당하는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야 그 뜻을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바꾸

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한 목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도 선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방법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모르는 일을 붙잡고 고민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해주지 않으십니다. 나중에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쁜 일도 감사하고 괴롭고 불행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감사하고 못해도 감사합니다.

취업을 해도 감사하고 못해도 감사합니다.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결국은 감사할 일이 됩니다.

27. 도토리 키 재기 9:1~3

1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이 모든 것 즉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였노라.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 수 없느니라.

2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니 곧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선한 자와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희생물을 드리는 자와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여 선한 자가 어떠한가같이 죄인도 그러하며 맹세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와 같으니라.

3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8:17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행하는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파라오가 강박하였던 것도 이스라엘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것도 광야에서 물과 빵을 예비하지 않은 것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은 것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잡혀간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귀환하도록 칙령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스 1:1~4).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마 26:69~75)

의로운 자나 지혜로운 자도 사람은 자신 앞에 일어나는 일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어떤 사람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꼭 해외여행을 하고 싶었으나 형편이 허락지 않아 오래 동안 미루다가 드디어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도 예약을 했습니다. 10명의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한다는 부푼 꿈을 안고 시간에 맞춰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예약한 비행기가 이미 2시간 전에 출발해버렸다면?

-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다면?
- 사람이 장애자로 태어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장애가 심하여 아무 일을 할 수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가정을 이룰 수도 없다면?
- 수십억 원의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면?
- 운동을 하다가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면?
-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면? 사랑인가? 미움인가?

솔직한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든 일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일이 내 손 안에 있다면 사람이 내일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 손 안에 있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은 사람이 움켜쥔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약 4:13~15). 내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관심사이지만 인간이 내일을 안다면 인간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모두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고 오늘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을 안다면 그 내일 때문에 오늘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성공할 것이라면 오늘 일하지 않아도 내일이면 성공할 것이므로 오늘 일하지 않을

것이고 내일 실패할 것이라면 오늘 일해도 내일 실패할 것이므로 오늘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고 싶어 하지만 내일 일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죽은 사무엘을 통해 내일 일을 알았으나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삼상 28:19).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일을 사람의 손 안에 쥐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손 안에 두셨습니다.

1) 2014년 12월 28일 말레이시아의 항공사 에어아시아 소속 QZ8501편 실종, 12월 30일 사고 확인, 승객과 승무원 162명 전원 사망.

실종된 에어아시아 QZ8501편은 출발시간이 당초보다 2시간 앞당겨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기 표를 구매한 이들에겐 이메일과 전화로 시간이 변경됐다는 통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푸트로 카효노(33) 가족은 이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7개월 된 아기를 포함한 카효노의 가족 10명은 QZ8501편을 타고 싱가포르에 갈 계획이었지만 일요일 아침 카효노의 가족이 주안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족과 연말연시를 함께 보낼 계획이었던 카효노는 비행기를 놓치고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부터 미루고 미뤄왔던 싱가포르 행 가족여행이 시작부터 빼앗겨렸기 때문입니다. 카효노는 새 비행기 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원래 타려던 비행기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비행기의 실종 소식을 전해들은 카효노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사고 비행기에 탔다면 온 가족을 잃을 뻔 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항공사측은 카효노 가족에

게 싱가포르로 가는 다음 항공편 좌석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기적처럼 사고를 피한 카효노 가족은 여행 계획을 아예 취소하고 집에서 조용히 새해를 맞기로 했습니다. [출처] 조선닷컴

2) “이홍 머리방”의 주인공이었던 이호영 씨. 1995년 1500명 이상이 손님으로 참석하는 대규모 헤어 쇼를 삼풍백화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쇼 2개월 전 형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숨져 장례와 뒷일을 처리하느라 그 쇼를 취소했습니다. 쇼가 취소된 행사 예정일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3) 소위 ‘지존파’라는 살인마들을 잡은 베테랑 형사 고병천 씨. 누가 그에게 커피를 마시러 삼풍백화점 5층 커피숍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 말고 앞에 지하다방 있으니 그리로 오라고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가 커피 마시고 나오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502명 사망, 6명 실종, 93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4) 복권 당첨은 대단한 행운입니다.

◇ 179억원 생기자 청부 살인의 위험까지

198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복권에 당첨돼 1620만 달러(약 179억원)를 받은 윌리엄 버드 포스트는 1년 만에 복권 당첨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여자 친구는 그의 당첨금을 뜯어내기 위해 소송을 걸었으며 남동생은 그의 유산을 노리고 청부 살인까지 고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적이 된 것입니다. 이후 가족 사업에 투자한 돈을 모두 잃고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빚에 허덕였습니다. 요금징수원을 향해 총을 발사해 감옥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는 현재 매달 약 50만원의 수입과 무료 급식으로 근근이 살아
가고 있습니다.

◇ 혼외자식 그리고 독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의사 남편과 함께 살던 이비 론카로리는 1991년
복권에 당첨돼 500만 달러(약 55억원)를 받게 됐습니다. 이비는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식에게 200만 달러를 넘겨줬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
게 알게 된 남편 조셉 론카로리는 이비에게 진통제를 먹여 살해했습니다.

◇ 7년 만에 110억 탕진

캐나다의 제럴드 무스웨진은 1000만 달러(약 110억원)의 당첨금을 단 7
년 만에 음주와 파티로 모두 날리고 2005년 부모의 집에서 목을 매 숨졌습
니다.

◇ 너무 빨리 찾아온 인생의 행운

2003년 190만 파운드(약 32억원)에 당첨된 16살 영국 소녀 칼리 로저는
이 돈을 모두 파티와 여행, 친구들을 위한 선물 구매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현재 파산 상태이며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림의 떡’ 이 돼버린 당첨금

500만 달러(약 55억원)의 상금에 당첨됐지만 복권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부부도 있습니다. 남편 마틴 도트는 당시 한 언론과
의 인터뷰에서 “(이런 경험은)사람에게서 삶을 빼앗고 결혼생활의 불행을
초래한다. 가장 잔인한 고문”이라며 “이제는 직장에 일을 가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면 ‘사랑’으로, 나쁜 일이라면 ‘미움’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빌 1:29)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일이 있는데 죽음입니다.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8:14 참조). 의인이나 선한 자나 정결한 자나 맹세하는 자는 사악한 자나 부정한 자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보다 오래 살거나 건강하게 살거나 형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악한 것이며 모든 인생을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비싼 고급 양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그를 보고 막걸리 마시고 취했다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취하는 데는 비싼 고급 양주나 싼 막걸리나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최고급 롤렉스나 만원짜리 시계나 같습니다. 롤렉스라고 해서 더 정확하거나 시간을 더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비싼 인생을 살아도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에게 악한 것입니다. 죽음이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는 다양한 인생을 삽니다. 사는 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부자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끼니를 걱정하며 삽니다. 그러나 죽음은 큰 부자로 산 사람이나 가난

하게 산 사람이나 같게 만듭니다. 죽음을 통해 인생을 본다면 누구도 특별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흙으로 샌드위치 된 인생은 흙 판넬 사이에 아무리 대단한 것을 채워도 흙 판넬일 뿐입니다. 욥은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고 말합니다(욥 1:21). 중국 천하를 통일하여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고 화려한 아방궁을 지었지만 그도 벌거숭이로 갔습니다. 그가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털끝만큼의 권력이나 재물도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보물을 가졌어도 벌거숭이로 가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벌거숭이로 가고,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져도 벌거숭이로 갑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벌거벗은 채 가게 만듭니다. 사람은 특별하고 대단하고 멋진 인생을 원하나 죽음은 인생을 헛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죽음은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어떻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같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선포자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최고의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죽음이 헛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악합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악한 현실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만일 당신의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라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3천 년 전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입증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으려면 해 아래 있는 것들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고 영원합니다.

28. 살아 있다는 것 9:4~10

4 “살아 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5 살아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기 때문이로다.

6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7 네 길로 가서 기쁨으로 네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즙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8 네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이다.

9 네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네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 삶 속에서, 네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네가 받을 몫이니라.

10 무엇이든지 네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네 힘으로 그것을 하라. 네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세상을 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마 16:26)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4~6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소망은 사람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소망은 살아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무기력하게 되고 빨리 늙고 빨리 죽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많은 이유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욕도 죽기를 갈망했습니다. “아 내가 요청하는 것을 내가 받고 내가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구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자신의 손을 놓으시고 나를 끊어 버리시면 좋겠구나! 그리하면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참으로 슬픔 속에서도 내 자신을 단단하게 하리로다.”(욥 6:8~10)

소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개는 어리석고(잠 26:11) 불결하며(벧후 2:22) 비천합니다(삼상 17:43, 삼하 3:8). 반면에 사자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잠 30:30) 백수의 왕입니다(사 31:4). 그러나 사자의 엄청난 위력도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왕이 살았을 때는 감히 왕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허락 없이 왕에게 접근했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왕궁에는 귀한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보물들을 훔치려고 왕궁에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입니다. 경비가 아주 삼엄합니다. 왕이 살아서는 천하를 통일하고 호령하는 엄청난 위업을 달성하고 큰 권력을 가졌어도 죽고 나면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무덤에 가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욕해도 그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왕들이 죽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무덤을 크게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보물들을 묻어둡니다. 하지

만 도굴꾼들이 죽은 왕이 두려워서 도굴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왕이 살았을 때는 그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 수 없었지만 죽어서는 모욕을 당해도 자신을 방어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을 것을 안다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람들은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을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죽을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을 것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대비할 수 있지만 죽을 것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이 불어옵니다. 사람들은 여름이면 태풍이 올 것을 알고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무엇을 하던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그리하여야 태풍이 불어왔을 때 피해를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올 것을 전혀 몰랐고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면 태풍이 왔을 때 피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쓰나미가 올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2004년). 쓰나미가 올 것을 알았다면 인명피해가 없었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이나 칠레는 지진이 잦은 나라입니다. 2010년 2월 27일 지진에 대비한 칠레에 진도 8.8이라는 강력한 지진이 있었지만 피해 규모에서 아이티와 많은 비교가 되었습니다. 아이티보다 훨씬 강력한 지진이었음에도 피해는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칠레의 남다른 건축물 내진설계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진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건물이 사람을 죽이는 것’임을 지진을 자주 경험해

온 칠레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왔을 때 침착한 대응과 신속한 피신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견뎌주는 것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지진이 있을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잦은 지진은 지진 대비가 절실히 함을 알게 해줍니다. 큰 지진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라도 반드시 닥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대비는 절실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나 지진이나 죽음이 올 것을 알고도 그에 대해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대비한 사람은 파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아무 대비 없이 죽음을 맞는 사람은 파멸을 피할 수 없고 다시는 죽음을 대비할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없지만 죽을 것을 아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는 죽음을 대비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것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대비하여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을 안다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을 확실하게 대비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요 11:25,26).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살아 있는 자에게는 보상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살아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딤후 4:1~5).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 앞에서 받을 보상에 대해 언급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冠)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딤후 4:7,8)

보상의 기회는 살아 있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살아 있는 자는 그가 아무리 많은 죄들을 지었다 해도 자기의 죄들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양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그분을 위해 산다면 보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요 강도였습니다. 한 사형수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옆에 계신 주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긍휼을 구하였더니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

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2,43). 그에게 남은 시간은 극히 짧았지만 그가 살아 있었기에 주님께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곁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은 몇 시간 후면 자신의 인생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아주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던 부자는 건강하며 행동하였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음 따위는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죽음은 찾아왔고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지만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눅 16:19이하). 사람이 살았을 때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죽음은 인생에게서 모든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 받았다가 15년 연장을 허락받은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38:9~19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기록한 글이라. 내 날들이 끊어지는 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무덤의 문들로 가리니 내가 내 헛수의 남은 날들을 빼앗겼노라, 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주를 뵈지 못하리니 산 자들의 땅에서 주를 뵈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주민들과 더불어 다시는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 시대가 떠나서 목자의 장막같이 나를 떠나 이동하였고 내가 베 짜는 자같이 내 생명을 끊었도다. 그분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병으로 끊으시리니 낮부터 밤사이 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생각하였거니와 그분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시고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나는 학이나 제비같이 지저귀고 비둘기같이 애곡하였으며 내 눈은 위를 바라보며 쇠하는도다. 오 주여, 내가 억눌렸사오니 나를 위하여 처리하소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헛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로다. 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의 생명도 이 모든 일들에 있사온즉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 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지 못하되 살아 있는 자 곧 살아 있는 자는 이 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터이며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리리이다.”

죽은 자는 모두로부터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욥기 14:10~12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물이 바다에서 없어지고 홍수가 줄어들어 마름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그들이 잠에서 깨지 못하며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죽으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사라지고 해 아래에서 그가 무엇을 하여 차지할 몫이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있는 사람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7~10절

“네 길로 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네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즙을 마시라.”

“네 옷을 항상 희게 하고” (악이나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입니다.)

“네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향유는 재와 반대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비극이나 비참한 일이 닥치면 재를 머리에 뒤집어씁니다.(삼하 13:19, 에 4:1)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무엇이든 네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네 힘으로 그것을 하라.” (행복은 놀고 먹는 것이나 많은 재물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힘써 일하는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 3:19)

쉽게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쓸 것이 있고 언제나 즐거운 상태로 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뇌물이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으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힘이 없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몫입니다. 전도서 5:18,19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 아래에서 이보다 더 나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 해도 인생이 헛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시기

도 보상도 기억하는 일도 받을 몫도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는 죽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선포자는 해 아래의 날들을 ‘헛된 날’이라고 말합니다. “네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네게 주신 해 아래에서 네 모든 헛된 날에”(9). 해 아래에서의 모든 행위도 헛됩니다(1:2,3). 인생이 해 아래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삶도 죽음 앞에서는 헛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무엇을 더 구해야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선포자는 그 해답을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 제시합니다. 짐승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나 사람은 헛되지 않은 인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살아 있는 자와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자는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죽은 자 또한 산 자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한 제사, 49재, 천도제, 기도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사랑, 미움, 시기, 보상, 몫, 일, 계획, 지식, 지혜가 없으므로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며 죽으면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주장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선포자는 해 아래 즉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의 모든 소망을 헛되게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자는 죽으면 심판도 지옥도 없다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선포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 청년이여, 네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네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전 11:9).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면 영혼이 없어진다고 하는 말은 거짓

입니다. 죽으면 살았을 때 그가 행한 것에 따른 심판이 있고 죄인에게는 캄캄한 어둠과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선포자가 죽음이 인생을 헛되게 하는 것을 말하지만 심판이 없다거나 지옥이 없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29. 계획대로 되지 않다 9:11,12

(인간의 한계)

11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12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초등학교 때 한 권으로 된 삼국지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에서부터 황건적의 발호, 황실을 유린하는 동탁, 유비가 공명을 얻기 위한 삼고초려, 유비가 공명을 얻음으로 비약을 위한 날개를 달니다. 제갈공명과 관우 장비 황충 마초 조자룡 같은 뛰어난 장수들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이 후반으로 가자 재미가 없고 허무했습니다. 촉나라의 오른팔인 관우가 오나라의 여몽에게 죽습니다. 술에 취한 장비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한 황실의 정통성을 가진 유비도 천하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생의 허무를 느꼈습니다. 역사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관우 장비가 그토록 쉽게 죽는 것이 내내 아쉬웠습니다. 촉나라에는 이제 제갈공명의 손발이 되어줄 인재가 없었습니다. 촉을 유일하게 지탱해주던 제갈공명도 천하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

습니다. 관우 장비 유비 제갈공명의 죽음을 보며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들이 너무 쉽게 죽는다는 것이 충격이었고 그때 인생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달리기에서 우승은 빠른 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경주하는 사람은 빨리 달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매일 스피드와 체력 훈련을 합니다. 전투에서는 강한 자가 이깁니다. 1894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녹두장군 전봉준의 지휘로 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동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혁명군이 2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에서는 동학혁명을 진압할 힘이 없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를 끌어들였습니다. 동학군이 가진 무기는 고작 낫, 쇠스랑, 삽, 몽둥이에 불과했습니다. 신식 일본군대는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에 있어서는 동학군이 훨씬 많았으나 무기와 훈련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전투가 아니라 일본군의 동학군에 대한 일방적인 살육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하고 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일제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승리가 강한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강한 자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빵을 얻고 명철한 자가 재물을 얻으며 재능 있는 자가 호의를 얻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면 각 종목의 예상 금메달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적들을 종합해서 이번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예상을 빗나갑니다.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 경기는 스타들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예상 금

메달 후보자들이 우승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주가 항상 빠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대구에서 세계선수권 육상경기가 열렸을 때 100미터 달리기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사인볼트가 출발에서 실격함으로 뛰지 못했습니다. 경주가 항상 빠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도 일반적으로는 힘센 자가 이기지만 항상 힘센 자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일본 해군은 우리 조선의 해군을 압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해군이 조선 해군을 이겼으나 일본 해군은 이순신의 조선 해군에게 연전연패했습니다.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합병하고 영구지배하려 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함으로 식민 지배를 끝내야 했습니다. 6.25전쟁도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괴군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으나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3천 년 전에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계획을 세웁니다. 국가는 목표 성장계획을 세우고 그 성장한 결과에서 생기는 돈으로 어떻게 쓸 것이라고 청사진을 만듭니다. 개인도 계획을 세웁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가정을 이루고 멋진 차를 사고 공기 좋고 산수 좋은 곳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리라. 그러나 계획일 뿐입니다.

한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해 농사는 특히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만족하여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 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 두고 또 내 혼에게 말

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눅 12:17~19). 그러나 여러 해 동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는 그의 계획은 그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곳에서 변수가 발생합니다. 계획을 세운 그날에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눅 12:20)

독일의 히틀러는 오래 전부터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을 손아귀에 넣기만 하면 거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독일을 최 일류 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지휘관들이 반대하였지만 히틀러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2차대전 때 날이 따뜻해지자 70만의 독일군대로 소련을 침공하게 했습니다. 독일의 우수한 진격부대가 소련군을 초기에 괴멸시키기만 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이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면 광활한 땅에서 독일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소련군이 158개 사단이고 독일군이 145개 사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8개 사단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처음에는 히틀러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군이 연일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히틀러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군이 소련군 10개 사단을 괴멸시키면 소련군은 바로 그날 10개 사단을 채웠습니다. 독일군이 모스크바로 진격할 때는 겨울이 다가왔고 독일이 싸워야 하는 적은 소련군이 아니라 눈과 추위였습니다. 결국 독일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소련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거위를 키워서 알을 낳으면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또 거위를 사서 키워 알을 낳

으면 더 많은 알을 팔아서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거위를 사고 더 많은 알을 팔고 더 많은 거위를 키워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 부자로 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거위를 살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왜 아침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매우 간교하며 높은 지위와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이용해 아주 크고 대단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사 14:13,14).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의 원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대신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15). 세상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잠 19:21).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 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잠 16:9). 계획과 경영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는 일치하지만(민 23:19, 삼상 15:29, 딤후 1:2) 피조물에게는 전혀 별개입니다. 사람은 계획만 세울 수 있을 뿐 그 계획의 경영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계획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상인들이 돈을 벌기 좋은 도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돈을 벌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일 년 동안 장사를 하여 돈을 모으는 계획입니다(약 4:13). 자유 민주 국가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는 도시에 갈 수 있고 원하는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 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일 년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연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어진 세월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의 것으로 소유권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시간을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약 4:13). 사람이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권리행사를 하고자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약 4:14~16)

우리는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의 계획대로 된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먹고 먹히고 모든 질서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6.25때 김일성에게 먹혔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일본에게 완전히 먹혔을 것이고 지금은 김정은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북한에게 무력통일 되었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은 마귀와 죄에게 영원히 종노릇할 것입니다. IS(이슬람국가)는 자기들 빼고 다른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일 것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죽였을 것

이고 세계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복권하는 모든 사람들이 1등 했을 것이고 은행들은 그 돈을 전부 자기 돈으로 삼고자 계획하는 사람들에 의해 돈이 한 톨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된다면 기고만장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계획권만 주시고 경영권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때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전달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1:30~32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86년 서울 아시안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임춘애 선수가 여자 800미터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땀습니다. 800미터는 임춘애 선수의 주종목도 아니고 그때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의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이 중국 선수보다 10초 이상 뒤지는 기록이었므로 800미터 종목은 아예 출전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임춘애 선수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800미터는 출전하려했던 종목이 아니다보니 전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 뛰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임춘애 선수가 2등으로 골인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1등으로 달렸던 인도의 우샤 선수가 라인을 살짝 넘은 것이 확인돼 임춘애 선수가 금메달을 받

았습니다. 전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춘애 선수는 주종목인 1500미터, 3000미터에서도 금메달을 따 3관왕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형통과 역경을 마주보게 두셨습니다(7:14). 그래서 사람은 자기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모르므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이 사람도 재난의 때에 올무에 걸립니다. 사탄이 욥에게 재난의 덫을 놓았지만 욥은 자신에게 재난의 덫이 놓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재난을 당할 때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됩니다.

사람은 대단하거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닥칠 재난도 알지 못합니다. 재난의 때를 알지 못하고 올무에 걸리는 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은 오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재난을 원치 않지만 재난의 올무에 걸리면 자신은 재난의 때를 알 수 없는 인생임을 시인하십시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창조주를 찾게 됩니다.

30. 속물 인간들 9:13~18

13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이 지혜를 보았는데 그것이 내게는 크게 보였노라.

14 조그만 도시 곧 안에 사람이 많지 않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치려고 위대한 왕이 와서 그것을 포위하고 큰 보루를 쌓아 그것을 치고자 하였으나

15 이제 그 안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그가 자기 지혜로 그 도시를 건졌도다. 그럼에도 아무도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16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을지라도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7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의 외침보다 조용히 더 잘 들리느니라.

18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면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두고두고 반복합니다. 그러나 지어낸 이야기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선포자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7:19, 9:13절 이하). 이것은 솔로몬이 지어냈거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포자는 위대한 왕을 상대로 한 가난한 지혜자가 큰 지혜로 작은 도시를 구해내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사건의 전말을 다 보았습니다. 선포자에게 그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충격이

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도시 곧 안에 사람이 많지 않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치려고 위대한 왕이 와서 그것을 포위하고 큰 보루를 쌓아 그것을 치고자 하였으나” 14절

사람이 많지 않은 한 조그마한 도시가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위대한 왕의 침략을 받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는 조그마한 도시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남녀노소 다해서 수백 명, 많아야 수천 명일 것입니다(삿 1:25,26 참조). 위대한 왕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3천년 전이라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위대한 왕이 군대를 동원했다면 적어도 수만 명이고 아니면 수십만 명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위대한 왕이므로 그는 수많은 정복전쟁을 치룬 백전의 용사일 것입니다. 그는 지략에 있어서도 어리석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아는 왕입니다. 위대한 왕은 그 도시가 항복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 도시를 어떻게 해야 정복할 수 있는가를 알고 그 작은 도시를 공격하기 위한 큰 보루를 쌓게 합니다. 보루를 쌓는 것으로 보건데 그 작은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가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의 잘 훈련된 군대를 상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누가 보아도 그 작은 도시가 정복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그 도시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습니다. 이제 아주 강한 바람이 등불을 향해 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그가 자기 지혜로 그 도시를 건졌도다.” 15a

큰 힘을 가진 왕이 힘없는 작은 도시를 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 작은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그 위대한 왕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큰 위험에 빠졌음을 알았지만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의 등불이 꺼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멸망은 단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도시가 위대한 왕의 공격으로부터 그 도시를 지켜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그 도시의 한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가 지혜로 도시를 파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을 놀라게 한 지혜였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도시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잠 8:11). 그 작은 도시를 위대한 왕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낸 그 지혜자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에도 아무도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을지라도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5b,16절

사람이 도시나 나라를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큰 공을 세우면 그를 위해 크게 잔치를 베풀고 그에게 많은 포상금을 주고 그를 특진시킵니다. 사사기에서는 재판관들이 공을 세웠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아마 그 도시도 그의 지혜를 크게 칭찬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가난한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돈과 집을 마련해주어 그의 평생을 보장했을 것이며 그 도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도시들에서 그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 물려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하는 최고의 스타강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되고 선포자는 그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난한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 사람들은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가난한 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도시가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선포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을지라도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가 힘보다 나을지라도” 16절

많은 면에서 지혜가 힘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지혜가 돈, 권력, 성공, 인기보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재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지혜보다 낫고, 권력이 지혜보다 낫고, 성공이 지혜보다 낫고, 인기가 지혜보다 낫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은 도시 안에 한 사람이 백 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센 용사 열 명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작은 도시가 위대한 왕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열 사람의 용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낸 것입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습니다. “지혜가 지혜로운 자를 도시 안에 있는 열 명의 용사보다 더 강하게 하느니라”(7:19). 지혜

는 금과 은보다도 낫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지혜를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큰 부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야 지혜를 살 수 있다면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합니다. 지혜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마 19:16~22절 참조)

* 지혜의 중요성

- 지혜의 가치는 어떤 보석보다 귀중합니다. 욥 28:12~19
- 지혜는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 2:2~5
- 행복의 조건들인 장수와 재물과 명예와 즐거움과 화평이 지혜안에 있습니다. 잠 3:13~18
- 땅의 기초가 하나님의 지혜로 놓였습니다.(잠 3:19)
-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잠 3:35
- 지혜를 얻고 그것을 사랑하면 지혜가 그를 보존하고 보호합니다. 잠 4:5,6
- 지혜는 으뜸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 잠 4:7~9
- 지혜는 낯선 여자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잠 7장
낯선 여자(창녀, 종교)는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 지혜는 금보다 낫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 잠 8:11, 잠 16:16
-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않는 왕보다 낫습니다. 전 4:13

‘지혜는 상속재산이나 열 명의 용사보다 낫습니다. 전 7:11,12,19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16절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대변에 그가 큰 지혜를 가졌음을 알았습니다(13). 솔로몬이 보기에 큰 지혜라면 정말 대단한 지혜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인구도 많지 않은 그 조그마한 도시에 이런 인재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 보기를 돌같이 했습니다. 걷다가 돌이 발에 걸리면 돌을 차버리지만 돌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멸시하였습니다. 저는 도시를 건져낸 그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았는가? 사람들이 자신들을 파멸에서 건져낸 자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고 멸시할 수 있는가? 혹시 그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가 자기들의 도시를 파멸에서 건져낸 것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선포자는 그가 큰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기에 그 가난한 사람에게 지혜가 전혀 없어서일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작은 도시에서는 이웃에 밥그릇과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압니다.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가정 형편도 알고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압니다. 작은 도시에서는 이웃의 고민과 문제까지도 다 압니다. 심지어 이웃의 말버릇과 습관과 특이한 행동까지도 다 압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치고 그 가난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 가난한 사람에 의하여 그들의 도시가 위대한 왕의 침략으로부터 구출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사람

들이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멸시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가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가 지혜는 많았으나 가난합니다. 마치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11)라는 말씀을 확증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며 지혜가 밥 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밥 먹여주는 것이라면 그가 가난을 벗기 위해 지혜로 많은 돈을 벌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별 볼일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며 생각하기를 “지혜도 별 볼일 없구나. 지혜가 있으면 뭘해?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라며 지혜를 멸시합니다. 그들은 지혜보다 돈과 권력을 중요시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크게 성장했다하면 그 신묘한 비법을 배우려고 유행처럼 번집니다. 그것의 교리가 성경적인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모두 돈과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풍조를 수천 년 전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년이 지났지만 인간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대학에서 취업 안되고 돈 안 되는 인문학은 사양길입니다. 사양길이라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고 사실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목은 수강하는 학생이 없어 자동 폐강합니다. 반대로 돈 되는 학과에는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합니다. 3천 년 전 솔로몬의 때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기준은 돈과 권력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를 존경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속물 인간들’ 이라고 붙인 이유입니다. 만일 그 지혜로운 자가 그의 지혜로 많은 돈을 벌었다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지혜를 배우려고 도시락을 싸들고 구름같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워렌버핏은 84세(2015년),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오마하라는 작은 시골에 살며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주주총회 때 얼굴을 보이고 그 외에는 늘 그 시골에 있습니다. 그는 해마다 한 번씩 그와 점심을 함께 할 사람을 찾습니다. 워렌버핏이 84세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점심을 함께 먹고 싶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원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는 없으므로 그와 함께 점심 식사 할 사람을 경매에 부칩니다. 지난해(2014년) 낙찰자는 싱가포르 사람으로 그와 함께 먹는 점심 식사비가 무려 22억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많은 돈을 들여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할까? 식사를 하면서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워렌버핏은 가치투자자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오마하의 현인’이라며 그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속물처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이 지혜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와 다른 평가 기준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가난한 자가 큰 지혜를 가진 것에 놀랐고 그의 지혜를 칭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나 전도서를 즐겨 읽는 이유가 우리와 같은 속물의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지혜보다 금과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의 책에서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그의 책을 읽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6절

사람들이 워렌버핏의 조언을 듣기 위해 그렇게 비싼 점심값을 지불하는 것은 그가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산은 약 80조원으로 미

국에서 2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 이진희 회장의 재산이 약 15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만일 워렌 버핏이 가난하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버핏이 자기 돈으로 점심을 사준다 해도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돈도 안되는데 그 노인의 뉘두리를 들으려 할까? 사람들이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의 말이 잘못되었거나 그에게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잠 14:20, 19:7). 가난한 자의 말을 들어도 부자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난하다는 것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어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도시가 커다란 위협에 처하였을 때는 지혜로 도시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할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지혜자가 금과 은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을 속일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알고 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멸시하고 그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진리이고 능력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가난한 지혜자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3년 동안 사셨으나 집이나 재산이 없었습니다(마 8:20). 본래는 매우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예수님께서서는 돈을 벌려고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돈을 벌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벌어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병든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소경, 문둥병자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다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로부터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돈을 탐내지 않으시므로 자신들을 속일 이유가 없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이 되지 않으므로 가난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컨대 로또 복권의 번호를 알려주신다든지 어떤 주식을 사야 오를 것이라는 등의 돈이 되는 것이었다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돈을 버는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기독교가 세상의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의 외침보다 조용히 더 잘 들리느니라.” 17절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는 좋은 전달매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자신의 정책들을 널리 홍보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내는 생각들은 각종 전달매체로 널리 알려지겠지만 이치에 맞지 않으며 그들의 말은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말들에 동의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

혜로운 자의 말들은 이치에 합당합니다. 그는 홍보수단이 없고 단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혜자의 말들은 이치에 합당하므로 강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말들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지만 지혜로운 자의 말들은 시간이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아주 적은 무리들만 들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2천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느니라.” 18절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작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많은 양의 물을 흐리게 합니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혔을 때 한 대가 갓길로 달립니다. 그러면 다른 차들도 따라서 갓길로 달립니다. 죄의 폐해는 엄청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균적으로 비그리스도인 보다 선한 삶을 삽니다.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전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에는 교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보니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의 90%가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복지의 주무부처 장관이 되면서 그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일부의 잘못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한 사람의 범죄자는 그 한 사람이 비난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잘못은 자신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믿는 그리스도와 전체 교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에서 한국인 한 사람의 추태는 우리나라 전체를 욕먹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속물들을 경멸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속물들 중의 한 사람이 아닌가!

31. 어리석음의 해악 10:1~7

1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2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3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에 그의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 그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4 만일 치리자의 영이 너를 치려고 일어나거든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내는 것을 진정시키느니라.

5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실수와 같은 것이라.

6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도다.

7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리석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음의 폐해는 개인이나 통치자나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개인에 대한 해악 1~4절

향유는 매우 비싼 귀중품입니다. 복음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한 병에 적어도 삼백 데나리온(300일치 품삯에 해당)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천만 단위의 가치입니다. 그토록 귀중한 향유를 아무 가치도 없는 죽은 몇 마리의 파리가 완전히 못쓰게 망친다면 매우 아깝습니다. 죽은 몇 마리 파리 때문에 귀중한 향유를 버렸다면 아마도 아까워서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향유는 아름다운 향기가 생명인데 몇 마리의 죽은 파리가 향유 병에 있어서 향유 냄새를 변하게 하면 향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완중 리스트로 시끄럽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도지사, 국회의원 등 여러 유력 인사들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죽으면서 그 이름들을 남긴 것으로 보아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당사자들은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시의 구체적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도지사, 국회의원 모두 높고 높은 자리입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뺏기게 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동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렴해야 하고 도덕성과 인품도 갖추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도 받아야 합니다. 총리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명예와 명성을 차근차근 쌓아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무총리가 성완중씨로부터 불법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것도 큰 금액이 아닌 3천만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와 명성을 모두 잃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한 순간의 어리석음이 지금까지 힘들여 쌓아왔던 모든 인생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3천억이나 300억도 아니고 3천만원에 명예와 명성을 모두 잃는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선거를 못 치른다거나 직원들 월급을 못 주

는 상황이라면 동정의 여지라도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작은 어리석음이 그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경남기업 회장 성완중씨는 정치와 사업을 연결시켜서 기업을 확장하고 키웠고 이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들과 유력인사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사업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은밀한 후원금은 모두 뇌물입니다. 뇌물은 일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순수한 후원금이라면 정당하게 내야 합니다. 성완중씨는 로비를 통해서 사업하는 것이 자신의 사업방법이었고 처세술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그가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지원금 300억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선포자는 3천년 전에 이미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었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3천만원 때문에 이 무슨 망신인가?

성완중씨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성완중씨 영정 사진을 보니 십자가 표시가 있기에 교회 다녔나 보다고 했는데 장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자살하기 하루 전 잘 아는 유명스님과 함께 점쟁이에게 점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을 압니다. 그가 방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그의 병이 나을 것인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알세불에게 물었으므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던 자기의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한나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

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매 엘리야가 떠나가니라.”(왕하 1:2~4)

성완중 씨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 그가 점쟁이에게 간 것으로 보아 모르긴 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오래 동안 교회에 다녔으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큰 기업의 회장이요 국회의원이었고 교회에서는 장로요 내로라하는 수많은 권력자들을 잘 알고 지냈으나 점쟁이에게 물었다는 한 가지 실수가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마치게 했습니다.

성완중씨가 만일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어찌되었을까?

그가 구명로비를 위하여 여기저기 전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의 잘못에 대해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잃고 사회적 지위도 잃고 그간 도움을 줬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 지금까지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전의 자신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썩을 것은 잃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 왔던 길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엄청난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조금 더하거나 덜하거나 정도의 차이지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성완중씨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면 우리가 침을 튀기며 그를 비난하

지만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요 8:7~11). 그런데 그가 잘못된 곳에 가서 물음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손에 있습니다. 2절

오른손은 능력, 구원, 의, 솜씨, 안전, 즐거움, 영광 등을 말합니다. 왼손은 그렇지 못합니다. 요셉은 시력이 먼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자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남 므낫세에게, 왼손이 에브라임에게 향하도록 앉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손을 바꿔서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형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손이 바뀌었음을 알려줍니다. 야곱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른손의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고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른손을 작은 손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으므로 작은 손자 에브라임을 큰 손자 므낫세보다 크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네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창 48:19,20). 사람의 솜씨가 오른손에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자기 솜씨를 잊을지로다.”(시 137:5)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양들을 오른쪽에 염소들을 왼쪽에 두셨습니다. 오른쪽의 양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왼쪽의 염소들에게는 저

주하십니다. 마 25:34,41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서는 오른손으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오른손으로 권능을 행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오른손에 의가 가득하시고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출 15:6)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11)

“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사 주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 주소서.”(시 17:7)

“오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대로 주를 찬양함도 땅 끝까지 이르나니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하나이다.”(시 48:10)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행 7:56)

사람의 오른손은 모든 일에 유용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오른손에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고통의 아들)라고 하자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으로 베냐민이라 하였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 야곱의 오른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능력과 솜씨가 오른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

히 사람의 마음이 오른손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오른손보다 왼손에 마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관심분야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있는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요 6:27).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갈 6:8)

어리석은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고 싶겠지만 감출 수 없습니다. 3절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어리석음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시 14:1) - 온통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둘러싸여 살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마치 손으로 해를 가리고 해는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시 92:6)
- 사망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낯선 여자를 따라갑니다.(잠 7장)
- 거짓말로 미움을 감추고 헐뜯는 말을 합니다.(잠 10:18)
- 해악을 오락으로 여깁니다.(잠 10:23)
- 잘못된 길인데도 자신의 눈에 옳은 길로 여깁니다.(잠 12:15)
-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합니다.(잠 15:5)
- 지혜에 마음을 두지 아니합니다.(잠 17:16)
- 그의 눈은 땅 끝에 있습니다.(잠 17:24) - 땅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

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것이며 자기 배가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멸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빌 3:18,19)

- 입이 가벼움으로 인해 자주 다투고 화를 부릅니다.(잠 18:6)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 물건을 강물에 빠뜨렸습니다. 나중에 그 물건을 찾기 위해 배에다 잃어버린 곳을 칼로 표시를 해둡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이론들을 만들었습니다. 생명체의 필수인 햇빛 물 공기는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해와 달과 별들이 대폭발(빅뱅)에 의해 생겨났다고 합니다. 대폭발 이전에 폭발할 무엇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폭발이 왜 생겼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폭발로 파편들이 우주에 마구 흩어졌다면 북쪽에 왜 빈 공간(욥 26:7)이 생겼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설명이 되지 않으므로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들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고는 자기 집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요일 2:21). 거짓말은 거짓말에서 나오고 진리는 진리에서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속에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오는 것이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빅뱅이론이나 진화론이나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티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입을 열지 않으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니라”(잠 17:28). 어리석은 사람이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잠하면 다른 사람은 그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잠잠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입을 열어 기어코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

내고야 맙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자신의 잘못이건 아니건 화가 난 상사로부터 인격적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4절

모욕을 당해도 참고 가만있을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나올 것인가? 사표를 쓰면 용기있어 보일지 몰라도 상사의 모욕에 화를 참지 못하고 사표를 낸다면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사표를 낼 것이 아니라 상사에게 굴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만일 여기서 화난다고 사표내고 다른 직장에 가면 그곳은 다를까? 그곳은 상사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기분을 맞추어줄까? 어디를 가도 자기 기분 맞추어줄 그런 상사는 없습니다. 그가 사장이 되거나 주인이 되면 부하직원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표를 낸다면 그는 어디에도 적응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사표를 내야 한다면 모욕을 당했다고 화가 났을 때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해결되었을 때 사표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교활한 라반 밑에서 20년을 견디었습니다.

요즘은 인격모독죄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격모독으로 법에 고소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 홍가혜라는 여자가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로 법정에 섰지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 비난 댓글을 단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격이 모독을 당했다고 천오백 명의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합의금으로 200~5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격이 모독을 당했는데 참으면 비굴하거나 바보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다윗은 왕이

지만 피난길에 시므이로부터 심한 말로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인격모독죄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삼하 16:7~13). 영원한 승리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술한 인격 모독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모욕하고 거짓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변명하지 않으셨고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벧전 2:23).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행 7:60)

그러나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것은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것인데 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신 32:35). 신약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롬 12:17).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치리자의 실수 5~7절

치리자가 어리석은 행위를 하면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왕의 실수는 한 나라가 피해를 당합니다. 지역의 통치자가 실수하면 그 지역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여 더 많은 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결과는 이스라

엘 전역에 3년 반 동안(약 5:17) 비가 내리지 않아 나라 전체가 심히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의 실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적의 기습공격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방심하는 경우입니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 북한은 위장 평화공세를 펼쳤습니다. 1950년 6월 7일 북한 방송은『평화적 조국통일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방 5주년을 기념해 8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남북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6월 15에서 17일 사이에 남북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해주 또는 개성에서 열자는 것입니다. 6월 10일에는 김일성이 북에 억류되어 있던 조만식 선생과 남한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남로당 지도자 김삼룡, 이주하를 교환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김창룡이 돌을 데리고 개성과 사리원 사이에 있는 여현에서 만나기로 하고 갔으나 약속 시간에 북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평화공세에 우리 국민들의 정신만 해이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기습적으로 침략해 왔습니다. 적은 남침을 위해서 소련에서 탱크와 전차를 지원받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북의 모든 전력을 38선으로 집중하고 D-day를 기다리고 있는데 적의 평화공세에 속은 우리는 천하태평이었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없는 군인들은 휴일을 맞아 많은 군인들이 휴가와 외박을 나가 있었습니다. 적의 위장전략에 속아 방심하다 당한 것입니다. 통치자와 주요 지휘관들의 실수는 커다란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통치자의 실수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6,7절

치리자 다윗 한 사람의 실수는 이스라엘 전체에 역병을 가져왔고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삼하 24:15).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바알 종교를 퍼뜨렸

습니다. 치리자 아합 한 사람의 실수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종교로 물들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우대정책에 따라 바알의 대언자들은 세상을 활보하고 주류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들을 피해 지하로 숨어야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마땅히 배척되어야 할 우상 숭배가 국가적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공산주의자 레닌과 마르크스는 가난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모든 노동자가 잘 사는 세상을 주장했습니다. 부유층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동자 계급혁명에 환호했고 노동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레닌의 공산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그 혁명으로 인해 부자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나고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노동자의 천국이 도래하여 모든 노동자가 잘 살고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자 계급이고 혁명을 주도한 극소수만이 특권을 누렸습니다. 부르조아 타도를 외치며 등장한 혁명 주체 세력이 부르조아 계층을 대신한 것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공산주의가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과거보다 더 못한 가난과 억압이었습니다. 1917년에 시작한 공산주의는 1991년 그들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는 징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세상을 활보하며 크게 됩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치리자와 가깝다는 이유로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치리자와 얼마나 가까우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아침과 뇌물이 극성을 부리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 시기의 대상이고 척결 대상이 되므로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쫓겨나고 온 세상이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합니다. 쿠데타

나 반란이 자주 일어나고 집권세력이 자주 바뀌며 사회가 혼란스럽고 건전한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종이 상전이 되고 부자가 종이 되는 급격한 사회 변화는 혼란을 가져옵니다. 남미의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아르헨티나는 1976년 쿠데타가 일어나 1983년까지 군인들이 집권했습니다. 결과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정권이 군에서 다시 민간으로 이양됐지만 연물가 상승률이 5000%나 되었습니다. 외채는 1975년 78억 달러에서 8년 후 1983년 450억 달러로 늘었고 다시 18년 후 2001년에는 13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외채는 천문학적으로 쌓이고 돈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실업은 늘고 빈곤층이 절반이나 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금은 없고 국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연일 시위하고 2주 사이에 대통령이 세 번 바뀌기도 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아르헨티나 경제는 회복하는 듯하나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2015년 4월). 칠리자의 실수가 가져온 악한 일입니다.

32. 어리석은 자 10:8~15

8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यो,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로다.

9 누구든지 돌들을 옮기는 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것ियो,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로다.

10 쇠가 무디어졌는데도 사람이 낱을 갈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거니와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11 뱀은 마술이 없으면 틀림없이 물리니 서투른 말쟁이도 이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12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를 삼키려 하나니

13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대화의 끝은 해를 끼치는 미친 것이로다.

14 또한 어리석은 자는 말도 많으니라.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나니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알려 주겠느냐?

15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는 그들 모두를 지치게 하나니 그는 어떻게 도시로 가는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선포자가 어리석은 일들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글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포자가 보여주는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들 8~10절

구덩이를 파는 일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빠뜨리기 위해 구덩이를 팝니다.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구덩이를 팝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내 혼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며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거기에 자기 그물을 숨겼나이다”(시 35:7). 이교도들이 주의 백성을 멸하기 위해 판 구덩이에 자신들이 빠졌습니다(시 9:15). 예레미야는 자신을 치려고 구덩이를 파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갇아달라고 기도합니다(렘 18:18~23). 시편기자는 말합니다.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파더니 자기가 만든 도랑에 빠졌도다”(시 7:15). 다른 사람을 빠지게 하려고 구덩이를 파서는 안됩니다.

다리오의 신하들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때에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삼십일 동안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단 6:4,7,8).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자 우리에 던져졌습니다.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 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이르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었더

라.”(24)

울타리를 허는 것

울타리는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서 5:5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의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에스겔서 13:5 “너희가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 중에 서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울타리를 치지도 아니하였느니라”(겔 22:30, 막 12:1 참조). 보호막 울타리를 허는 것은 상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보호할 울타리를 스스로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울타리입니다. 법 안에 있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총부리를 겨누고 대치한 상태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한 울타리입니다. 국가보안법 제정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대통령 때 했습니다. 보안법 제정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48년 4월 3일 제주 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 14연대에 1개 대대 출동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출동명령은 많은 장교들이 불순분자들에 의해 희생되고 반란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반란군이 순천 지서를 공격하여 순천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들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부대를 출동시켰으나 지휘관이 투항하거나 부대가 반란군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군에 남로당 지하조직원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남로당은 1946년 11월 23일 창당하여 미 군정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므로 우리정

부는 남로당의 해악에 대해 알아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군에 있는 남로당조직원들에 대한 숙군 작업을 합니다. 4749명을 숙군하고, 잡히기 전에 스스로 탈영한 조직원들이 5568명이나 되었습니다. 10,317명은 당시 군대의 10%였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남로당조직원들이 일망타진 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기 전 남로당 조직원들이 군 요소요소에 침투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다면 군 지휘관들은 조직원들에 의해 모두 제거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북한의 손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국가 보안법을 철폐하자는 사람들은 자신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으면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일 교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으면 자신이 그 지옥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은 지옥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울타리를 헐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무너진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돌들을 옮기는 자

돌들을 옮기는 것을 지계표를 옮기는 것으로(신 19:14, 27:17, 호 5:10)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돌들을 지계표로 보는 것은 이어지는 나무를 쪼개는 것의 위험과 너무 어색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돌들을 옮기는 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돌들을 옮기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성벽을 쌓거나 집을 짓거나 담을 만들거나 독이나 제방을 쌓거나 모두 돌

들을 옮겨야 하는 일들입니다. 돌들은 무거우므로 손에서 미끄러지거나 돌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들을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거운 돌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돌에 발등을 찍힐 수도 있고 손가락을 찍힐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쪼개는 자

시골에서 나무는 필수입니다. 겨울 내내 나무를 준비해야 일 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시골은 겨울에 나무하는 것이 큰일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쪼개본 사람은 그 위험을 압니다. 도끼로 힘껏 나무를 내리 찍었는데 빗맞으면 나무가 위로 튕 수도 있고 옆으로 튕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튀어서 벽에 부딪혔다가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도끼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도끼머리가 사람을 쳐서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신 19:5, 왕하 6:5). 어제도 그제도 안전하였으므로 오늘도 안전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험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항상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쇠가 무디어지는 것

천하장사 항우와 피보 조조는 누가 더 센가하고 내기를 합니다. 내기는 바위 위에 있는 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먼저 항우가 나섰습니다. 이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며 주먹으로 힘껏 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이가 바위의 움푹한 곳에 있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내리쳐도 이는 꿈쩍도 않습니다. 이제 조조가 나섭니다. 조조는 손톱으로 살짝 눌러서 이를 단번에 죽여 버립니다. 피 많은 조조가 천하장사 항우를 이겼습니다. 톱으로 나무를 자를 때 톱날이 무디면 힘이 많이 들면서도 톱이 미끄러지며 나무가

잘 잘리지 않습니다. 톱날이 잘 갈려 있으면 톱이 미끄러지지도 않고 힘을 적당히 주어도 나무가 슬근슬근 잘라집니다. 시골에서 겨울이면 땀감을 위해 매일 나무를 하러갑니다. 갈 때는 낫을 예리하게 갈아 가지만 조금 하다 보면 낫이 무디어집니다. 그러면 힘이 많이 듭니다. 칼로 무 자르기라고 하지만 주부들이 매일 사용하는 칼도 무디면 무가 잘 잘리지 않습니다. 쇠로 된 모든 기구들이 낫이 무디어지면 낫을 날카롭게 해야 힘이 적게 듭니다. 낫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들 11~15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입니다.

마술이 있으면 뱀이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술이 없으면 뱀이 사람을 물 것입니다. 사람이 뱀을 다루기 전에 먼저 마술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마술이 있기 전에 뱀을 다루려고 하다가 물립니다. 일이 터진 후에야 후회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사람이 주의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을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안전사고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또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선진국이란 이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들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안전사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받는 정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후 심판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죽은 후 심판이 있어야 더 합리적이라는 것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선하게 살다가 죽으나 악하게 살다가 죽으나 마찬가지이므로 굳이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자녀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거나 권면할 이유나 타당성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어야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권면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의 두려운 심판에 대한 확실한 안전 대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롬 8:1,2)

심판이 없다고 큰소리친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되지만 그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진노와 심판과 지옥은 살았을 때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안전사고입니다.

삼키는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이 주부에게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도구이지만 강도에게는 무기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입술이 은혜를 끼치는 수단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사람을 삼키는 수단이 됩니다. 같은 수단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쓰임새가 180도 달라 집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들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한 것이므로(잠 15:2)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를 삼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얼마든지 좋게 쓸 수 있는 것도 악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도 있으며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여자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함으로 자기를 삼키는

말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어리석은 말로 인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들의 혀로 하여금 자기들을 덮치게 하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자들이 도망하리로다.”(시 64:8)

어리석은 말로 시작하고 해를 끼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어리석음의 해악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리석음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칩니다. 어리석음의 끝은 미친 것입니다. 미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어리석음의 결정판입니다. 히틀러 한 사람의 미친 짓으로 인해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레닌과 마르크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수천만 명이 살해되었고 수억 명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두 미친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다 알면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모른다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지만 그들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면서 앞날에 대해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고 길을 모릅니다.

목적지가 없다면 목적지에 이를 수 없고 방향이 없다면 미로에서 영원히 헤맬 것입니다. 목적 없이 길을 걸으면 끝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목적과 방향 없이 걷는다면 지치기만 할 뿐 아무리 걸어도 사막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종교에서 영생을 얻고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인생이 끝납니다. 종교창시자에게도 없는 생명을 추종자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과 천국에 대하여 죽어봐야 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종교지도자들은 인생을 지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철 종정은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불교가 최상의 진리라고 믿고 23세에 불교에 귀의하여 81세로 입적하기까지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보기 드문 선승이요 학승이었습니다. 본성적으로 솔직한 사람이었던 그가 세상을 떠나기 10년 전(1983년) 하안거(夏安居) 결제에서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여!” 라고 말합니다(1993년 11월 5일 경향신문). 같은 날자 조선일보에는 더 솔직한 표현으로 실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중한테 속지 말아. 나는 승려인데 스님네한테 속지 말란 말이야.”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지만 성철 종정은 솔직하게 자신은 길을 모른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불교를 최상의 진리로 믿고 주장하며 살았던 그가 임종 직전 푸른 산으로 떨어지는 불타는 석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생을 28자 열반송에 담았습니다. (1993년 11월 5일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성철 종정은 자신에게 인생의 길을 묻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과 천국의 길로 안내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했으며 그 죄가 하늘을 넘치고 수미산을 넘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열반송

平生欺□男女群(평생기광 남녀군)

일생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彌天罪業 過修彌(미천죄업 과수미)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活焰阿鼻 限滿端(활염아비 한만단)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一輪土紅 掛碧山(일륜토홍 괘벽산)

둥근 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겸손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그가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철 종정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철 종정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철 종정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내가 곧 부활ियो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요 6:35),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요 10:11).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요 10:7). 목자는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33. 삶의 지혜 10:16~20

16 “오 땅이여, 네 왕이 아이이며 네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네게 화가 있으리로다!

17 오 땅이여, 네 왕이 고귀한 자들의 아들이며 네 통치자들이 술 취하려 함이 아니라 힘을 얻으려고 정한 때에 먹으면 네게 복이 있으리로다!

18 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손이 놀므로 집이 뚫려 새느니라.

19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20 왕을 저주하지 말되 네 생각 속에서도 말며 네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리로다.”

사람들은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라” 고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외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운이 한창 뻗어가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국운이 다한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멸망하는 백제 의자왕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불운합니다. 같은 시기라도 신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왕은 바꿀 수 없는 요소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버지가 지운 무거운 멍에를 아들 르호보암은 가볍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더 하리라. 또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왕상 12:14). 통치자가 악하면 백성은 악한 상황에 놓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모든 자기 백성을 죄 짓게 하고 사망이 임하게 하고 어둠에 거하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자기 백성을 세상의 어둠에 가두어 둡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세상의 정보에만 의지하면 자신의 악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사기꾼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지하면 그는 자신의 악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이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세상의 바깥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정죄 받은 상태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두려운 정죄가 없으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중요한 모든 정보를 막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고후 4:4).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지 못하도록 먹어버립니다(마 13:4,19). 마귀는 자신이 멸망할 것을 알고(마 25:41, 계 12:12) 사람들도 자신과 함께 멸망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죽으면 심판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속입니다. 마귀가 자신의 왕국(세상)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 즉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영광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 필요한 것

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의와 천국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왕국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의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오늘 북한을 보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살기 어려운 나라가 북한입니다. 통치자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외부 세계의 정보가 철저히 차단됩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가 아무 제재 없이 들어간다면 김씨 독재체제가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대를 잇는 우상화는 북한사회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북한의 폐쇄성과 우상화가 북한을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세계최고의 지상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상은 가득해도 참 하나님이 없습니다. 빵도 없어 지극히 가난합니다. 외부세계에 눈을 뜬 일부 주민들은 생명을 걸고 북한을 탈출합니다. 자유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았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빼내오려고 합니다. 북한 내부의 정보가 아니라 바깥에서의 정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북한의 김씨 일족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환경입니다.

“오 땅이여, 네 왕이 아이이며 네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네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 땅이여, 네 왕이 고귀한 자들의 아들이며 네 통치자들이 술 취하려 함이 아니라 힘을 얻으려고 정한 때에 먹으면 네게 복이 있으리로다!” 16,17절

백성의 삶은 어떤 왕을 만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선한 왕을 만나면 복이 있고 왕이 어리석으면 화가 있습니다. 16절의 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왕의 나이가 어려도 훌륭한 조언자가 있다면 정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조언을 받는 동안에는 정치를 잘 하였습니다(대하 24:1,2). 요아스는 왕의 정통성을 가진 고귀한 자의 아들이므로 주변에 통치 경험이 있는 조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웃시야는 16세에 왕이 되어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대하 26장). 므낫세는 12세에 왕이 되어 55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므낫세에게는 잘못도 있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옵니다(대하 33장). 그러므로 단지 왕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백성의 화가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장성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아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오며”(왕상 3:7).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이므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배 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님 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니라”(렘 1:4~6). 아이는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도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 명이 넘고”(4:11)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는 17절의 말씀을 통해 고귀한 자들의 아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통성이 없는 왕입니다. 반란이나 역모를 통하여 왕이 된 경우

제일 큰 약점은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왕의 정통성이 없을 때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순리대로 다스려질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니다. 그러나 백성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사 1장)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3:1~5절입니다.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 즉 모든 의지하는 빵과 모든 의지하는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대언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오십인 대장과 존귀한 자와 조언자와 숨씨 좋은 장인과 달변의 연설가를 제거하시느니라.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며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백성이 학대를 받되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학대를 받으며 아이가 원로에게 교만히 행하고 천한 자도 존귀한 자에게 그리하리라.”

북이스라엘은 약 208년 동안 왕조가 9번 바뀌었습니다. 사가랴는 6개월 만에 암살됩니다(왕하 15:8~10). 살룸은 한 달만에 피살됩니다(왕하 15:13,14). 브가히야는 이년 만에 피살됩니다(왕하 15:23,25). 이토록 정국이 불안정하고 정권이 빈번하게 바뀌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도다.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사 3:6,7). 이런 나라는 화가 있습니다.

16절은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통치자들이 아침을 먹는 데 왜 우리에게 화가

있는가? 17절을 통해 보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는 것은 정한 때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왕이 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신들의 세상이 왔음을 즐기며 밤낮 파티를 하느라 날이 새는 줄 모릅니다. 밤새 파티를 즐기며 술에 취해 있다가 새벽에 술이 깨고 보니 배가 고파서 먹는 아침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계속된다면 개인이나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왕이나 통치자들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부어라 마셔라하면 이웃 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망했고 백제가 망했습니다.

고귀한 자들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정통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왕이 정통성이 있으면 백성은 왕에게 충성하고 따릅니다. 중국에 진승과 오광의 난이 있었습니다. 중국 진나라가 만리장성을 쌓으며 많은 백성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성을 쌓기 위해 정한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목을 베었습니다. 진승과 오광이 징집자들을 인솔하여 대택향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큰 비가 내려 도저히 건널 수 없어 여러 날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한 날까지 도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가서 참수를 당하거나 도망가는 것입니다. 진승과 오광은 가도 죽을 것이고 도망가도 잡히면 죽을 것이므로 난을 일으켰습니다. 난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왕후장상(왕 제후 장군 정승)의 씨가 따로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무신의 난 이후 실권자 최충현의 사노비였던 만적은 천한 신분의 군인들이 권력을 잡는 것을 보고 난을 계획합니다. 동지의 밀고로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때 최하층 신분의 노비 만적이 했던 말이 바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성을 위해 씨도 따로 있지만 무엇보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시대를 보면 다음 왕이 될 세자는 최고의 선생으로부터 왕이 되기 위해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왕의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왕은 왕의 권위와 기품이 있어야 합니다. 왕은 걸음걸이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왕은 가볍게 행동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왕궁에서의 교육이 몸에 밴 것입니다. 제대로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야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왕이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힘을 얻기 위해 정한 때에 먹는다면 그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최상의 자격을 갖춘 분이십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천년왕국은 지상 최고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심한 게으름으로 건물이 썩고, 손이 한가함으로 집이 내려앉는도다.”

18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로 손질을 해야 합니다. 잘못될 징조가 있으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붕이 오래되어서 하늘이 흰히 보이는 데도 차일피일 미루면 비가 오는 날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건물이 내려앉기 전에 손질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19절

2015년 5월 9일자 조선일보에 “태광그룹 母子 비운의 이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5월 7일 별세한 일주학원 설립자 이선애 여사의 빈소에 카네이션이 담긴 꽃바구니(사진 맨앞)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 투병 중인 아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어버이날을 맞아 8일 빈소에 보낸 것

입니다. 8일 오후 일주학원 설립자 이선애(88) 여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조문객을 맞는 상주(喪主)여야 할 외아들 이호진(53) 전(前) 태광그룹 회장은 간암 3기로 건강이 악화돼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면서도 지근거리에 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여사는 황령·배임혐의로 아들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작년 3월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로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재수감 4개월 만인 작년 7월 풀려난 이후 뇌종양까지 발병해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지냈었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 돈이 있어도 다 쓰지 못하고 돈으로 질병을 고치지도 못합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인생은 헛되며 인생을 가치있게 하지 못합니다(전 2:4~11). 사람이 돈에 연연하지만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돈이 인생에 전혀 무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인생에 많은 쓸모가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웃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건강하며 병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잔치가 그 웃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누가복음 12장의 부자가 큰 풍년이 들자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무 근심 없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그의 집에서는 매일 잔치를 베풀고 웃음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잔칫집을 지나가면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들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집에 잔치가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잔치는 웃음이 넘치게 합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빠질 수 없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포

도즙’ 보다 ‘포도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술이 사람을 너무 즐겁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엡 5:18). 만일 인생이 매일 잔치와 적당한 포도주가 있다면 그는 평생을 웃음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잔치와 포도주보다 훨씬 더 유용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을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도 돈을 주면 놓지 않습니다. 그냥 종이를 주면 금방 버리지만 돈은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돈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날 선물도 돈이 최고입니다. 청년들의 직업 선택기준도 돈입니다. 적성이나 소질이 아니라 돈이 많으나 적으나입니다. 과학기술고의 수학영재들도 대학은 수학과가 아닌 대부분 의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직장이고 돈이 적으면 안좋은 직장입니다. 돈이 안 좋으면 돈을 사랑하라고 해도 안할 것입니다. 돈이 너무 좋아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딤후 6:10)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모든 것에 쓸모 있지만 돈의 가치와 한계를 알고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왕을 저주하지 말되 네 생각 속에서도 말며 네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리이다.” 20절

속담에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성완중 리스트 사건을 보면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해 전에 있었던 일이라 어쩌면 돈을 받은 사람도 잊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케케묵은 일이 지금 터지고 검찰은 조사를 통해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결

론은 모르지만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왕을 저주하면 아무도 모를 것 아닌가? 그러나 비밀은 없습니다.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끝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평소 그의 생각 속에 다윗에 대한 저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는 그 일로 인해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왕에 대한 저주는 생각 속에서도 하면 안됩니다. 생각 속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만 비밀일 뿐 생각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비밀이 될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관독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침실은 다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침실에서 나눈 밀담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은밀한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면 안됩니다(왕하 6:12). 공중의 새와 날개 가진 것이 모든 비밀을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도 인간의 기술로도 다른 사람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도구가 됩니다. 요즘은 무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 모양이나 날개를 가진 곤충 모양을 따라 만든 초소형 무인기가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녀도 새나 잠자리와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낮게 지상을 날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은밀하게 유혹할 때 사람에게는 비밀로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비밀로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일로 누명을 쓰고 몇 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 다. 감옥은 알고보니 요셉으로 하여금 왕권을 가진 이집트의 실세 총

리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뛰어난 예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비밀이 유지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 그의 아내 밋세바와 간음하고서 밋세바가 임신하자 간음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렀으나 충직한 우리야는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여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밀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비밀이 우리야에게는 가능했으나 하나님께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정죄하십니다. 다윗이 대언자 나단을 통해 정죄를 받고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하였지만 그로 인해 집안에 피바람을 몰고왔습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감출 수 없다면 비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왕이나 통치자와 같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통치자이면 나의 악한 것으로 인해 내게 화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한 통치자이면 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하고 돈의 유용함도 알고 잘 사용해야 하며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비밀이 없음을 알고 왕이나 부자를 저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완중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오래전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3천만 원이나 1억이나 2억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 될 줄 알고 받았겠지만 세상에 보장된 비밀은 없습니다.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부끄러운 비밀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34. 알지 못하는 것들로 둘러싸인 인생 11:1~6

1 “네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

2 일곱에게 또 여덟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3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4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5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뱀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6 아침에 네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인생에서 맑고 화창하며 시원한 바람까지 곁들인 빛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시커먼 먹구름이 끼고 사나운 바람이 불며 폭우가 쏟아지는 곳은 날도 있습니다. 오늘은 맑을지라도 언제나 맑은 날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반대로 오늘 곳은 날씨일지라도 언제까지나 곳은 날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밝게 개인 푸른 하늘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생에는 좋은 날도 필요하고 곳은 날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계절 중 지내기 좋은 봄이나 가을을 대부분 가장 좋아하지만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불편하므로 원

하지 않을 뿐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가을을 기다리는 사람은 더운 여름을 지나야만 합니다. 만일 가을이 좋다고 하여 여름 없는 가을이 온다면 곡식이 성장할 수 없고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가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형통과 역경도 필요한 것이며 이 둘을 마주보게 두셨습니다(7:13).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모든 일에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네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 1절

빵을 물에 던지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나 이웃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빵을 물에 던진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빵을 먹을 것입니다. 어쩌면 빵을 물에 던진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그 빵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원수가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빵을 물에 던지는 것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무익한 일이 아닌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 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잠 19:17).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잔치에 초대받았어도 그에게 갚지는 못할 것입니다. 되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를 부르면 그들은 보답할 능력이 없으므로 잔치를 베푸는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눅 14:12~14). 그러나 잔치에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면 그들은 다시 잔치를 열어 되갚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고받는 것이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보상이 없습니다. 세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수들을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

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나를 다루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보상이 있습니다(마 5:44~48). 그러므로 빵을 물에 던지는 것은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즉”(행 10:4). 이로 인해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구원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중국 제나라의 맹상군은 가난한 선비들이 창녀나 기생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가난한 선비들을 3000명이나 먹여 살렸습니다. 맹상군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고 진나라에 재상으로 초청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진나라 대신들의 시기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진나라에서는 그를 제나라로 돌려보내면 위험하므로 죽일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맹상군이 진 소왕의 애첩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자 애첩은 맹상군의 호백구를 요구합니다. 호백구는 수천마리 여우 겨드랑이의 흰털로 만든 매우 비싼 가죽옷입니다. 한 벌 뿐인 호백구는 이미 소왕에게 선물로 주었고 맹상군에게 없습니다. 맹상군이 사람들에게 이야기 했지만 이미 왕에게 준 호백구를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자 평소 개의 흉내를 내어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그 호백구를 훔쳐 오겠다고 합니다. 그가 호백구를 훔쳐서 왕의 애첩에게 주니 애첩이 왕에게 맹상군을 풀어주라고 간청하여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맹상군이 즉시 도망하여 국경에 도착하니 아직 한 밤중이라 관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뒤에는 진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 문이 열리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일행의 한 사람이 닭 울음소리를 냅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닭들도 따라서 울

어렵니다. 국경을 지키던 수비대는 닭들이 일제히 울어대자 새벽인 줄 알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맹상군 일행이 무사히 진 나라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맹상군은 빵을 물들 위에 던졌고 여러 날 뒤에 생명으로 찾은 것입니다.

여러 날 지나서 되찾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를 맺는 씨앗은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알맞은 수분과 햇빛이 공급될 때 싹이 트고 자라게 됩니다. 복음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사람입니다(계 17:15). 복음 전도자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때 당장은 아무 열매 없어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열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씨가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 버려진 전도지를 주워서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결과를 몰라도 여러 날 뒤에 천국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스님은 시주하러 다니다가 청년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손바닥 반만한 신약성경을 시주배낭에 넣کم 집어넣더라는 것입니다. 출가인에게 성경이라니! 황당하지만 꺼내지도 못하고 절에 돌아가서 신약성경을 몰래 몇 번이고 읽었다고 합니다. 결과 예수님을 알고 승리 생활을 청산하고 목사가 되어 많은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들 위에 던진 빵을 여러 날 뒤에 되찾는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빵을 물에 던지면 많이 되찾을 것입니다.

“일곱에게 또 여덟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2절

재물이 있을 때 여러 사람에게 몫을 쥐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자신이 재앙을 당할 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가 일을 불의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해고시키려고 마음먹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눈치를 보니 자신의 불의가 드러난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쫓겨나면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마냥 놀 수도 없고 막노동을 하려해도 힘이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냅니다. 주인에게 돈을 빌려가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부릅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가?” “기름 백 말이니이다” 이 청지기는 그의 증서에 빨리 50으로 적게 합니다. 반으로 깎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밀 백 석이라고 합니다. 그의 증서에는 80석으로 적게 합니다. 20석을 깎아주었습니다. 1석은 두가마니이고 말로는 20말입니다. 그러므로 밀 20석은 밀 400말이나 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빚을 대폭 깎아주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쫓겨나도 그 집에 가면 적어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얻어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옳게 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눅 16장)

약 15년 전 IMF때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직원들이 그들의 월급 일부를 떼어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보태도록 하여 회사가 위기를 벗어났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갈 때는 사장이 직원들에게 잘해주었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월급을 깎은 것입니다. 일곱이나 여덟에게 몫을 나누어주는 것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많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으면 한 바구니를 실수하여 떨어뜨려도 나머지 계란들은 안전합

니다. 한 사람이 부자이고 주변 사람이 다 가난하다면 그 부자가 망했을 때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부자이고 그가 다른 사람들도 부자로 만들어주었다면 그가 망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도와 다시 일어서게 하기는 쉽습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3절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조만간 땅 위에 비를 쏟아 부을 것입니다. 재앙은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때가 되어 일어납니다. 사람이 무시하거나 간과했을 뿐 조짐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사람은 백두산이 2032년까지 폭발할 가능성이 99%라고 합니다. 그만큼 백두산이 폭발할 여러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사고도 큰 사고가 생기기 전에 그곳에 작은 사고가 수십 번 일어납니다. 통계에 의하면 작은 사고가 28번 발생하였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반드시 큰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넘어진 것은 큰 바람의 재앙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큰 바람에 쓰러진 나무는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 넘어졌으면 남쪽으로 넘어진 그 상태로 썩을 것이고 북쪽으로 넘어졌으면 그 상태로 썩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재앙을 당해 넘어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IMF 때 수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회사가 부도로 넘어졌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일어서지 못한 기

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원수의 나귀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를 도와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출 23:4,5). 원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을 좋아해서는 안됩니다. 언젠가 상황이 바뀌어 자신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메고 가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 원수가 자신을 돕지 않는다면 자신의 나귀는 영영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그 원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도 자신의 어려움을 도울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은 곤경에 처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빌론은 아시아와 서방을 지배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감히 바빌론과 맞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귀부인이 되리라, 하고는 이 일들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며 그것의 마지막 끝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사 47:7,8). 그 강성하던 바빌론이 유다를 삼킨지 70년 만에(BC 536년)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무너집니다. 누구에게라도 재앙의 날이 닥칠 수 있습니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4절

계으름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오늘의 계속일 뿐 오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

늘 개선하지 않으면 내일도 나아질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불면
 씨를 제대로 뿌릴 수 없습니다. 농부가 바람을 살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러나 농부가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바람을 핑계대고 씨를 뿌리기를
 미룬다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입니다. 바람은 오늘도 불고 내일도 불 것
 이기 때문입니다. 또 곡식은 심고 가꾸는 만큼이나 수확의 시기가 매우 중
 요합니다. 수확은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으면 소출과 품질에 큰 영향을 줍
 니다. 수확은 맑은 날 적기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맑은 날 수확해야 곡
 식을 말릴 수 있으므로 농부는 맑은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농부가 구름
 들을 살피느라 수확을 미룬다면 애써 가꾸어 놓은 곡식을 제때 수확하지
 못할 것이고 많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
 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딤후 4:2). 바람을 살피는 농부가 때를 놓치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릴
 시기를 찾는다면 그는 알맞은 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정근모 씨는 김재
 익 박사와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근모 씨는 과학기술
 처 장관, 김재익 씨는 대통령 경제담당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전
 두환 대통령을 수행하여 버마에 갔다가 김재익 씨는 아웅산 테러사건(1983
 년 10월 9일)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테러가 있기 전날 밤 정근모 씨는 김재
 익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정근모 씨는 그 밤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
 다는 강한 부담이 있었으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 토론하느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미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기
 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밴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

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네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5,6절

과학과 지식이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재앙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2). 빵을 물들 위에 던지고 일곱이나 여덟에게 몫을 나누어주는 것은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막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밴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듯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찌면 둘 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한 번 뿌린 것으로 끝낸다면 잘 못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뿌린 복음의 씨가 잘못된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두 머슴이 있습니다, 주인이 두 머슴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는 새끼 꼬는 일을 시킵니다. 한 사람은 이 집에서의 마지막 일이니 부지런히 새끼를 꼬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오늘 그만 둘 것인데 일 할 필요가 뭐있느냐며 빈둥빈둥합니다. 저녁에 주인이 두 사람을 불러 자기가 끈 새끼줄에 동전을 꿰어서 가지고 가게 합니다. 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었고 한 사람은 빈손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느 것이 잘될지 사람은 모릅니다.

35. 어두운 미래 11:7~10

7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8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라도.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다.

9 오 청년이여, 네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네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10 그러므로 슬픔을 네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네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사람은 늘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빛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빛은 우리에게 항상 있으므로 빛의 중요성이나 빛을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둠을 겪어본 사람만이 빛에 대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천년(AD 500년~ AD 1500년)의 암흑시대를 지나고서야 종교개혁을 통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검은 구름과 심한 폭풍우가 치고서야 빛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눈으로 해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해를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어둠의 땅은 어둠 그 자체와 같

으며 사망의 그늘진 땅은 어떤 질서도 없고 거기서는 빛이 어둠 같으니이다, 하니라”(욥 10:21,22). 사람이 죽으면 주를 찬양할 수도 없고 진리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어서 해를 바라보는 자는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지 못하되 살아 있는 자 곧 살아 있는 자는 이 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터이며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리리이다”(사 38:18,19). 사람이 나이가 들면 혹시 다음 날 해를 못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밤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때 밝은 빛이 비추인다면 살아 있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요 12:46).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햇빛을 값없이 주셨듯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여러 해를 살며 해를 기뻐할지라도 70년 80년입니다. 그 70년 80년도 우리가 다 기뻐할 수 있는 해가 아닙니다. 그 중에도 어두운 날들을 빼고 나면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설사 모든 해를 기뻐한다 해도 70~80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 뒤에는 긴 어둠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러 해를 즐기며 살아도 그 뒤에 긴 어둠이 찾아온다면 그의 인생은 헛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햇빛 찬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고급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매일 인생을 즐기고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어둠은 찾아왔습니다. 이전의 모든 부귀영화가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어둠

이 과거의 모든 기뻐하던 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철권통치로 군림했습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42년 동안 독재자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후세인에게도 어둠은 찾아왔고 카다피에게도 어둠은 찾아왔습니다. 후세인의 철권통치와 카다피의 42년 권좌가 한 순간에 어둠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단지 여러 해를 즐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다가올 어둠을 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중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을 대비해 등불을 밝힐 기름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신랑의 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모두 잠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신랑이 온다고 소리치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등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했으므로 등에 기름을 채워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아 함께 성 안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어둠이 다가옵니다. 어둠을 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고 합니다. “내 인생에 테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가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힘들여 일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여행을 합니다. 모두 자기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온통 자신의 인생을 강조합니다. 이제 간음은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간음은 개인의 권리이고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도 죄가 아니라 성의 기호문제일 뿐, 개인의 취향문제를 법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다. 내 인생은 언론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이나 부자를 저주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10:20, 행 23:5).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더 높은 권력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롬 13:1~3). 더 나아가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딤후 2:1~3).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딤후 3:1~7). 비방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혀를 조심하라고 하십니다(약 3:5~10). 우상을 섬기거나 혀를 조심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 개인의 자유와 자신의 인생이라는 철저한 사고방식을 가진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 들고 마음이 원하면 그길로 갑니다. 그의 눈에 좋으면 그 길로 갑니다. 이 청년의 생각은 3천년이 지난 오늘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지만 바뀐 것은 겉모습일 뿐 속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된장녀’, ‘김치녀’ 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지만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말이 ‘개념녀’ 라고 합니다. 다음은 ‘개념녀’ 로 사는 것은 어렵고 피곤한 일이라며 차라리 ‘김치녀’ 나 ‘된장녀’ 로 편하게 살아가겠다는 고려대 게시판에 붙은 어느 여학생의 글입니다.

『또 “여성혐오는 ‘김치녀’ · ‘된장녀’ 라는 노골적이고 일상적 형태를 자

리잡았다. 이 시대 살아가는 여성들은 자신이 갓치녀나 된장녀가 아님을 계속 증명해야만 한다”면서 “(여성의) 개념없음의 잣대는 남성에게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고 자의적, 폭력적이다. 공중파 TV에서 못생기고 뚱뚱한 여성을 웃음거리로 삼고 비하하지만 키 180이하 남자가 루저라고 말하는 여성은 일자리에서 쫓겨난 채 사회에서 매장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자보에 해당하는 벽보가 2건 더 붙었다. ‘연경’이라고 밝힌 고려대 학우는 ‘개념녀가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해서 안병하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의 벽보를 붙였다.

그는 “명품 가방 안 좋아하고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시고 남자들과 함께 된장녀를 목하면 저는 개념녀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다”며 “그러나 성격도 좋아야 하지만 여자들과 너무 친해서도, 너무 친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은 남자들과 친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남자들과 친하지 않고 너무 도도해서도 안 되고, 내숭을 부려서도 안 되고, 과하게 털털하고 내숭이 없어서도 안 되고, 연애를 하면 상대방 섹스를 해야 하지만 또 한 편으론 처녀여야만 하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개념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어 “좁디 좁은 ‘개념녀’의 자리에 저를 놓는 불가능한 일을 그만두고 제가 살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데에 붙여지는 이름이 ‘갓치녀’라면 그 이름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선포자 자신도 한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2장 10절 “또 무엇이든지 내 눈

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우리는 선포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고 눈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포자는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최상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일들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 있었도다.”(2:4~9)

선포자의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입니다. 선포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면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선포자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11)

왜 선포자가 최고의 인생을 살고도 헛되다고 하는가? 선포자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계 4:11).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욱 자신의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딤후 2:14 참조)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마귀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 자신이 영원한 멸망에 빠질 것인데 그 동반자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위한 최고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헛되다고 한 것은 인생의 목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틀렸으므로 그의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2장4~9절 그 어디를 보아도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은 밭을 심으려고 종에게 밭을 갈게 하였는데 종은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심으면 낭비요 헛수고일 뿐입니다.

우리의 첫 사람 아담과 이브의 실패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자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인생을 살라고 지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6,27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창 1:26,27).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동산을 다스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을 잘 이행하는 대신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뱀이 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추구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창 3:4,5).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자신의 눈이 보는 대로 걸었습니다.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이러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아닌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내 던지라”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달란트 비유, 므나 비유, 종의 비유에서 악한 종은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인생을 산 것에 대한 심판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내 것인 양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10절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슬픔을 네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네 육체에서 치우라.”

우리는 마음과 몸을 다 죄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잠 4:23).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시 119:9). 본문의 슬픔은 악한 상황에서 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렘 17:6).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탐욕에 빠져 자신들의 신세를 슬퍼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사와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우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그때에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민 11:4~6, 10)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살므로 헛됩니다.

36. 젊은 시절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12:1~7

1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3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어져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4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 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5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6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7 그때에 흠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80년을 주실 때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청년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11장9절처럼 창조주 없이 젊은 때를 기뻐하면서 자기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것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말입니다(시 14:1). 그 길은 찾는 사람도 많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길과 많은 사람이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마 7:13).

장날에 많은 사람들이 장에 갑니다. 밭에 거름을 지고 가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장에 가는 것을 보고 거름을 지고 그들을 따라 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으므로 그냥 따라갑니다. 자신이 그 길을 가야 되는지 가지 않아야 되는지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이와 같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자신들을 멸하는 날까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길을 따라 갔습니다.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모두 멸망의 길이었습니 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만일 모두가 의롭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섰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지지하고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독재와 공산주의와 신탁통치를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들은 모두 파멸이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자유를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을 가져왔으며 우리나라는 두 동강나고 비극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고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을 전쟁에서 죽게 한 전쟁광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대다수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것입니다. 흙탕물은 아무리 많아도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흙탕물이 많다고 하여 그 물을 깨끗한 물로 착각하여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많은 흙탕물 속에서 마실 물을 찾지 않습니다. 흙탕물이 없는 곳에서 아주 깨끗한 샘물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므로 옳다거나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다른 한 길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단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찾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나 비록 길이 좁고 다니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마 7:13,14). 청년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올바른 인생의 선택이며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가?

창조주는 우리 존재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근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모든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보이는 어떤 것도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히 11:3).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사람에 의하여 핸드폰이나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 기계는 만든 사람의 의도에 충실할 때 좋은 기계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비싼 기계일지라도 만든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 기계는 전혀 쓸모없는 고물덩어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고물상에 주어져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창조주 없이 산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70년, 80년 동안은 제 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창조주께 그의 인생을 보고해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노는 것과 같습니다. 노는 동안에는 노는 재미에 빠져서 부모도 걱정도 없습니다. 다 놀고 난 후에 걱정이 됩니다.

인생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인생에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창조주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듯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죽음과 심판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만일 죽음 뒤에 심판이 없다면 책임이 없으므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선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도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아도 책임이 없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어 사기나 강도질을 해도 책임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책임도 없으므로 안잡히면 되고 피해서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 집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을 때는 일본의 세상이므로 일본 편에 서는 것이 살기에 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 편에서 자기 민족을 팔고 동족을 괴롭힌 대가로 행세하며 살았습니다. 일제시대가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리고 아무 심

판도 없다면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 사람같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이 문제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해방을 간절히 원하였으나 매국노들은 해방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해방이 되자 일제시대 때 삶의 편리를 위해 매국노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었고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매국노라는 명예를 벗을 수 없습니다. 일부 매국노의 재산이 환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우리 인생도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죄인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죽어도 심판의 위협이 없습니다. 심판의 위협이 없으므로 죽음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언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가?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잘못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잘못된 인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고서 후회하는 것은 젊어서 잘못된 인생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담배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젊어서는 스트레스 해소용이거나 품이었는데 몰라도 늙어서 후회한 것입니다. 도박으로 재산과 가정과 인생을 다 탕진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도박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창조주 없이 살았던 사람도 똑같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재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아무도 재난의 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최첨단 과학으로도 재난의 날을 알 수 없습니다. 신실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가 넘겨받은 집안사람들을 잘 다스리며 제 때 먹을 것을 공급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의 오는 것이 늦은 줄 알고 동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종이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왔습니다. 종의 주인이 와서 신실한 종에게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을 관리자가 되게 하였고 악한 종에게는 위선자들이 받는 악한 몫을 받게 하였습니다(마 24:45~51). 창조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재난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난이 있기 전에 창조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재난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 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 6:12~17)

해들을 기뻐할 수 없는 해들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언제까지나 해들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해들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젊을 때이며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11:7)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때는 대환난의 때이므로 그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삼분의 일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세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계 8:12,13). 대환난에서 아무도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역병과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 국민에게 황궁요배를 강제하였듯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에게 강제로 절하게 할 것입니다. 거부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양자택일만이 남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할지라도 최대의 허용된 시간이 고작 악몽같은 7년뿐입니다. 대환난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대환난의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습니다.”(살전 5:9)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구름이 걷히면 마치 구름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걷혔다가 되돌아오기까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름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검은 구름이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해들을 기뻐할 수 없는 해들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가 온 뒤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그 때가 지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요 1:3).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날에는”

그날은 젊은 시절이 지나고 재난의 날들이 이르는 날이요 해들을 기뻐할 수 없는 해들이 이르는 날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이요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날에는 우리 몸의 상태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7절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어져”

팔과 다리 혹은 손과 팔이 떨립니다.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등이 구부러집니다.

“맷돌 가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치며”

이가 빠집니다.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눈이 어두워집니다.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음식을 씹는 이가 힘이 없습니다.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귀가 어두워져 거둬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잠이 적어지고 새벽이면 잠이 깡니다.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노래를 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사다리나 의자 위에 올라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길에 있는 조그만 장애물도 위험이 됩니다. 넘어지기 쉽고 다치기 쉽습니다.

“아몬드나무가 무성하며”

백발이 됩니다.

“메뚜기가 짐이 되고”

가벼운 메뚜기도 짐이 될 만큼 힘이 없습니다.

“욕구가 그치리로다”

욕구가 그친다는 것은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늙으면 욕구도 없습니다. 다윗이 나이 팔십인 바르실래에게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바르실래가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날 내가 팔십 세니 어떻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리이까? 주의 종이 먹거나 마시는 것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그런즉 어찌하여 주의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짐이 되리이까?”(삼하 19:34,35)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젊어서는 성공과 꿈과 출세를 위해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나 늙어지면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장례행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은 상여꾼들의 슬픈 노래와 함께 떠납니다.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위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6절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는 것은 생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샘에서

물 항아리가 깨지면 더 이상 물을 길 수 없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진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바퀴가 깨지면 멀리 있는 물 저장고는 옮길 수 없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7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던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곧 사람이 죽으면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흙이 전에 왔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있습니다.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이 영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미 11:9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11:9). 심판을 받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몸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도 아닙니다. 사람의 혼입니다. 솔로몬은 이 혼이 창조주 없이 살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죄 있는 혼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솔로몬의 말입니다. 당신의 혼은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갈 곳은 지옥뿐입니다. 죄인의 혼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혼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충고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사람이 몸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세상의 어떤 지식인보다 더 인생을 잘 알았습니다. 또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혼은 심판의 대상이 됨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하였고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우리를 위해 가장 유용한 지혜를 제공해줍니다. 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7.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8~14

8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9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우므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10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11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 채들 같고 집회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나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12 내 아들이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13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14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8절

이 말은 전도서의 서두에서 말하였던 것을(1:2) 지금 결론 부분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곧 1장 2절에서 12장 8절 사이에 있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헛된 것으로 시작해서 헛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힘써 살고도 보람이 없고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던 결론은 헛된 것입니다. 선포자가 1:2에서 12:8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것들을 경험하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열심도 있고 확신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합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도 우리처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멋있는 인생을 살았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 없이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지혜로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해 많이 고민하며 살았지만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최상의 삶을 추구한 선포자의 인생이 헛되다면 같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도 역시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포자는 흠에서 온 헛된 것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헛된 것으로 인생을 끝낼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구하였으며 또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 하늘 아래에서 행하여야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노라”(2:3). 선포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까지 계속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헛된 인생이 12:8절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솔로몬보다 많은 것을 남길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물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으며 지식에 있어서는 만물박사요 지혜로는 사물의 이치를 알고 탐구하였으며 세바의 여왕이 알고 싶었던 모든 질문들에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인류평화에 기여한 공은 어느 누구보다도 막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위에 있는 40년 동안 미국, 유엔 등 어떤 강대국들이나 정치가들도 하지 못한 중동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때는 전쟁이 별로 없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다 더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의 선대 왕들은 전쟁을 수없이 치렀습니다. 그 많은 전쟁이 솔로몬의 시대에 그친 것입니다. 그는 재판에 있어서도 매우 지혜로웠고 사람들은 재판 결과에 모두 승복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누구보다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을 헛되다고 합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공, 재물, 권력, 명예, 지식, 장수 등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도 솔로몬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된다면 최고의 인생이겠지만 헛된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르면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열심히 인생을 살고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인생의 설계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70,80년을 위한 인생을 설계합니다. 중고등 학생들은 대학진학이 목표입니다. 진학한 다음은 취업이 목표입니다. 취업한 다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은 여유있는 노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늙고 병드는 것? 그 다음은 죽는 것? 그 다음은? . . . ??? 인생의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영원한 인생을 위한 설계여야 합니다. 70,80년까지 인생으로 영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80년을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은 영원에 대한 어떤 계획도 준비도 없습니다. 그에게 영원이란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됩니다. 70,80년을 위한 인생은 영원에서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우므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9절

솔로몬의 잠언은 사물의 이치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한 결과물임

니다. 그러므로 그의 잠언은 3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에도 똑같이 진리입니다.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솔로몬의 잠언을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는 백성을 가르쳤는데 이로보아 12절의 한 목자가 선포자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10절

세상에는 인생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솔로몬의 인생론은 그것들과 차원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인생론이 별 가치가 없는 것은 올바른 것도 아니요 진리의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없고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 솔로몬같이 인생의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인생 보고서가 올바른 것이요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선포자의 보고서는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들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말씀들로 책으로 엮었습니다. 전도서는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라는 데에 뛰어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올바른 것이요 진리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 채들 같고 집회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나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one shepherd) 주신 것이니라.” 11절

지금 강단의 설교에서 지옥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사라졌습니다.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지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람

들이 지옥이나 죄나 피를 설교하면 은혜가 안되고 몹시 불편해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축복받는 설교, 위로하는 설교, 인간적인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들은 타락한 우리 본성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 채는 소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 아프게 하는 채찍입니다(삿 3:31). 아프지 않다면 가시 채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면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훈계와 책망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가시 채입니다. 잠 1:8~19(훈계), 22~33(책망)

한 목자(one shepherd)는 소문자 s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솔로몬 자신 혹은 설교자를 가리킵니다.

“내 아들이,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12절

이 전도서는 청년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권고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 한 권이면 될 것을, 사람이 많은 책을 쓰고 인생을 알기 위해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해도 끝이 없습니다.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상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 등등 그런 책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책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없으므로 헛된 공부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13절

드디어 선포자가 2:3절에서 “사람의 아들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 하늘 아래에서 행하여야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먼 길을 떠난 인생의 탐구 여행에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당신은 선포자가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도착한 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무릉도원이나 저 멀리 있는 상상의 어떤 나라 혹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가 돌고 돌아 도착한 곳은 그의 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롬 10:8). 선포자가 얻은 결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는 새로운 진리이거나 몰랐다가거나 멀리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포자보다 약 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이요 선포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그의 입에 항상 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항상 차고 다니며 암송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서 지극히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또 네가 평생토록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네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주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네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네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네 집의 기둥과 네 문에 기록할지니라.”신명기 6:2~9

선포자는 이 진리를 찾으려고 곳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지혜가 모든 일에 유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지혜의 도시에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지혜에는 근심이 따랐습니다. 지식을 늘린 만큼 슬픔도 늘었습니다. 영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1:17,18). 실망한 선포자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칭찬하는 쾌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도 가 보았습니다(2:1). 그들의 희락 뒤에는 인생의 비애가 있었습니다. 대박인생을 꿈꾸고 태백에도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문만 무성하던 대박인생은 없고 쪽박인생들만 가득하였습니다. 대박인생은 알고 보니 쪽박들의 피로 이룬 것이었습니다. 쾌락은 사람이 추구할 것이 못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칭찬하고 추천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웃음의 도시입니다. 웃음의 도시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웃음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다니! 선포자는 웃음의 도시에 가보았습니다(2:2). 웃음의 도시에서는 소문대로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웃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즐겁지 않은데 먹고 살기 위해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웃음이라는 상품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선포자는 그들의 슬픈 웃음을 보며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살아보고 싶어 하는 전원도시에 가보았습니다(2:4~7). 그곳은 보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공기가 깨끗하고 조

용하고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번잡한 도시의 공해와 소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독합니다. 몸은 산에 있는데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음악의 도시에 갔습니다(2:8).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합니다. 합창단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신나는 음악도 있고 아름다운 음악도 있습니다. 그 즐거움도 한 때일 뿐입니다. 나이가 드니 즐거움이 없습니다. 취미생활로 유명한 도시에 가보았습니다(2:8). 그들은 취미생활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 곳에서 각종 취미로 진귀한 보물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습니다. 그 보물들이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재물의 도시에 갔습니다(2:18~21). 모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그 많은 재물을 한 톨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두 남겨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되었습니다.

선포자가 돌아다니던 모든 도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도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나 소문과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찾아가보니 실망이었고 모든 수고는 헛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문은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남방의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직접 확인한 결과 소문보다 훨씬 뛰어ना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선포자가 이 곳 저 곳 돌고 돌아도 찾던 것을 찾지 못하자 그가 살던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 살던 옛 어른들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해. 그것이 인간의 의무네.” 그 말씀은 지금까지 주야로 항상 들어왔고 자기 입에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상으로

외우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는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실패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인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 말씀을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시 119:11)

선포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선포자가 이 결론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탐구하고 경험해 보았음을 압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행할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부귀영화를 추구해보았고 쾌락도 추구해보았으며 웃음도 추구해보았고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며 눈이 원하는 대로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지나간 한 때로 끝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평생 동안 행할 좋은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벤전 4:3).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평생 행하여야 할 좋은 일이고 인생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해도 모두 헛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잘못된 인생일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땅에 가뭄이나 기근이 없을 것이고 가축들이 새끼를 낳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이집트에 있었던 악한 질병이 없을 것이며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신 7:12~15).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욥 19:26,27)

사람들은 진리를 먼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달이나 화성이나 저 먼 행성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쫓아갑니다. 그러나 실망합니다. 진리가 그토록 멀리 있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만일 청년이 전도서를 읽고 솔로몬의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솔로몬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젊은 나이에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14절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일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비밀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둔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으므로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일들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임

니다.

보고서는 먼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보고서는 문제를 찾아낸 다음,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대책을 함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좋은 보고서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헛된지 그 원인을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인생의 헛된 원인을 찾아내었고 보고서의 마지막에 그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이것이 전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헛된 인생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는 솔로몬의 권고를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인생보고서를 쓸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판단은 그의 보고서를 읽은 당신의 몫입니다. 사람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그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31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 커넥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옴기 연구	Dr. Ken Blue	372	13000
75	로마서 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약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DeHaan, M.D.	120	5000
79	옴기	Dr. Samuel C. Gipp	48	1000
80	사무엘 김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Highest) 수준의 (生活)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83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종욱	168	7000
84	영의 세계	LARKIN	160	7000
85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James W. Knox	40	1000
86	칭의에서 성화로	김영균	102	5000
87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전종욱	294	8000
88	믿음 사용 설명서	Linton M. Smith	96	4000
89	전도서	전종욱	384	14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

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지은이

전 종 욱

- 신내침례교회 담임목사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551(5층)
- 교회전화 : 02) 435-0068
- 휴대전화 : 010-9191-1207

